

4-8주차

新수능 국어영역 독서원론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수능 국어 전문가 배인호 선생님 소개

수업 문의/편입 안내/신규 수강생 안내 : 연구실 010-8388-5403

인호 배T

InnovaTe

Before Anyone Else KSAT Teacher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국어과 정교사 2급 자격)

강남 오르비 학원, 대치명인 학원

수만휘/오르비 칼럼 멘토

2020 6평 전후 대치/강남 수강생 수 1000% 향상

2020 6평 이후 개강반 100% 마감(6.7.8.9연속)

2020 수강생 동생 수강률 98%

수험생 시절 상위 0.01%~0.3%¹⁾
문이과 서울대/국립대 주최 경시대회입상(지구과학경시/지리올림피아드)²⁾
2005 군 전역 후 INOS 창업, 소셜커머스³⁾
2008 이노에듀 창업⁴⁾
2009 공부법 강의 1위⁵⁾
2010 KBS 드라마 공부의 신 멘토
2010 kt에듀 전과목 강의 1위⁶⁾
2011 비타에듀 언어영역 강의 1위⁷⁾

2011 kt그룹 계열사 최연소 임원⁸⁾
2011~2013 전국 최대 독학 재수학원 원장⁹⁾
2011~2013 전국 최다 지점 소수정예재수학원 원장¹⁰⁾
2014 스카이에듀 모회사 ST&컴퍼니 고문 제의
2014~2018 대치/강남 입시 코디¹¹⁾
2017~2018 경상남도 여민동락 교육 사업자 선정¹²⁾
2018 강사 발굴 교육기관 국어과 전임 교수¹³⁾
V사 S사 M사 인강 강사 영입 제의¹⁴⁾
동아일보 등 다수 신문사 학습섹션 칼럼리스트 요청¹⁵⁾
삼성 리빙 허브 강연 요청 및 다수의 TV 출연 요청

*공부법 강연 : 용인시청, 울산 북구청, 안산시청, 전라남도 교육청 등
*언론보도 :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국민일보, 연합뉴스, 헤럴드 등
*KBS 드라마 '공부의 신' 멘토
*SBS 이성미의 라디오 쇼 출연
*SBS 김소원의 라디오 전망대 출연
*Mnet 김수로의 명문대 특별반 엠블랙 멘토 출연
*SBS 스타킹 공부법 강사 섭외 요청
*삼성 스마트 리빙 허브 공부법 강사 섭외 요청
*KBS 아침 마당 섭외 요청

*훈장마을 성공강사 강연회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1) *현역~재수 시절. <https://vatnom.blog.me/221566245704> (링크 참조)
2) *요즘과 달리 그 당시에는 서울대/국립대의 특정 학과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의 경시대회가 단 1회 있었음
3) *스타일난다, 임블리등과 비슷한 시기 창업. 비슷한 성장속도. 위메프, 쿠팡, 그루폰 등 소셜커머스 초창기 BM
4) *에듀테크 기업
5) *공신 온라인 나눔지수 1위. 게시판 점유율 70%
6) *kt에듀 입성 1년 기준. 전체 수강생 수 80% 매출 70% 점유
7) *kt비타에듀 국어 강사 입성 1개월 뒤 수강생 수, 매출 기준
8) *2011~2013년 kt에듀 콘텐츠사업부 이사. kt에듀에 이노에듀 M&A
9) *kt에듀 학습센터. 6개월 간 전국 25개 지점 개원.
10) *대치/강남/서초/사당/신촌/목동/노원 이노에듀.
11) *성적 급등 사례, SKY 및 의치한 합격자 다수, 평가원 모의평가 및 수능 전국 차석 다수 배출
*대기업 CEO 자녀, 고위공무원 자녀, 인강 1타 강사 자녀 등
12) *온라인 이노에듀.
13) *스카이에듀 모회사 커넥츠, 스카이에듀와 삼자루 선생님이 개설한 에플사브로 국어과 교수
14) *현 메이저 인강 4사 중 3사(인수 합병 포함) 영입 제의
15) *동아일보, 내일신문, 학원 전문 신문 앤써, 조선에듀, 국민일보 등

2

국어 영역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동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①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②만들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지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③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 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구를 [A]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

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의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曆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헌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불온한 요소로 ④여겼다.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이든 ⑤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7세기 옹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氣)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⑥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옹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

*질점: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

*구 대칭: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

27. 다음은 읽 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읽 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계획: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를 한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같음..... ①
○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다름..... ②
○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③
○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④
○ 중국에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⑤

28. 읽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계몽토가 이루어졌다.
- ② 서양 천문학의 전래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중국에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 ④ 중국에서는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
- ⑤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29. 읽 글에 나타난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 ②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었다.
-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 ④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 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었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수용한 학자들은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하였다.
- ②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를 집대성한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

- ③ 방이지는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 ④ 매문정은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과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였다.
- ⑤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

3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이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싸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1)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 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 에서 P 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2) (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 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 에서 P 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 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 에서 P 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 ①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 ②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 ③ 질량이 M 인 지구와 질량이 m 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 ⑤ 반지름이 R , 질량이 M 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 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 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R+h$ 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32. 문맥상 ㉠~㉣와 바꿔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작(振作)할
 ② ㉡:고안(考案)했다
 ③ ㉢:소지(所持)한
 ④ ㉣:설정(設定)했다
 ⑤ ㉤:시사(示唆)되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동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 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曆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헌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불온한 요소로 ㉣였다.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7세기 옹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氣)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옹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

*질점: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

*구 대칭: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

27.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계획: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를 한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같음..... ①
○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다름..... ②
○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③
○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④
○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⑤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 ② 서양 천문학의 전래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중국에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때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 ④ 중국에서는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
- ⑤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29. 윗글에 나타난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 ②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지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었다.
-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 ④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 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었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수용한 학자들은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하였다.
- ②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를 집대성한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
- ③ 방이지는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 ④ 매문정은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과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였다.
- ⑤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

32. 문맥상 ㉠~㉣와 바뀌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작(振作)할
- ② ㉡:고안(考案)했다
- ③ ㉢:소지(所持)한
- ④ ㉣:설정(設定)했다
- ⑤ ㉤:시사(示唆)되어

2~3페이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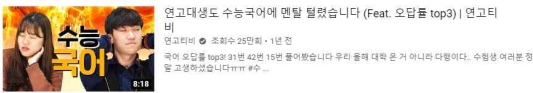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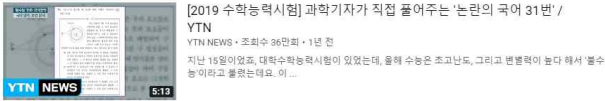
4~5페이지의 차이 아시겠나요?

위의 지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선, 표점 150점 만점.

역대 표점 최고점.

결국 국어 만점 + 수학 4등급으로도 의대를 가기도 하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아니 이걸 왜 과학전문기자가 푸시고

심지어 서울대 01학번, 16학번...

아니 그 시절 시험 아니라니까요?

왜들 다들 국어는 만만할까요?

수학 21번 30번은커녕,

수학 4점 짜리... 아니 사실 2~3점도 텀빌 생각도 안 하면서

왜 수능 국어는 아주 전국민이 다 전문가...

심지어?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저기... 물리학 하세요 물리학자님들아...

왜 수능 국어 출제 원칙 1줄도 안 읽어보시고

수능 국어 시험이 이렇게 저렇게...

수능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이 지문해석능력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셔서 그걸 알기알부 하시며,

또 수능 국어 시험에 지문해석능력과 관련 없는 문항이 나오면 안 됩니까?

이런 비슷한 논란은 이미 수도 없이 있었는데

[토요인터뷰] 최승호 시인 "내 시가 출제됐는데, 나도 모두 틀렸다 ..."

https://news.joins.com › article ▾

2009. 11. 21. 최 시인은 올 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국어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시의 이해'를 강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능 시험과 고교 시 교육에 대해 ...

평가원이 생각하는 문학교육의 목표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렇게나 왜 전 국민이 국어는 그렇게나 만만하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 글을 읽는 수험생 여러분부터도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수능 국어 백분위 100 역량 내재되어 있습니다만, 그 품과 자세를 교정하고, 바로 잡는 연습을 얼마나 하셨나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접근법 세워서, 지문 근거 잡아서, 선지 단어, 개념어 와리가리, 맞고 틀리고... 그게 무슨 국어 능력인가요?

지금 숨은 단어 찾기 하세요?

문학 개념어 그만 거 찾아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간단히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수능 국어 출제 의도

즉,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목표

비문학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보처리 역량 강화

문학 : 공감능력 강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문학 : 서정 장르 - 정서 파악을 바탕으로, 공감능력 향상

문학 : 서사 장르 - 삶의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고양

위의 학습 목표를 너무나 잘 실현시키고 있는 과목임을, 제 수업
을 제대로 따라오는 학생들은 온전히 느끼고 있을 것이고,

위의 학습 목표 공감과
제 수업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정비례하고 있을겁니다.

이것이
수능 국어를 대비함에 있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옳은
가장 빠른
가장 정확한
가장 높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배운 방법을 바탕으로 위의 지문을 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려 위의 지문은

과학기술 지문이 아니라

철학지문입니다.

뇌피셜로 천동설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인가요?
경험적 방법으로 과학적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인가요?
신체를 이루는 것이 기(氣), 기공포, 기합, 장풍같은 것을 주장한
동양의 학자들이 과학자인가요? 철학자인가요? 무당인가요?

위 지문의 흐름은
2018학년도 6월 동양사상(철학)
2018학년도 수능 서양사상(철학)
2019학년도 6월 서양사상-서양과학의 동양철학에 영향
그리고
2019학년도 수능 서양사상(철학/자연과학)의 동양사상(철학)에
영향 + 그 결과
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흐름 보이시죠?
이 흐름은 앞으로도 수도 없이 보이는데,

과학 기술에서도
2019학년도 6월 LFIA 키트
2020학년도 6월 공진화
2020학년도 수능 레트로 바이러스
흐름

경제학에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2018학년도 6월 경제정책 - 채권/통화량/금리/경기/물가 조절
2018학년도 수능 경제정책+오버슈팅
2019학년도 9월 CDS P
2019년 3월 학평 순환출자
2019년 ebs 수능 특강 Q.E
2020학년도 6월 2008 리먼 사태 전후의 경제위기와 해법
2020학년도 수능 BIS
흐름

2019학년도 6월 계약자유원칙 + 비례원칙
2019학년도 수능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권-채무
2020학년도 9월 소유권
흐름
그래서 [A]단락만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사실 지문 나머지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상호텍스트적 독서에 의한 지문이니, 구조 처
리를 통해 정보처리 했다면 매우 편해짐을 겪을 겁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개방식, 시공간 배경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서양 우주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동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①일으킨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②만들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③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④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배경지식 종교재판 갈릴레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 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تبو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

기술연계 배경지식

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와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3월 학평+기술 연계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曆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현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현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불온한 요소로 여겼다.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성리학 새국 정책

17세기 옹행우와 방희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이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氣)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뇌피설 무당

17세기 후반 왕석진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옹행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중화사상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

결말 새국정책 청+조선 멸망

*질점: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
 *구 대칭: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

1단락 전체 주제

주제+전개 방식 (신유형)

27. 다음은 뒷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뒷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계획: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를 한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같음..... ①
○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다름..... ②
○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③
○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④
○ 중국에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⑤

28.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주제 E**
- ② 서양 천문학의 전래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
- ③ 중국에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소주제**
- ④ 중국에서는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 **필요시 발체독**
- ⑤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C → E**

29. 뒷글에 나타난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필.발**
- ②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었다. **필.발**
-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주제: 경험주의 VS 형이상학**
- ④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퇴보(숨겨진 주제)**
- 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었다.

중국 우주론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수용한 학자들은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하였다. **1단락 소주제**
- ②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를 집대성한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 **필.발**

- ③ 방이지는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필.발**
- ④ **매원**은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과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였다. **필.발**
- ⑤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 **주제 (숨겨진 주제 비판)**

형이상학: 퇴보

3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이 로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싸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1)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2)(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 ①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 ②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 ③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m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 ⑤ 반지름이 R, 질량이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R+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32. 문맥상 ㉠~㉣와 바꿔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작(振作)할
- ② ㉡:고안(考案)했다
- ③ ㉢:소지(所持)한
- ④ ㉣:설정(設定)했다
- ⑤ ㉤:시사(示唆)되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동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 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曆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헌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불온한 요소로 ㉣였다.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이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7세기 옹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氣)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옹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

*질점: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

*구 대칭: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

27.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 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계획: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를 한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같음 ①
○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다름 ②
○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③
○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④
○ 중국에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⑤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 ② 서양 천문학의 전래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중국에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때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 ④ 중국에서는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
- ⑤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29. 윗글에 나타난 지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 ②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지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었다.
-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 ④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 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었다.

수능 국어의 창조적 파괴.

이제 우리는 기존의 낡은 언어영역 접근법 재건축 시작합니다.

접근법 = 공식.

공식 = 암기. 적용!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수능 독서의 공식>

독서 지문,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1. 주제 : 첫단락 + 두 번째 단락 첫부분
(특히 첫끝 + 두첫) + 흐름 잡기
2. 구조 : 문장 = S O C Ad V, 반복 강조
3. 구조 : 문단.글 = 글의 구성원리, 글의 전개방식
+ 표지집중, 구조 잡기 => 내용 자동 처리
4. 출제 양상 : 원리, 정보군집, 제재별 특성 활용

정보처리가 안 되면

1. 주제
2. 구조
3. 출제양상 + 하향식 집중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서양 우주론과 동양우주론 C 경험주의 E 형이상학 변혁	정보량 폭발 1. 기출 연계 흐름 2. 주제. 구조 잡기 3. 적절한 하향식 4. 출제 양상 활용 하지만 이 지문의 핵심은 인류의 사상사 흐름잡고 서양 사상사 VS 동양 사상사 비교에서 오는 평가원 기출의 흐름을 잡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싸움
2 정보구조 하향식 주제집중 코페 => 형이상학 문제 아리. 프롤 : 천동설 VS 코페 : 지동설 P.E : 지동설 수용 안 됨 C : 기존 가치관 변혁	
3 E 브라 : 코페 + 아리 C 형이상학 유지 케플 C 경험주의 E 형이상학 변혁	
4 단독문항. 원리 세팅 만유인력 = 질량곱/거리제곱 Σ잡게나눈 부피요소 = 전체 태양의 만유인력 = 지구	
5 C 16C중국에 유입된 서양과학 E 국가역법 P 불온한 요소 C 기존 가치관	
6 17C 용. 방. 중국 고대 문헌 부정 성리학 기반 실증적 서양 과학 재해석 독창	
7 17C후 왕. 매. C 경험주의 E 하지만... 중화사상 서양의 발전된 과학 모두 중국에서 왔다	
8 중화사상 = 중국 공식입장	

절대 독립적으로 봐서는, 시간 안에 완벽히 풀 수 없는, 평가원의 의도가 다분한 지문입니다.

특히, 상호텍스트적 독서나,
상향식 + 하향식 = 상호작용식 독서모형에 따라,
배경지식을 어느정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8이전 이후 기출부터
정리 먼저하겠습니다.

제 해석이 일부 있어 딱,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학 가서서, 철학 개론을 다시 공부하시는게 좋지만,
수능에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원의 설계를 간략히 잡습니다.

평가원의 설계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에게 요구되는 능력

철학 : 인류 사상사 전체 흐름
철학을 다루는 이유는?
철학에서 현상이 발현되기 때문.

또한 철학의 한 영역 논리학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는 물론
특히 법학지문에 연결 흐름

또한, 이 시대 경제.
경제 : 자본주의, 정확히는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전체 흐름 중 현 시점 가장 중요한 상식을 다룸.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을 다룸.

다시, 앞으로 다룰 지문 내용을 끌어와 설명합니다.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은 상당히 큰 흐름에서 비슷합니다.

인류의 사상사 발전 흐름

신학 ⇨ 철학 ⇨ 자연과학

인류는 처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비가 내리는지, 왜 눈은 내리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절대자 '신'이라는 답을 갖게 되니
설명이 됩니다.

신의 학문. 신학이 시작됩니다.
신의 학문. 신학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신 중심의 삶에서, 역시 의문입니다.
인간 자체에 대한 질문.

인간에 대한 학문. 철학이 시작됩니다.
인간에 대한 학문, 철학이 시작됩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
뇌피셜로 시작했던
신학과 철학의 한계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수 많은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자연과학의 시대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당연히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이 없으니,
총계 말하면

관념론

나쁘게 말해 뇌피셜로 학문을 했습니다.

근대가 되어

기술이 발달하니

실험, 경험적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드디어 과학적 방법으로 학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뇌피셜이 아닌,

‘학문’

경험적 사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잘 겪은 서양은 떠상.

이 과정을 성리학 때문에 충분히 겪지 못한 동양은 떠락.

중화사상

그리고 그것을 따르던 조선의 소중화 사상.

청과 조선은 멸망

반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떠상.



미국인에게 삼성이 어느 나라 건지 몰았습니다 (외국인 인터뷰)
지구노트_Earthnut · 조회수 90만회 · 8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나라 기업이지만, 실제로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
니다. 삼성/LG/현대/기아를 어 ...
4K

그래서, 전 세계에 여전히 일본의 위상은 높습니다.

한국 브랜드라는 인식 보다

오히려

일본 브랜드라는 인식이

초반에는 유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특히 삼성은 오히려 삼성 로
고를 지우고 pavv, 현대기아차는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를 쓰다
가, 이제는 삼성 브랜드 자체가 갖는 강력함이 생겨, 글로벌.

삼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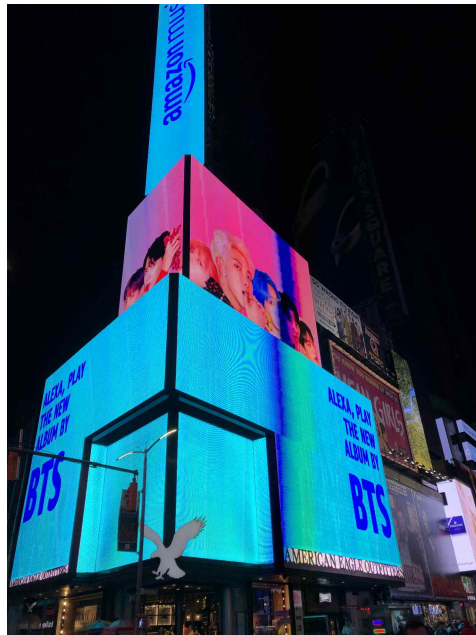
한국 : 못살던 동양의 반도. 한국 전쟁

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삼성같은 글로벌 기업은 아마도 일본?
이 되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는 일본 1인당 GDP를 넘어섰다는
통계도 나오는데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BTS, 블랙핑크, 삼성, 엘지, 현대, 기아 라인 같은 글로벌 기
업의 약진으로 가끔 국뽕맛을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장 큰 전광판 + 가
장 많은 전광판이 전부 B.T.S... 날 가져요 영영)



썩든.

다시 본문 흐름으로 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신학	vs	철학	vs	자연과학
관념론					
경험론					

공통점	동양 사상	vs	서양 사상
원리	이 (종교, 성리학)		형이상학 (종교)
현상	기 (실학)		자연과학
	이기론		
차이점	이기 더불어 존재		원리-현상 분리

문제는,

인류의 사상사 발전 흐름

신학 ⇨ 철학 ⇨ 자연과학

이 과정에 당연히 문제도 존재합니다.

뇌피셜, 즉 관념론으로 신학과 철학을 하던 당시

대표적으로 지구는 우주 중심이라는 사상.

그래야 신의 아들인 인간.

그 인간이 사는 지구가 중심.

그러니, 신의 권위가 있고,

그 신의 권위에 의해 통치 질서가 만들어진 중세 서구는,

신 = 성직자 = 왕 = 귀족 vs 백성

이라는 구도로 통치질서를 이어가게 되는데

자연과학이 발달하며,

경험적 방법으로 그들의 통치 질서의 근간인

'성경'을 비롯한 내용이 틀렸다(다르다가 아니라)는 사실이 퍼집니다.

당연히, 부패한 종교에 대한 종교 개혁,

수 많은 폐단에 대한 개혁 요구로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 발악을 하며,

갈릴레이 갈릴레오와 같은 과학자에 대한 종교재판등을 진행합니다.

물론, 몸을 사리는 과학자들도 있어서 잠시 퇴보도 있지만,

결국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경험론이 형이상학을 뚜까 패면서 사회가 발전/진보합니다.

반면,

동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성리학 자체가 굳건 했고

성리학 = 도 = 성인 군자 = 왕 = 양반 vs 백성

이 구도를 깨야하는데,

기득권이 워낙 강했으며,

또한 기득권이 뿌리째 흔들릴만한, 혹은 기득권이 스스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서구 문물이 전파되지도 않았습니다.

최초의 서구 근대 문물 전파의 역할을 한 것으로

천주실의가 있는데.

애초에 서구 세력의 전파 과정 자체가 아래와 같은 폭력적 과정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2019학년도 6평 지문처럼, 본질적 내용이 오기 보다는, 포교를 위한 목적의 내용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해로 문명의 확인 ⇨ 필요에 따라 천주교 포교
⇨ 좋은 문물도 있지만, 당연히 기득권 충돌 사상
⇨ 종교박해 + 선교사 피해 ⇨ 서구 세력의 전쟁
명분 ⇨ 정복/식민화

결과적으로

문화적, 정신적으로 탄탄했던 기반을 갖던

청나라, 중화사상

조선, 소중화사상

을 깨뜨릴 수는 없었고,

결국 쇄국정책.

반면, 일본은 개혁, 개화, 동시에 근대화 성공.

결국 1910년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 1931년 간도 땅에 만주국.

정말 참기 힘든 그 역사.

그 이유는, 과학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기득권의 얽은 술수 때문이지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래야 앞으로 반복될 일에 대비를 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며,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룸에 있어 평가원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평가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루어왔는데.

성vs속 지문 기억나나요?

사실 위의 지문은 종교/신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sacred)과 속(prof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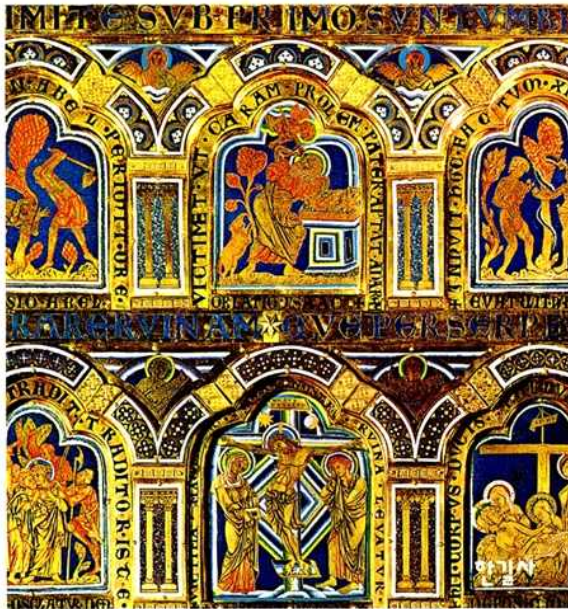
‘그 분’이 좋아하는 ‘그 性’ 아니구요...

Mircea Eliade
Das Heilige
und das Profane



성(聖)과 속(俗)

M. 엘리아데 • 이은봉 옮김



정말...

수능 기출을 분석하면 할수록 평가원 respect!

anyway.

다시 정리합니다.

인류 사상사의 발전 흐름

	신학	vs	철학	vs	자연과학
관념론					
경험론					

동서양 사상사 비교 대조

공통점	동양 사상	vs	서양 사상
원리	이 (종교, 성리학)		형이상학 (종교)
현상	기 (실학)		자연과학
	이기론		
차이점	이기 더불어 존재		원리-현상 분리
전개	란란한 성리학 정신문명 깨뜨릴 만한 사건 사고 없음 결국, 중화사상 소중화사상 쇄국정책 청과 조선 사이 좋게 멸망		십자군 전쟁으로 과학기술 발달 결국 경험론 결국 경험론 기반 과학적 방법으로 형이상학 뇌피셜 극복 맥상 전세계 정복 지금도 정복

물론,

과학기술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전히 형이상학, 종교에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정신문명이 발달한 동양 사상 역시 가치는 존재합니다만,

이 지문은 이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그럼 이 흐름을 바탕으로 지문을 봅니다.

지동설과 천동설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재고되었다.

구조에 집중하니 평가원의 설계가 보입니다.

1

서양 우주론과 동양우주론
C 경험주의
E 형이상학 변혁

서양 우주론과

그 영향을 받은 동양우주론이 글의 큰 2가지 주제 흐름이고

그 사상/철학은

경험주의에 의해 형이상학이 뒤바뀐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동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P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둘러싸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⑥만들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정보를 다 처리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1. 완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과생들에게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천체'입니다. (올해는 빠져서 또 풀이 되었지만.)

문제는 그 '천체'에 대해

- 1. 코페르니쿠스
2. 아리스토텔레스
3. 프톨레마이오스

의 각각의 우주론을 다루는데

그조차도 정보가 불충분합니다.

정보불충분

=> 처리 가능한 정보 집중

=> 주제 + 구조 집중

하지만 지문 구조,

그리고 주제를 보시면 역시나 확인되는 부분은

1

C 경험주의 E 형이상학 변혁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형이상학적 문제가 있고,

4째줄부터 나오는 내용은 역시나 천동설과 지동설입니다.

어느정도의 배경지식으로 당연히 처리할 것을 기대한 평가원의 설계입니다.

천동설 지동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로, 오컴의 면도날의 법칙 : 단순한 것이 옳다 라는 내용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뒷부분 내용은

신의 형상

이라는 것 + 하향식 + 기출 연계 흐름 바탕으로 보니.

신학-형이상학에 대한 자연과학의 도전을 용납하지 못했군

정도로 정보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정보구조 하향식 주제집중
 코페 ⇨ 형이상학 문제
 아리. 프롤 : 천동설
 vs
 코페 : 지동설
 P.E : 지동설 수용 안 됨
 C : 기존 가치관 변혁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 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역시 정보 완결성 없습니다.

1. 브라헤의 우주론
2. 케플러의 우주론
3. 신플라톤주의
4. 우주의 수직질서 신봉
5.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의 정보가 도대체 무엇인지 충분한 정보 설명이 없으니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이해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처리 불가.

하지만 평가원의 설계를 생각하면,

3
 E 브라 : 코페 + 아리 : 퇴보
 C 형이상학 유지
 케플
 C 경험주의
 E 형이상학 변혁

브라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 코페르니쿠스의 경험론으로 이상한 뇌피셜 우주론을 만듭니다.

즉, 오히려 퇴보했죠.

물론 그럴 수 있는 것이, 성정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했다가는 기득권에 의해 종교재판 받고 사망합니다.

당연히 타협할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결국 과학 기술의 경험적 방법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과학적 방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결국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1.2.3단락은 서양 우주론 발전 과정을 다룹니다.

1
 서양 우주론과 동양우주론
 C 경험주의
 E 형이상학 변혁

2 정보구조 하향식 주제집중
 코페 ⇨ 형이상학 문제
 아리. 프롤 : 천동설
 vs
 코페 : 지동설
 C : 기존 가치관 변혁
 P.E : 기득권에게는 지동설 수용 안 됨

3
 E 브라 : 코페 + 아리
 C 형이상학 유지
 케플
 C 경험주의
 E 형이상학 변혁

C 경험주의 ⇨ E 형이상학 변혁 : 서양 우주론의 발전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설명을 드렸지만,

주제+구조에 집중하면 위와 같은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4단락은, 독립 정보군집, 단독 문항으로 설계를 보는 것이 평가원 의도이니. 일단 넘깁니다. (실전에서는 당연히 읽고 처리합니다.)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曆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헌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불온한 요소로 여겼다.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이런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A]정보군집에 이어

글의 2번째 주제. 동양에서 우주론 변화입니다.
 사실 우주론은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있었으니,
 특정짓자면, 근대 우주론이고,
 사실 그 배경은 근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험론, 과학적 방법이 학문의 방법으로 들어오며 생긴 변화입니다.

그래서 글 초반부 역시

경험주의 ⇨ 형이상학 변혁이 된 것입니다.

다시 1단락.

동양에서도 서양의 발전된 과학기술 덕을 보았겠죠.
 당연히 좋은 점들은 정부가 나서서 받아들였겠지만...
 문제는 통치질서에 위배되거나 위험한 지식들도 들어옵니다.
 결국, '과학기술'까지도 '불온'해질 수 있었습니다.

과학에 불온한 것이 어디있나요.

당연히 동양의 한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17세기 옹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Q문을 제기하고 기(氣)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성리학이

그 이전의 무력통치를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고,
 인성, 인격, 도리, 도덕 등의 형성에는 큰 도움을 주었지만
 한편으로 그 극명한 한계는,
 바로 '근대적 질서'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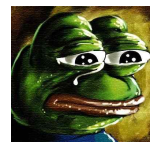
성리학은 다음과 같은 사상체계를 갖습니다.

이	이상	이치	율리	왕	양반	남	성리학
기	현실	현상	대상	신하	상놈	녀	나머지

그러니,
 연장자에 의한 연소자 통제
 남자에 의한 여자 통제
 왕에 집중된 권력
 양반에 집중된 권력 등
 모든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근간으로 쓰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리학이 인싸
 나머지는 아싸
 당연히,
 중국 고대 문헌 = 아싸 : 부정적
 성리학 + 좋아 보이는 서양 사상 = 인싸 : 긍정적
 문제는,
 왜곡이 일어나죠.
 결국?
 자의적 우주론.
 즉, 氣에 대한 주장을 펼칩니다.



만화영화에나 나오는...
 에.네.르.기. 파~~~~~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옹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경험론을 드디어 제대로 쓰나? 싶었는데...

역시 또, 중화사상으로 흘러버립니다.

어떻게 증자의 말이, 지구가 둥글다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중화사상+뇌피셜 = 끔찍한 혼종

공식 입장이 됩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적당한 타협.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 자연 법칙에는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찾기가 힘들다고 적당한 답을 타협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6)



17)

16) <https://m.fnnews.com/news/201110291924430761>

17) <https://www.youtube.com/watch?v=uqHcYv-Pwce>

다시 정리합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p>1 서양 우주론과 동양우주론 C 경험주의 E 형이상학 변혁</p>	<p>정보량 폭발 ① 기술 연계 흐름 ② 주제, 구조 잡기 ③ 적절한 하향식 ④ 출제 양상 활용 하지만</p> <p>이 지문의 핵심은 인류의 사상사 흐름잡고</p> <p>서양 사상사 vs 동양 사상사 비교에서 오는 평가원 기출의 흐름을 잡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싸움</p>
<p>2 정보구조 하향식 주제집중 코페 ⇨ 형이상학 문제 아리, 프롤 : 천동설 vs 코페 : 지동설 P.E : 지동설 수용 안 됨 C : 기존 가치관 변혁</p>	
<p>3 E 브라 : 코페 + 아리 C 형이상학 유지 케플 C 경험주의 E 형이상학 변혁</p>	
<p>4 단독문항, 워리 세팅 만유인력 = 질량곱/거리제곱 Σ잡게나눈 부피요소 = 전체 태양의 만유인력 = 지구</p>	
<p>5 C 16C중국에 유입된 서양과학 E 국가역법 P 불온한 요소 C 기존 가치관</p>	
<p>6 17C 옹. 방. E 중국 고대 문헌 부정 C 성리학 기반 실증적 서양 과학 재해석 독창</p>	
<p>7 17C후 왕. 매. C 경험주의 E 하지만... 중화사상 서양의 발전된 과학 모두 중국에서 왔다</p>	
<p>8 중화사상 = 중국 공식입장</p>	

비교	서양우주론	동양우주론	
공통점	C경험주의 ⇨ E형이상학 변혁 기존 통치질서 위협		
차이점 (숨겨진 주제)	결국 과학 승리 떡상	결국 과학 패배 떡락. 멸망	

27. 다음은 읽 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읽 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계획: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를 한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같음..... ①
○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다름..... ②
○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③
○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④
○ 중국에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⑤

항상 첫 문항은

주제 + 전개방식 묻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 ① 소주제 맞췄. 서양 우주론 = 천동설 -> 지동설
 - ② 글 전체 주제 맞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다?
- 정답!

내용 일치 좀 그만 하세요.

초등학생도 시간 있으면 다 합니다.

28. 읽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주제 맞습니다

1~8 전체
C 경험주의
E 형이상학 변혁

- ② 서양 천문학의 전래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뒷 부분 주제 맞습니다.

- ③ 중국에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뒷 부분 주제 맞습니다. 중국 국가 승인이 뒷 부분 첫/끝단락 모두.

- ④ 중국에서는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

18세기에 그 일 있는지 지문 한 분 고작 길어야 5분 남짓 보고 기억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발췌독입니다. 스킵 후 필요시 발췌독.

- ⑤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잉? 둘 다 경험론 바탕 우주론 하려했는데

서양 성공 떡상

동양 실패 떡락인데

아 정답!

주제 집중. 바로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문제들도 주제봐야합니다.

이제 서양의 우주론

1
C 경험주의 ⇨ E 형이상학 변혁

2
코페 (경험주의) ⇨ 형이상학 문제
아리.프를 : 천동설(형이상학) vs 코페 : 지동설(경험론)
C : (경험론이) 기존 가치관 변혁
P.E : 지동설(경험론) 수용 안 될 기존 가치관 유지

3
C 형이상학 ⇨ 일시 퇴보 ⇨ E 브라 : 코페 + 아리
하지만 결국 발전
케플러 C 경험주의 ⇨ E 형이상학 변혁

정리하면!
경험론 ⇨ 과학기술 발달 ⇨ 형이상학 비롯 기존 통치질서와 충돌 ⇨ 일시적 탄압 ⇨ 일시 퇴보 ⇨ 하지만 결국 발전

29. 밑줄에 나타난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내용 일치 발췌독으로 가면 끝이 없습니다.

이유는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며,

판단하고 처리할 단어 역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 항성 천구 고정 OR NOT
2.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론 인지 OR NOT
3. 그것이 천상계와 지상계의 대립인지 OR NOT
4. 그것이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것인지 OR NOT

즉, 최소 4가지 덩어리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 한 번의 발췌독이 아니라, 수차례 생기고,

혹시나 답이 안 나오면 다시 1번 선지부터 확인하는 시간지연, 멘탈 터트림 현상이 반복됩니다.

일단, 세부 내용 보다는 큰 주제를 봅니다.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 주제는 경험론이 형이상학 박살내는 과정이니까.

필요시 발췌독. 스킵

- ②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었다.

역시 필요시 발췌독. 스킵

이유는?

1. 많은 수의 원을 썼는지 OR NOT
2.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했는지 OR NOT
3. 그것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인지 OR NOT
4.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고 했는지 OR NOT
5. 그것이 단순성인지 OR NOT

언제 다 판단하나요?

이 지문 한 80분 풀면 가능.

-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바로 아니쥬?

코피 VS 아리

인데 어떻게 양립?

이런건 주제로 바로 쳐낼 수 있음

- ④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역시... 넘어가려고 했더니?

정답!

정리하면!
 경험론 ⇨ 과학기술 발달 ⇨ 형이상학 비롯 기존 통치질서와 충돌 ⇨ 일시적 탄압 ⇨ 일시 퇴보 ⇨ 하지만 결국 발전

즉,

과학기술이 경험론에 의해 발전하며, 인류를 발전시키는데

기존 통치질서인 형이상학(비롯 종교경전등)이 휘방놓는 거죠

그 숨겨진 주제 집중하면?

4번.

바로 발췌독. 확인. 정답 됩니다.

- 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었다.

도대체 뭘 소린지 알수가 없는데

어쨌든 핵심은

경험론 VS 형이상학 => 잠시 퇴보 후 결국 경험론 띄상

이게 주제. 당연히 4번. 다시 글 전체 주제 흐름 봅니다.

비교	서양우주론	동양우주론	
공통점	C경험주의 ⇨ E형이상학 변혁 기존 통치질서 위협		
차이점 (숨겨진 주제)	결국 과학 승리 떡상	결국 과학 패배 떡락. 멸망	

이래야 30번도 이어집니다.

즉

29번 서양 우주론 변천

30번 동양 우주론 변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교	서양우주론	동양우주론	
공통점	C경험주의 ⇨ E형이상학 변혁 기존 통치질서(성리학, 종교) 위협		
차이점 (숨겨진 주제)	결국 과학 승리 떡상	결국 과학 패배 떡락, 멸망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수용한 학자들은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하였다.

글 전체 주제, 맞습니다.

- ②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를 집대성한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

사고전서 내용.

기억 날 리가 없습니다. 필요시 발췌독.

하지만, 대강 마지막 단락에 총정리 했다는 내용은 대강 있었던 듯?

- ③ 방이지는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방이지 주장

역시 기억 날 리가 없습니다. 필요시 발췌독.

하지만, 대강 동양 우주론 전반에 대한 맞는 이야기겠죠?

- ④ 매문정은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과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였다.

매문정 주장

역시 기억 날 리가 없습니다. 필요시 발췌독.

하지만, 대강 동양 우주론에 대해 언급만 이야기 맞죠?

- ⑤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

이	이상	이치	원리	왕	양반	남	성리학
기	현실	현상	대상	신하	상놈	너	나머지

성리학 기반이니,

나머지 이론을 무시해야하는데?

중국 고대 문헌 근거로 받아들여?

성리학 기반이 아니라?

아! 틀렸군. 발췌독! 이게 정답!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항상

**지.문.을
있.는.그.대.로
보.니.까.요**

유교 경전, 진리, 성경은 그렇게 보는게 맞대니까요.

20년전만해도 그게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발.요

**BIG DATA
하지만
완결성 떨어지는 정보를
유의미하게 처리**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보처리 능력
국어 능력입니다.**

앞으로의 학습법

1. 기출 흐름 바탕
2. 평가원의 설계 파악
3. 지문의 구조
4. 주제 + 구조 파악

이 과정에서 보이는
평가원의 문항설계. 정답.

정리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동양 사상

2018학년도 수능 서양 사상

당연히 문제들에는 두 사상의 비교가 있으며

신학 vs 철학 vs 자연과학

관념론

경험론

동서양 사상사 비교 대조

공통점	동양 사상	vs	서양 사상
원리	이 (종교 성리학)		형이상학 (종교)
현상	기 (실학)		자연과학
	이기론		
차이점	이기 더불어 존재		원리-현상 분리
전개	란란한 성리학 정신문명 깨뜨릴 만한 사건 사고 없음 결국, 중화사상 소중화사상 쇄국정책 청과 조선 사이 좋게 멸망		십자군 전쟁으로 과학기술 발달 결국 경험론 결국 경험론 기반 과학적 방법으로 형이상학 뇌피셜 극복 떡상 전세계 정복 자금도 정복

위와 같은 흐름을 잡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서양 의학의 동양 전파와 그 결과

지문을 통해

서양 근대 사상이 동양 근대 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어

동양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과

동양 서양 사상에 대한 비교를 지속합니다.

결국

2019학년도 수능 우주론

이라는 역대급 지문이 나오는데

비교	서양우주론(사상)	동양우주론(사상)	
공통점	C 경험주의 ⇨ E 형이상학 변혁 기존 통치질서 위협		
차이점 (숨겨진 주제)	결국 과학 승리 떡상	결국 과학 패배 떡락. 멸망	

이런 흐름을 놓칠 수 밖에 없는 것이

내용 하나 하나 집중합니다. 우리는.

아니.

어차피 틀린.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브라헤 사상이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해서 다 기억하고 이해하나요?

응명우

방이지

왕석천

매문정...

대단히 중요해요?

평가원의 설계를 바탕으로 보면

위와 같이 정리한 내용이 중요하고 잡힙니다.

결국?

27. 다음은 읽 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읽 글을 참고 할 때, '점점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 내용 : 서양의 우주론과 동양의 우주론

잡으면 2번 바로 보이고

28. 읽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 구조 + 내용

서양의 우주론과 동양의 우주론 모두

C 경험론 ⇨ E 형이상학 변혁

잡으면 5번 바로 보이고

- ⑤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 되었다.

29. 읽 글에 나타난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는,

결국 그래서? 평가원의 설계는?

숨겨진 주제 : 서양 사상사 => 과학 경험 vs 형이상학 => 잠시

퇴보/어려움 겪으나 => 결국 경험/과학으로 떠상

- ④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양 사상사 과학 경험 vs 성리학 => 결국 중화사상/성리학에

업대어 쇄국정책=>떡락

- ⑤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

선지에 좀 더 집중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일치로 풀 수 있는데...

그러다 한 60분 흐를걸요?

여러분.

수학 30번 문제를 100%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80분이 걸린다면, 그 방법 써야하나요

아니면 버리고 96점 맞는 전략 써야하나요?

즉, 시간안에 풀 수 없는 방법은

탁상공론

입수능

입스타

입롤

입축구

그냥 입으로만 하는겁니다.

이제

[a]단락 바탕 31번 독립정보군집 단독문항 풀이 이어갑니다.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B형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8~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이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 각운동량은 질량이 m 인 작은 알갱이가 회전축으로부터 r 만큼 떨어져 속도 v 로 운동하고 있을 때 mvr 로 표현된다.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에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 변화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까?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운동량에 해당한다.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운동량은 (각속도)×(회전 관성)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이,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즉,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훌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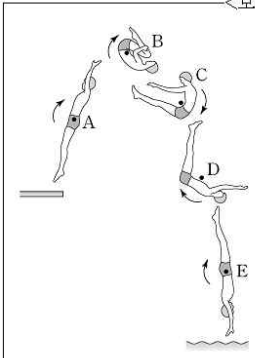
각운동량 보존의 원리는 스포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겨 선수에게 공중 회전수는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겨 선수가 공중에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겨 선수의 회전 관성은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다. 따라서 팔을 몸에 붙이면 팔을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져서 팔을 뻗을 때보다 몸 전체의 회전 관성이 줄어들게 된다. 점프 이후에 공중에서 각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팔을 붙였을 때가 뻗을 때보다 각속도가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착지 직전에는 각속도를 줄여 착지 실수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양팔을 한껏 펼쳐 회전 관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28.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쉽다.
- ②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
- ③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 팽이의 각운동량을 줄여들게 한다.
- ④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속이 빈 쇠공과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이 자전할 때 회전 관성은 쇠공이 더 크다.
- ⑤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의 두 점 중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각속도가 작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다이빙 선수가 발판에서 점프하여 공중회전하며 A~E 단계를 거쳐 1.5바퀴 회전하여 입수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은 점은 회전 운동의 회전축을 나타내며 회전 운동은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단,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동안은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 ①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운동량이 더 크겠군.
- ②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작겠군.
- ③ A~E의 다섯 단계 중 B 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작은 각속도를 갖겠군.
- ④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다이빙 선수의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서 회전 관성이 작아지겠군.
- ⑤ B 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한다면 다이빙 선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B형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8~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식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이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 각운동량은 질량이 m 인 작은 알갱이가 회전축으로부터 r 만큼 떨어져 속도 v 로 운동하고 있을 때 mvr 로 표현된다.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에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 변화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까?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운동량에 해당한다.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운동량은 (각속도) × (회전 관성)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이,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즉,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훌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 크다.

각운동량 보존의 원리는 스포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겨 선수에게 공중 회전수는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겨 선수가 공중에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겨 선수의 회전 관성은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다. 따라서 팔을 몸에 붙이면 팔을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져서 팔을 뻗을 때보다 몸 전체의 회전 관성이 줄어들게 된다. 점프 이후에 공중에서 각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팔을 붙였을 때가 뻗을 때보다 각속도가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착지 직전에는 각속도를 줄여 착지 실수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양팔을 한껏 펼쳐 회전 관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28.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가 쉽다. ~~X~~
- ②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 ~~X~~
- ①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 팽이의 각운동량을 줄여들게 한다. 확인 불가
- ③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속이 빈 쇠공과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이 자전할 때 회전 관성은 쇠공이 더 크다. ~~X~~
- ④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의 두 점 중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각속도가 작다. ~~X~~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다이빙 선수가 발판에서 점프하여 공중회전하며 A~E 단계를 거쳐 1.5바퀴 회전하여 입수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은 점은 회전 운동의 회전축을 나타내며 회전 운동은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단,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동안은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 ①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운동량이 더 크겠군. ~~X~~ 보존 ~~X~~
- ②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작겠군. ~~X~~ 그대로 ~~X~~
- ③ A~E의 다섯 단계 중 B 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X~~ 빠른 ~~X~~ 각속도를 갖겠군. $m \uparrow v \uparrow r \downarrow$
- ④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다이빙 선수의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서 회전 관성이 작아지겠군. ~~X~~ $m \downarrow v \uparrow r \downarrow$
- ⑤ B 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한다면 다이빙 선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 ~~X~~

$m \downarrow v \uparrow r \downarrow$

10문제 선지내용 휘둘림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매뉴얼

T+I.A

(Topic+Information Architecture)

각운동량 + 보존법칙 각운동량=질량*속도*거리=mv 원리 : C → E C 힘 → E 운동상태 변화	1단락 각운동량 = m r v 2단락 추론 각운동량=mr(회전관성)v(각속도)
각운동량=(각속도)*(회전관성) - 각속도 정의 - 회전관성 성질 : 관성=질량*회전관성	
거리↑ ⇒ 회전관성↑	
1~3단락 원리 바탕 예시 적용	

지문을 정리하면?
 결국 각운동량에 대한 원리설명(1~3단락) + 예시 적용(4단락)
 입니다.
 문제는?
 1단락의 회전관성과
 2~3단락의 회전관성의 설명이 다르고, 있는 정보로만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배경지식을 활용하면
 아마 1단락에서 말한 속도가 2단락의 각속도
 1단락에서 질량과 거리가
 2~3단락에서 질량, 거리, 회전관성에 관련있으니

 질량 * 거리 = 회전관성
 속도 = 각속도
 이렇게 판단을 해야합니다.

1단락
 각운동량 = m r v
 2단락 추론
 각운동량=mr(회전관성)v(각속도)

 각운동량은 보존되므로

 각운동량(일정)=m(일정) r↑(회전관성↑) v(각속도↓)

즉, 회전하는 물체가 살이 찌거나 빠질 수는 없으니 질량 일정
 외부 돌림힘 없으니 각운동량 일정
 결국 거리 r이 ↑하면 회전관성 ↑ 그런데 전체 값이 커질 수는
 없으니
 그만큼 v각속도가 ↓ 감소해야겠습니다.

이를 4단락과 관련지어 설명하면
 김연아 선수가 점프 뛰어서 회전수 높이고 싶으면
 각속도가 빨라야 하니
 거리 r을 줄이면 됩니다. (팔을 몸에 최대한 붙입니다)

반면,
 착지할 때 안정성을 위해서는
 거리 r을 늘려서 팔을 최대한 펼쳐, 회전관성 높이고,
 각속도는 낮춥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답. 끝

28. 뒷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쉽다.

관성 : 움직이기 어려운 정도. 따라서 어렵겠죠?

- ②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

1단락 핵심원리

C : 돌림힘 → E : 회전운동.

돌림힘 없는데 회전이 변하지 않습니다.

③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 팽이의 각운동량을 줄어들게 한다.

정보 불충분. 판단 불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선지라 아래에 별도 설명 갑니다.

④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속이 빈 쇠공과 속이 꽉 찬 플라스틱 공이 자전할 때 회전 관성은 쇠공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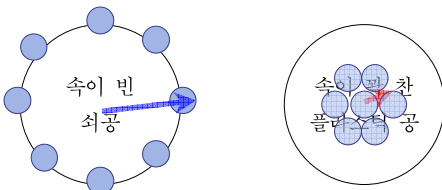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⑤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의 두 점 중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각속도가 작다.

각속도 정의 : 단위 시간당 회전 각. 각도는 같습니다.

4번선지 그림보세요. 속이 비어있으니 **이** 질량요소가 아래의 그림처럼 표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인 거리는? **이**만큼



반면 속이 꽉 찬 플라스틱 공의 질량요소들의 평균적인 거리는?

이만큼

	속이 빈 쇠공	속이 꽉 찬 플라스틱 공
질량 동일	m	m
거리 다름	↑	↓
회전 관성 (질량*거리)	↑	↓

그러면 이제 바로 답. 끝

③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 팽이의 각운동량을 줄어들게 한다.

이 선지는

C 마찰 → E 회전관성 작게

라고 했는데

마찰과 회전관성의 관계가 글에 있나요?

없기 때문에. 정보 불충분. 판단 불가.

물론 배경지식으로 미루어보면

마찰력 = 운동 저항

따라서 움직이기 힘들고

마찰 \uparrow = 회전관성 \upa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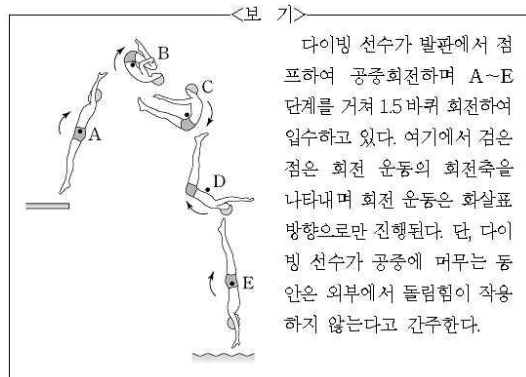
이지만.

여러분 확신 있어요?

자꾸 이상하게 지문 근거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추론해서...

이제 그만!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글의 가장 중요한 주제. 공식. 원리
 $\text{각운동량(일정)} = m(\text{일정}) r \uparrow (\text{회전관성} \uparrow) v (\text{각속도} \downarrow)$

①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운동량이 더 크겠군.

각운동량 보존됩니다. (주제)

②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작겠군.

다이빙 하면서 살이 찌고 빠질 수 없다구용. 질량은 그대로.

③ A~E의 다섯 단계 중 B 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작은 각속도를 갖겠군.

가장 빠른 각속도. 답	B단계	다른 단계
질량 동일	m	m
거리 다름	몸 접어서 거리 ↓	몸 펴서 거리 ↑
회전 관성(질량*거리)	↓	↑
각속도(운동량 보존)	↑	↓
관성 반대로 커져야징		

그러면 이제 바로 답. 끝

- ④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다이빙 선수의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서 회전 관성이 작아지겠군.

회전 관성 커짐	C단계	E단계
질량 동일	m	m
거리 다름 (팔다리 펼침)	몸 접어서 거리 ↓	몸 펴서 거리 ↑
회전 관성(질량*거리)	↓	↑
각속도(운동량 보존)	↑	↓
관성 반대로 커져야징		

- ⑤ B 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한 다면 다이빙 선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

각속도 커짐	B단계 유지	C-E단계
질량 동일	m	m
거리 다름 (팔다리 펼침)	몸 접어서 거리 ↓	몸 펴서 거리 ↑
회전 관성(질량*거리)	↓	↑
각속도(운동량 보존)	↑	↓
관성 반대로 커져야징		

이 내용에 이어서 2019기출 연계 흐름 봅니다.

아래 단락의 정보는 크게 3개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 ① 만유인력의 정의. 공식 만유인력 = $M*m/r^2$
- ② Σ질계 나눔 = 전체
- ③ 지구가 태양을 = 태양이 지구를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기출 + 지문 흐름이 있어야죠.

즉, 원래 입자들의 질량은 균일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물리적 원리를 쓰는데 정확성이 떨어지니, 균일하다고 가정, 그리고 부분을 모아 전체로 보겠다는 발상입니다.

- 2014 기출 - 2019기출 연계
- 지문 내용

② Σ질계 나눔 = 전체

- 심지어 보기까지 연결되는 흐름.

당연히 이것만 떼서 보면 이해가 쉽지 않으니, 지문을 있는 그대로 접근하는 경우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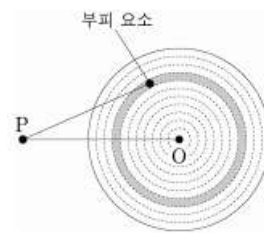
계속이어집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점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싸여 구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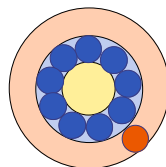
이해가 쉽지 않은 이유는. 그림을 안 봐서.

그림하고 연결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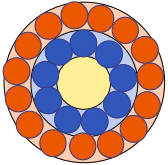
조금 어려우면 다음 그림 보세요.



노란색 동심원, 파란색 동심원, 주황색 동심원 각각에서, 파란색 동심원의 ● 이 질량요소 하나 하나가 하나의 껍질 이룹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점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싸여 구를 이룬다.



이제는 이런 주황색 동심원이 추가로 생기고

양파껍질처럼 겹겹이 싸여 구를 이루겠죠!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면 깔끔!

그 연습이 안 되어 있으니 힘들게 느끼는 겁니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역시도, 초등학교 수준에서 수학 공식이네요.

증명상



초등 수학 개념잡기 - 36 강 겹넓이와 부피 #001

EBS Learning
YouTube - 2013. 4. 23.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begin{aligned} &\text{부피요소} \\ &= \text{밀도} \times \text{부피} = \frac{\text{질량}}{\text{부피}} \times \text{부피} \\ &= \text{질량} \end{aligned}$$

밀도=질량/부피. 알쥬? 즉 부피요소를 질량 하나 하나로 보겠다.

그리고 아래 내용을 뭇말이냐고 하는 유튜브버들 많은데...

똑같은 내용 3번 반복을 해도 못 알아 먹으면

자기가 지금 시대에 서울대 근처도 못 갈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절 대학가기 지금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임시 고인물, 제가 보증합니다.

수능시험장, 수험생처럼 준비해서 10년 넘게 들어가봤고

3번의 교육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아서 머물고 있는데...

항상 빈수레가 요란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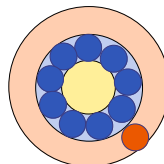
(1)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 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 에서 P 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2)(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 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 에서 P 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신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 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 에서 P 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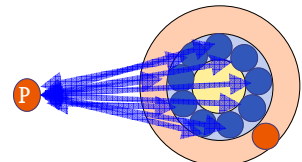
똑같은 말 3번 반복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1)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여기 파란색 동심원 안에 있는 파란색 부피요소(보기는 질량으로 정의)하나 하나 설명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 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즉, 그림의 9개 부피요소(질량)이 외부의 P 질점과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다 더하면? 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 에서 P 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즉, 9개의 ● 이 부피요소를 정중앙의 ●이 질점에 모으겠다.

즉, 일종의 블랙홀처럼, 질량을 집중시킨거예요.

그 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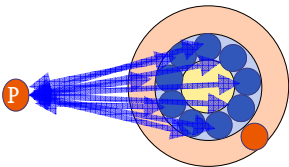
이거로 통 치겠다.

외부질점 P 와 정중앙의 ● 사이의 만유인력 하나로 통치겠다.

당연히 되겠죠!



이니까.



이 그림에서는 9개로 분산되어 있던 만유인력을 가운데 정중앙으로 질량 다 때려 모아서 만유인력 구해도 똑같겠죠!

왜냐?

- ① 만유인력의 정의. 공식 만유인력 = $M \cdot m / r^2$
- ② Σ 질계 나눔 = 전체
- ③ 지구가 태양을 = 태양이 지구를

만유인력의 정의. 공식.

두 질량곱 나누기 거리제곱

물론. 거리를 정중앙으로 해도 제곱을 했으니, 오차는 있겠지만, 그 오차는 약간일거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지문에서는 그냥 '같다'라고 한 대잖아요.

왼쪽 보이듯.

다시 보기 2단락 내용 보면.

(1)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 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 에서 P 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즉, 하나하나 쪼개서 만유인력 구해서 다 더하나

= 그 하나 하나 질량을 가운데로 모아서 만유인력 구하나 같다.

물론, 오차 있겠지만, 무시하는 구나. 추론해야죠? 국어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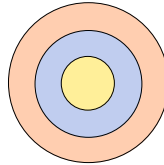
그럼 나머지 단락.

이제 다 같은 소리예요.

(2)(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 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 에서 P 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다시 앞 부분

(2)(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 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즉, 파란색 동심원 = 껍질 하나

주황색 동심원 = 껍질 하나

다시



이렇게 중점 O 에 모아서 그계



이거랑 같다.

마찬가지 ● 주황색 동심원의 부피요소(질량) 15개를

정중앙에 모으겠다는 거예요. ✕ 이거 하나 되겠죠?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매뉴얼

이렇게 통치겠다는 말씀!

(2)(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 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 에서 P 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즉,

하나의 동심원 = 파란색 부피요소들 하나 하나 생각
 = 그걸 다 더해서 정중앙 거리 평균 낸 질점으로 치환
 = 파란색 부피 요소 하나 하나가 p 를 잡아 당기는 만유인력
 = 다 더한 정중앙 질점 하나가 p 를 잡아 당기는 만유인력

마찬가지

또 다른 하나의 동심원 = 주황색 부피요소들 하나 하나 생각
 = 그걸 다 더해서 정중앙 거리 평균 낸 질점으로 치환
 = 주황색 부피 요소 하나 하나가 p 를 잡아 당기는 만유인력
 = 다 더한 정중앙 질점 하나가 p 를 잡아 당기는 만유인력

결국,

모든 동심원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 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 에서 P 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즉, 구의 전체를 중심에 다 모아버리면,

구의 부피요소 하나 하나가 p 를 당기는 만유인력이나
 구 전체 질량이 중심에 모인 것이 p 를 당기는 만유인력이나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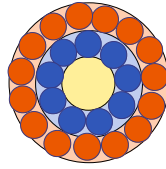
ok!

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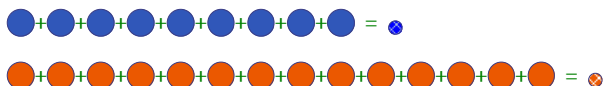
하나 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 하나를 다 더해서 정중앙에 질점으로 모아 생각하자!

결론!



이렇게 하나 하나 나눠서 생각해도 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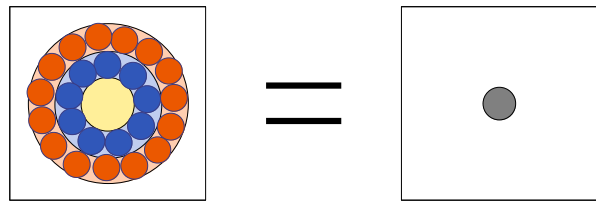
...

해서

다시 그걸 정중앙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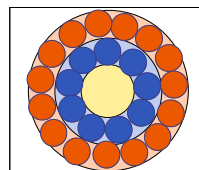
결국 좌측의 모든 질량을 우측 정중앙 하나로 모아 생각

그리고 만유인력을 생각해도 같다!



문제됩니다. 이제

- ①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파란색 9개, 주황색 15개. 당연히 주황색이 더 많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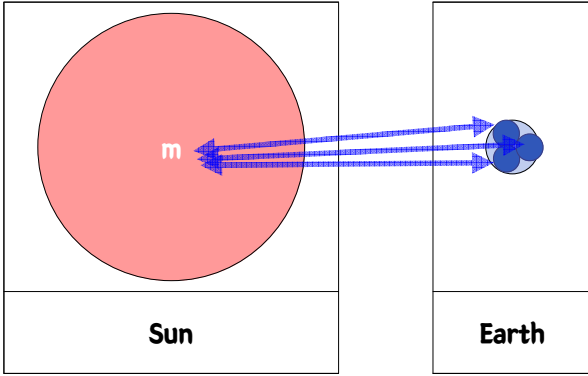
반지름이 크면 부피요소도 더 많이 들어가겠죠!

맞음!

- ②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이것도 그림으로 이해 돕겠습니다. 좌측 태양은 압도적으로 더 크고, 지구는 압도적으로 더 작음 미리 말씀드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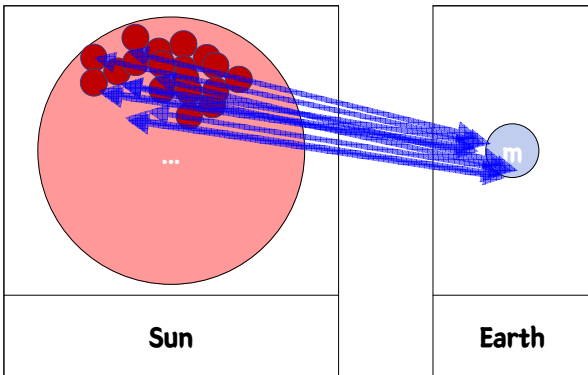
②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 질량요소를 3개만으로 놓고 보면 만유인력은 이렇게 3개 나오겠죠?

계속해서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태양의 질량요소는 지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테니 대강 10000개 정도 있다고 치면 만유인력도 10000개는 나옵니다

즉,

태양 중심 질점 m 이 지구 당기는 만유인력 3개

지구 중심 질점 m 이 태양 당기는 만유인력 10000+개

당연히 서로 다르죠.

(정확히는 지구 1개*33만=태양질량)

틀렸고! 정답이네!

나머지 선지도 봅시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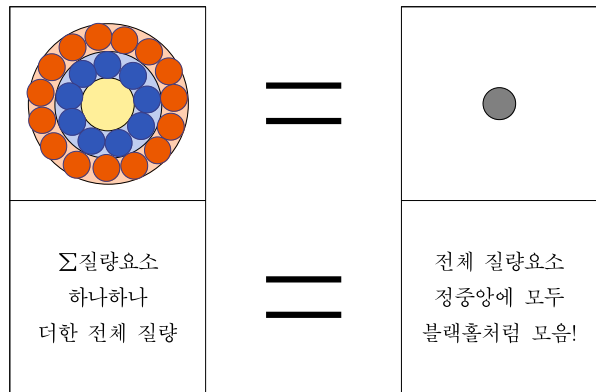
③ 질량이 M 인 지구와 질량이 m 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즉, 이것은 보기 내용인데요.

원래 부피 요소 하나 하나가 질점 하나 하나 잡아 당기는 거 다 더해야하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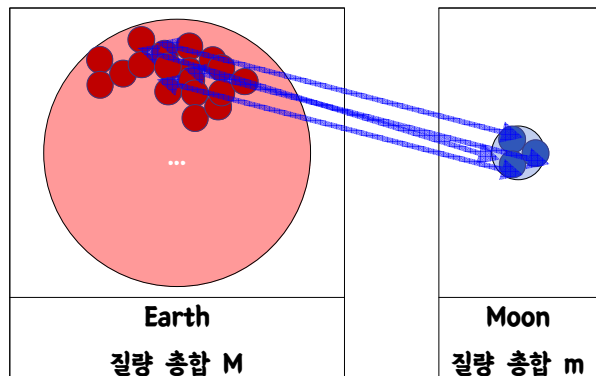


즉, 왼쪽 지구 전체를, 오른쪽 질점 하나로 바꿔 생각도 괜춘

그럼 당연히 왼쪽 기준 만유인력 생각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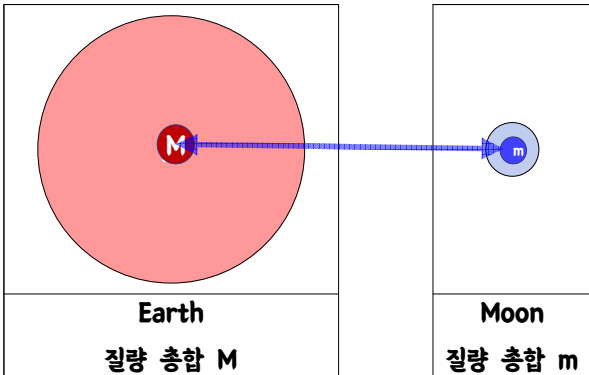
오른쪽 기준 만유인력 생각하나 같다!입니다.

그럼 설명할게요.(그림 하나 그리면 제 수명 하루 단축 π 집중해서 잘 활용바랍니다. 정말 와꾸. 인생. 수명 다 갈아넣고 있어요...)



위와 같이 생각해서 하나 하나 다 구할 수도 있지만,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매뉴얼



이렇게 한 가운데 몰아도 된다! 이 말씀!
보기 내용 근거!

- ① 만유인력의 정의. 공식 만유인력 = $M \cdot m / r^2$
- ② Σ 절개 나눔 = 전체
- ③ 지구가 태양을 =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만유인력

<보기>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점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과처럼 겹겹이 싸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1)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2) (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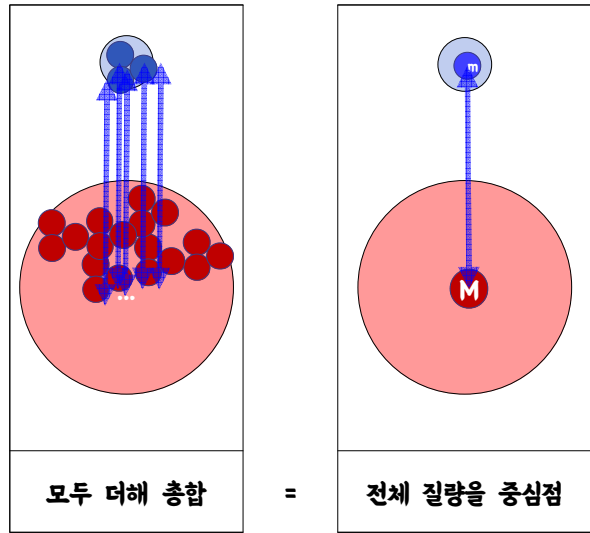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태양 부피요소 하나 하나 총합의 만유인력
지구 부피요소 하나 하나 총합의 만유인력
당연히
위의 보기에 따라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 지구가 태양을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⑤ 반지름이 R, 질량이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R+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과학기술 파트를 제외한 철학 파트를 잡는 흐름을 이제 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대상사건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류를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

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는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향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17.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 ③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 저야 할 대상이다.
- ④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 ⑤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18.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 ② '이기지모'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19.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 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 ①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 ②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달리 수양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 ④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 ⑤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플라톤의 이상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20.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 ③ 조중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 ④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숙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벌으로 적용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①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중성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 ②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군.
-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라 해야겠군.
- ④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군.
- ⑤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는군.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치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1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2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3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

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는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령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새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16. 율곡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성인군자
- 1단락 소주제, 배경지식
-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상식**
 -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1단락 소주제 이해**
 -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기론 법률 적용**

주제

17.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 ③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 저야 할 대상이다.
- ④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 ⑤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18.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기'와 '치인'은 각각 '서'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원리,**
- ② '이기지모'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된 특징을 설명해 준다. **더불어**
-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주제**
- ④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이**
-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발체독**

동 VS 서 비교, 대조

19.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조

< 보 기 >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 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 ①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 ②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달리 수양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 ④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 ⑤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플라톤의 이상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주제+전개방식

20.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주제**
-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구조, 전개방식**
- ③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 ④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숙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벌으로 적용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충돌(가, 다 VS나)

- ①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 ②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군.
-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라 해야겠군.
- ④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군.
- ⑤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는군.

- 1. 법률 + 철학지문 특징
- 2. 동양사상 전반 흐름 정립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p>1</p> <p>유학 : 성인-성학-천도 합일 수기 / 치인 수기-수양 / 치인-통치</p>	<p>2017, 2018 이후 평가원 기출의 흐름 - 인류의 사상 흐름</p> <p>동양 *이기론 *유학 : 수신⇒제가⇒치 국⇒평천하</p> <p>1단락 유학 전반 정보 정립</p>
<p>2</p> <p>수기-수양론 / 치인-경세론 유학의 기반 : 이기론 이 : 원리 / 기 : 물질 서로 다르지만, 더불어 실제로 존재</p>	<p>2단락 수기-수양론 치인-경세론 그 배경으로 이기론 정립</p>
<p>3</p> <p>수양론 : 이통기국 즉, 이기론 바탕 자기 수양 수신제가치국평천하</p>	<p>3단락 이기론 바탕 수양론</p>
<p>4</p> <p>경세론 - 법제개혁론 Q 선조 질문 A 율곡이이 사상 이기론 기반 법제개혁론 이 : 유지 (왕도,삼강오륜) 기 : 개혁 (법제)</p>	<p>4단락 이기론 바탕 경세론 '법제개혁론'</p>
<p>5</p> <p>조선의 법제 수교 ⇨ 록 (기) ⇨ 대전 (이)</p>	<p>5단락 조선의 법제</p>
<p>6</p> <p>조선의 법제 이 : 대전 = 양법미의 = 조종성현</p>	<p>6단락 이 : 유지 = 대전... 기 : 변혁 = 나머지</p>
<p>7</p> <p>결론 정리. 이 : 유지 기 : 개혁 이 : 조종성현 기 : 조세법령, 폐단법령, 부당한 법령, 선왕의 법, 권세가</p>	<p>7단락 현실적응 이 : 대전, 조종성현, 삼강오륜, 어진정치, 양법미의 유지 vs 기 : 폐단, 조세법령, 선왕의 법, 권세가 주장</p>

여기까지 글 전체 흐름을 보았고, 이어서, 법률 지문의 특징 보겠습니다.

평가원에서 지식적 측면에서 다루는 흐름은 없으나, 법학에서 기본 지식임과 동시에, 지식체계 형성과 평가원 법학 지문 구조 설계에 영향을 끼치니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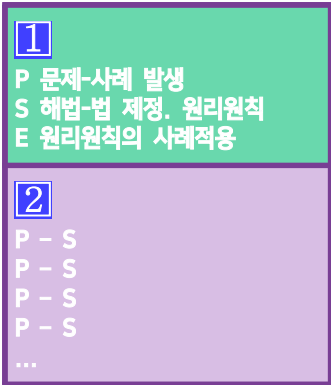
간단히 다룹니다. 제대로 다루자면 전공책 한권이에요. 간단히 다루는 과정에서의 정보 생략으로 인한 완결성 부족이 있으니, 관련해서 대학 진학하고 나서 더 공부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대륙법	영미법	관습법	종교법
특징	로마법 기반	보통법 (common law)	사회적 관습이 법 역할	종교 규범이 법 역할
형태	성문화된 법	판례가 법	불문법	경전
구분	'글(文)'로 정립된 법체계	'판례'로 정립된 법체계	'사회적 관습'으로 정립된 법체계	'종교 교리'로 정립된 법체계

특히, 지금 주류 법체계는

	대륙법	영미법
특징	로마법 기반	보통법 (common law)
형태	성문화된 법	판례가 법
구분	'글(文)'로 정립된 법체계	'판례'로 정립된 법체계
주요국	대한민국	미국, 영국
장점	성문화되어 있으므로 원리원칙 명확	판례 중심으로 변화, 사회적 요구에 유연
단점	변화, 사회적 요구에 경직적	원리원칙이 불명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평가원 법 지문의 글의 구조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P 문제, 사례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S 해결과정에서 원리원칙 확립 = 법 성립됩니다.
 이제 그것을 E 사례에 적용하면서 하나의 정보군집이 끝납니다.

위 지문도 마찬가지로 유교-이기론을 바탕으로 법제개혁론이라는 원칙이 세워집니다. 그 원칙을 바탕으로 이에 해당하는 조종성현은 유지하고 기에 해당하는 폐단은 교정하는 현상 적용에 이릅니다.
 철학 - 법학 융복합 지문이라 이 정도에서 정리가 끝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법률 지문이 나온다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2

대륙법의 한계, 사례, 현상 적용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되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글의 구조가 정립됩니다.

p - s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데 10번 넘게도 반복됩니다. 따라서 정보량이 터지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들 헤메는데, ps, ce구조만 잘 잡아줘도, 발췌독 과정에서 굉장히 편해집니다. 선지, 핵심 정보가 전부 그 위에 있습니다.

법률 지문은 추후 또 다루고 다시 철학지문 흐름으로 옵니다. 아래의 흐름 기억나시죠.

	신학	vs	철학	vs	자연과학
관념론					
경험론					

공통점	동양 사상	vs	서양 사상
원리	이 (종교,성리학)		형이상학 (종교)
현상	기 (실학)		자연과학
	이기론		
차이점	이기 더불어 존재		원리-현상 분리
기출	2018-6월		2018-수능

동양사상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유교, 이기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理)	만물의 원리	원리 원칙	성리학	통치 원리	지킬 대상	도덕	...
기(氣)	'이'로 인해 발현	사례 현상 대상	실학	잘못 가능	교정 대상	실제	...

이쯤에서 그쳤으면 참 좋았을 수 있는데... 물론 장점도 있고, 동양 사상의 가치도 있습니다.

제가 가치 판단할 주제는 아니니 이쯤 하고, 다시 지문에 연결합니다.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첫 단락에서는 여러 생각 말고 주제가 무엇인지 집중합니다. 이러한

- 뒷 문장이 정보 가치 높습니다.
- 물론 주제는 율곡 이이로 넘어가지만
- 도입은 유학의 이념입니다.

사실, 유학에 대한 기출 연결 흐름을 잡지 못하고 지문만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기출 흐름, 배경지식을 잡아드렸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구조 설계라도 잡았다 보면 보입니다.

수기치인

- 수기 - 자신을 닦는 일
- 치인 - 통치

한자어 바탕 어휘 바탕 추론하면 충분히 핵심정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은

천도 - 합일 - 성인 - 성학

아! 정리하면 자신을 갈고 닦고,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즉, 수기치인을 하는 학문. 유학. 그 유학의 사상이 베이스!

라는 흐름은 충분히 잡힙니다.

특히!

1단락 수기 - 2단락 수기 - 수양론 - 3단락 수양론

흐름과

1단락 치인 - 2단락 치인 - 경세론 - 4단락 경세가 - 법제 개혁론

이 흐름을 잡았으면

- 1단락 역할
- 2단락 역할
- 3단락 역할
- 4단락 역할

구조가 보이며 주제, 정보까지 높은 내용이 명확해지며, 평가원의 설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쓸데 없이

정보완결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에 집착하다

시간 지연,

논리 비약,

정확한 이해의 어려움등을 겪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통 말하는 '독해력'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1
 유학 : 성인-성학-천도 합일
 수기 / 치인
 수기-수양 / 치인-통치

이어지는 2단락 봅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 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과거 일반적이었던 설명문 구조로 보면 집중할 부분이 이기지묘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평가원 흐름을 보게되면, 사실 2단락 내용은

1단락의 유학 세팅을 바탕으로

2단락에서 유학의 방법론인 이기론 설명이라는 것을 잡아야합니다.

그것을 ‘이기지묘’라고 한다고 해봐야
 그 정보는 활용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반면,
 이기론에 집중하면,

이(理)	만물의 원리	원리 원칙	성리학	통치 원리	지킬 대상	도덕	...
기(氣)	‘이’로 인해 발현	사례 현상 대상	실학	잘못 가능	교정 대상	실제	...

이 핵심을 처리할 수 있고,
 이것이 조선의 법제의 철학이 됩니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제론으로 이어진다.

- 결국
- 1단락 유학
- 2단락 이기론
- 3단락 수양론에서
- 4단락 경제론으로 흐름을 잡겠다는 구조가 보입니다.

슬데없이, 거경, 궁리, 역행...
 그 세부 내용은 단기기억 한계로 기억하기도 힘들고,
 단순 정보 확인 수준의 문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시대인데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의도는 이기론 바탕, 수양론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흐름.
 즉, 기는 현실-대상-사물의 병폐가 나타나니,

도덕, 이상인 ‘이’로서 다스려야한다는 의미.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제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글의 주제 단락입니다.
 이기론을 바탕으로 경제론, 법제개혁론으로 이어지는데

이 역시 어려운 정보는 아닌데
 구조를 못 잡고 정보 하나 하나에 어그로 끌리면 상당히 피곤해 집니다.

이(理)	만물의 원리	원리 원칙	성리학	통치 원리	지킬 대상	도덕	... 기준
기(氣)	‘이’로 인해 발현	사례 현상 대상	실학	잘못 가능	교정 대상	실제	... 교정대상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법은 그대로
 기에 해당하는 법은 개혁을 하자고 합니다.
 동시에
 Q-A 구조
 국왕의 물음과, 그 대답
 이라는 주제 구조 흐름도 잘 봐둡니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단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이라는 주제 구조 흐름도 잘 봐드립니다.

조선의 법이 형성되는 흐름인데, 작은 마음표 중심으로 흐름이다.

중요한 것은!

글 전체 흐름에 따라서

수교 - 록 (기) - 대전 (이)

1단락 유학

2단락 이기론

3단락 유학-이기론-수양론

4단락 유학-이기론-경세론-법제개혁론

5단락/6단락 유학-이기론-경세론-법제개혁론 - 조선의 법제

이 흐름! 정보 별 것 없습니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5단락은 수교 - 록 (기) - 대전 (이)

6단락은 (이)에 해당하는 대전, 양법미의, 조종성헌, 대전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어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이 (원리 원칙)	기 (교정대상)
7단락	조종성헌	백성을 피폐하게 하는 조세법령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 부당한 법령
전체	대전, 양법미의, 조종성헌	수교, 록

글 전체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면 결국 이 흐름을 잡습니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 문제가 아니라,

주제, 정보가지 높은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1단락 소주제. 유학에 대한 정립. 물론 불안하면 추후 발췌독.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단어 외리가리로 찾자면, 1단락 끝 부분 바탕인데, 정보가 있는 그대로 없으니 다른 단락에 좀 더 정확한 근거 찾아 없으면 결국 적당히 2번... 이게 뭔짓입니까?

이제 좀 그만.

주제가 유학-이기론-수양론-경세론. 당연히 그렇겠조.

필요시 발췌독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조선의 법제입니다. 수교라는 소주제 키워드 정보확인.

역시 필요시 발췌독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선의 법제. 대전. '이'에 해당하니 당연. 필요시 발췌독.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4-5번 선지가 논리적 모순입니다.

둘 다 대전인데 하는 이, 하나는 기에 대한 설명.

바로 정답.

보이지죠? 바로 주제 => 정답 집중. 판단.

	이 (원리 원칙)	기 (교정대상)
7단락	조종성현	백성을 피폐하게 하는 조세법령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 부당한 법령
전체	대전, 양법미의, 조종성현	수교, 록

17.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의 주제, 유학-이기론에 대한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용입니다.

이(理)	만물의 원리	원리 원칙	성리학	통치 원리	지킬 대상	도덕	구분됨 + 더불어
기(氣)	'이'로 인해 발현	사례 현상 대상	실학	잘못 가능	교정 대상	실제	

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확인 됩니다!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기는 현상이고,

이가 법칙인데?

2번 정답 끝!

③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 져야 할 대상이다.

④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⑤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 수기치인. 1단락 소주제.

18.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결국, 소주제들입니다. 바로 확인 됩니다!

1
유학 : 성인-성화-천도 합일 수기 / 치인
수기-수양 / 치인-통치

2
수기-수양론 / 치인-경세론
유학의 기반 : 이기론 이 : 원리 / 기 : 물질
서로 다르지만, 더불어 실제로 존재

3
수양론 : 이통기국 즉, 이기론 바탕 자기 수양
수신제가치국평천하

4
경세론 - 법제개혁론
Q 선조 질문 A 율곡이이 사상
이기론 기반 법제개혁론
이 : 유지 (왕도,삼강오륜) 기 : 개혁 (법제)

5
조선의 법제 수교 ⇨ 록 (기) ⇨ 대전 (이)

6
조선의 법제 이 : 대전 = 양법미의 = 조종성현

7
결론 정리. 이 : 유지 기 : 개혁
이 : 조종성현
기 : 조세법령, 폐단법령, 부당한 법령, 선왕의 법, 권세가

② '이기지모'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수기 치인...이 대립과 분리?

이기론을 바탕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수기-수양론 그리고 이어지는 치인-경세론이 모두 이기론 바탕인데? 대립적? 틀렸쥬?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4단락 초반부 정보군집 주제! 바로 정답!

④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들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역시 동양 사상에서 멈추지 않고

서양까지 비교대조 합니다.

19.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 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결국 여기도 이기론. 아까잡았던 내용 인출합니다.

공통점	동양 사상	vs	서양 사상
원리	이 (종교, 성리학)		형이상학 (종교)
현상	기 (실학)		자연과학
	이기론		
차이점	이기 더불어 존재		원리-현상 분리
기출	2018-6월		2018-수능

아마도 차이점이 가장 부각되고, 결국 차이점 문졌군요

- ①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바로 정답! 끝

- ②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달리 수양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 ④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 ⑤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플라톤의 이상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여기까지 1~4단락

유학-이기론-수양론-경세론 이라는 이론적 배경

여기부터 5~7단락

유학 원리를 법제개혁에 적용합니다.

20.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정리한 주제 내용 그대로 보이죠?

-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바로 정답.

4단락 구조 잡았다면,

뒷부분 도입부의 구조가 보이면서 바로 정답이 보일텐데!

4

경세론 - 법제개혁론
 Q 선조 질문 A 율곡이이 사상
 이기론 기반 법제개혁론
 이 : 유지 (왕도, 삼강오륜) 기 : 개혁 (법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잘못생각하는거 없습니다.

- ③ 조종성현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 ④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3~5번 선지 정확한 후반부 주제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숙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 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상식적 차원에서의 판단과,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적용하는 전형적인

지문 율리 - 보기 사례 적용 유형입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경국대전 - 대명률의 형법 : 이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경국대전 - 이 (관리 형벌 남용 죽음 - 곤장 100대)

vs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경국대전 - 대명률(이) (살인 = 사형)

두 개념이 대립되죠?

1

당연히 조선 유학-이기문을 따르고,

이는 유지 기는 교정 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유학의 기본사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로 이어질 것이냐

(나)로 볼 것이냐

2

관리의 잘못을 부각하고 싶으면 (가)-(다)로 이어질 것이고

관리를 보호하고 싶으면 (나)로 갈 것입니다.

①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이기론 바탕이니 자신의 주장 근거는 당연히 '이'를 지키자.

정답 끝!

②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군.

ㄴㄴ 경국대전 = 이. 지켜야죠.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라 해야겠군.

이기론 바탕이니 자신의 주장 근거는 당연히 '이'를 지키자.

대전에 대명률 따르라 되어 있으니 '이'유지

④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군.

이기론 바탕이니 자신의 주장 근거는 당연히 '이'를 지키자.

(가)(다)흐름을 따르는 것이 좀 더 옳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렇다고 경국대전 (나)가 '이(양법미의)'가 아니다?

그릴 수는 없죠.

이 vs 이

상황에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지

이미 '이'인 '대전'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⑤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는군.

그렇다면 (나)로 갔습니다.

상식적 차원에서의 사고.

철학 - 법학 통합지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융복합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현재 학생들이 철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학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융복합이 아니라,

각각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죠.

이제 서양 사상흐름이 나옵니다.

2018학년도 수능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 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17.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18.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 ③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⑤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경지식, 어휘력, 상상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엔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 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주제+전개방식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주제

17.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X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18.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특이한 전개방식
- ③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⑤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17번 단독문항

A 견해

A 비판 + 재반박

예시 이해

상식 틀림

표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1. 철학지문 특징

2. 서양사상 전반 흐름 정립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p>1 아리. 목적론 1~5</p>	<p>2017, 2018 이후 평가원 기출의 흐름 - 인류의 사상 흐름</p>
<p>2 아리. 목적론 반박. 근대. 1. 갈릴. 과학적 설명 no 2. 베이. 과학에 무익 3. 스피. 이해 왜곡 재반박</p>	<p>서양 철학 VS 자연과학 서로 논박 : 논.증.구.조 1단락 주장 : 아리. 목적론 1~5 2단락 반박 : 근대 철학 1.갈릴 2.베이 3. 스피</p>
<p>3 아리 목적론 반박 근대. 재반박 1. 블로틴. 목적론 반박 경험적 근거 없음 2. 시도 없음 3. 우드. 일부 인정 - 갈릴 그러나 옳고 그름 판단 불가</p>	<p>3단락 재반박 : 현대 1.2. 블로. 3. 갈릴인정 옳고 그름 판단 불가</p>
<p>4 아리 vs 엠페 근대과학 : 실험-물질론-환원론</p>	<p>4단락 아리 VS 엠페 : 물질론 - 환원론</p>
<p>5 아리. 목적론 의의</p>	<p>5단락 아리 목적론 의의</p>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지문이지만,

① 서양 사상의 흐름과

② 주제 전개 과정에서 논증구조 파악

초점 두는 것이 상당한 효용을 가져옵니다.

관리의 잘못을 부각하고 싶으면 (가)-(다)로 이어질 것이고

관리를 보호하고 싶으면 (나)로 갈 것입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1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2 목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3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4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Q-A구조

Q-A구조

반복으로 목적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흐름 잡고

1~5가지 정보군집 잡습니다. 아마 독립문항 출제 가능성 있는 정보군집임이 보이실거예요!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오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3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비판 : 아리 목적론

근거 : 기계론

1. 갈릴 - 과학적 설명

2. 베이컨 - 과학에 무익. 3. 스피 - 이해 왜곡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이들의 비판~ : 아리 목적론 비판

그러나~ : 재반박

결국!

아리-목적론을 옹호하는 논증구조로 흐름입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2 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3 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현대학자들의 재반박.

특이한 부분은, 논박 과정에서, 우드필드는 상대방의 반박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 논증 반박에서 특이점, 평가원도 주목할 수 밖에 없고, 역시 문제-정답선지로 추후 이어지니 확인 바랍니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지금까지 나온 논박을 다시 정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엠페도클레스
목적론 : 모든 것은 목적	물질론 : 모든 것은 물질 환원론 : 모든 것 물리화학으로
서로 비판	
현대 과학	근대 과학 - 기계론
1. 볼로틴 : 근대 과학이 충분한 입증 못함	1. 갈릴레오 : 과학적 설명 아님
2. 입증시도도 안 함	2. 베이컨 : 무익함
3. 우드필드 : 옳고 그름 입증 NO	3. 스피노자 : 왜곡
*과학적 설명 아님 인정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매뉴얼

마지막 단락은 의의 정리하며 마무리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 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 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항상 주제 + 전개방식.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단락 아리 - 목적론

2단락 근대 과학 - 반박 / 재반박

3단락 현대 - 아리 목적론 옹호 / 아리 비판에 대한 재반박

4단락 비교

5단락 요약 정리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장단점 없습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절충 없습니다. 변증법이 아니라, 한 주장에 대한 옹호로 끝납니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새로운 이론 없습니다

주제는 목적론!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목적론 옹호!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바로 정답!

17.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상했던대로, 1단락 정보군집 독립문항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와리가리 발췌독 갑니다.

단, 여기서도, 단어 하나 하나 꼼꼼하게 보자면, 구조는 다 망가지면서 2단락 뒷 부분의 재반박 부분을 발췌해야하지만,

그런 접근이 아닙니다.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 잡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용입니다.

-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
-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지문 내용 바탕 연결

-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확인 어렵습니다. 스킵

-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5번 내용과 대립. 아웃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3 내용과 같습니다. 정답!

-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1 내용 불일치 아웃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2 내용 불일치 아웃

주제. 정보군집도 보았으니 이제는 구조를 보는 흐름입니다.

논증구조

주장 + 근거

반박 + 근거 + 재반박 + 근거

구조에서

특이하게

재반박하는데 상대의 반박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18.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 ② 갈릴레이와 우드펠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역시 특이한 전개방식에서 주의가 끌렸고 2번 정답 보였습니다.

- ③ 베이컨과 우드펠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⑤ 스피노자와 우드펠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출제 의도 항상 연습했습니다.

지문 원리 - 보기 원리 와 같이

지문 정보 위계와 - 보기 정보 위계가 같다면

1️⃣ 비교대조문항

지문 원리 - 보기 사례와 같이

지문 정보 위계 - 보기 정보 위계가

상 - 하로 이루어져있다면

2️⃣ 지문 원리 적용 문항입니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

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	엠펜도클레스	마이어
목적론	O	X	O
물질론	X	O	O
환원론	X	O	X

위와 같이 처리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 잠시 설명 부연드리면 4단락 내용인데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물질론 : 모든 것이 물질

환원론 :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환원론의 의미 정립 후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펜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박과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반박의 근거인데 사실상 같은 내용 반복이라

결국 내용의 정리는

아리스토텔레스 : 목적론

엠펜도클레스

물질론 : 모든 것이 물질

환원론 :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

보기 내용은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목적론 확인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부연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물질론 : 물질론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 안 됨 : 환원론 x

결국?

	아리스토텔레스	엠펜도클레스	마이어
목적론	0	X	0
물질론	X	0	0
환원론	X	0	X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펜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역시, 주제 목적론 의미 파악하면 바로 나오는 선지. 정답!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여기까지

동양 사상의 흐름

서양 사상의 흐름을 보았고

그 흐름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 볼 텐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개하다’

라는 개념은 물론 우리가 가치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대가 도래하고,

개화가 되지 않은 것을 ‘미개’하다 하였으며

그것을 ‘야만’적이라 부르며,

개조와, 정복의 대상으로, 그래서 서구 식민 약탈의 정당성 부여의 기반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구조주의’에 의해 그 나름의 가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사고 방식 중 상당수는 여전히 비과학적입니다.

지구 평면설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 부분에서 올바른, 가치있는 사고를 하도록 돕는 것이 국어 과목의 역할입니다.

이제

그 흐름을 잡을 차례입니다.

서구사상과 동양사상

특히 서구 사상이 동양에 전래되며 생긴 사상적 변화에 주목합니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풀이시간 : 이해도 : 수업 후 :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살이 쓴 주재군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주재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살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흠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흠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

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흠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최한기는 전체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흠슨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6. 위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 ㉣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한기는 흠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 ② 아담 살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 ③ 이익과 흠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 ④ 아담 살과 흠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 ⑤ 주계군정과 전채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18.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 ②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 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 ③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 ④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 ⑤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0.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
-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후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2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들어오기
- ② ㉡:드러내었다
- ③ ㉢:퍼뜨리기
- ④ ㉣:실린
- ⑤ ㉠:가리지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살이 쓴 주재군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주재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살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A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

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홉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글의 전개방식, 학자 견해

최한기는 전체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태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6. 뒷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 ④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살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제+전개방식

'심'

정보군집 필요시 발췌독

의의

세부내용 필요시 발췌독

구조 비교 대조

순서 과정

이의 VS 아담살 비교대조 =>표

정보군집 독립문항 18번 4-6개 정보

17.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한기는 흠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세부 필요시 발체독**
- ② 아담^A살과 달리 ^이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주제**
- ③ ^이이익과 흠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주제**
- ④ 아담 살과 흠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구조 C → E 1 단락 주제세팅**
- ⑤ 주제군정과 전체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C → E**

주제

정보군집 독립문항 발체독

18. 밑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6**
- ②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 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3**
- ③ **광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 ④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 ⑤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밑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VS 이익

< 보 기 >

㉠ 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 귀에 쏘린 신기가 눈에 쏘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 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 ① 가, 나 **필요시 발체독(2번째 단락)**
- ② 가, 다 **주제: 심VS신**
- ③ 나, 다
- ④ 나, 라
- ⑤ 다, 르

20. 밑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기 이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주제: 동서양 철학 핵심**
-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처리 가능 정보 집중**
-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
-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종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2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들어오기
- ② ㉡:드러내었다
- ③ ㉢:퍼뜨리기
- ④ ㉣:실린
- ⑤ ㉤:가리지

- 1. 서양사상 ⇨ 동양사상에 영향
- 2. 정보군집에 대한 처리, 주제, 구조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C 서양의 과학지식 E 조선 영향, 사상변화 Q 의학 부분은 X	2017, 2018 이후 평가원 기출의 흐름 - 인류의 사상 흐름
2 아담 샬 ⇨ 이익의 사상 C 기독교 전파 목적의 전래 ⇨ E 로마시대 의학 전래 아담 샬 VS 이익의 사상	서양 => 동양 서양의학의 동양전래 그리고 비교 대조 구조 정보처리
3 Q 의학 부분은 X A 1~6 (정보군집) 최한기 사상 흐름	1단락 도입, 서양 의학의 전래
4 최한기 사상 + 흡슨 사상 C 기계론 근원 ⇨ E 신기개념 최 C 신기 ⇨ E 신체운동원인 흡 C 창조주 ⇨ E 운동원인	2단락 아담 샬 VS 이익
5 최한기 사상 VS 흡슨 VS 이익 신기 VS 창조주 VS 심	3단락 조선에 서양 의학 전래의 특징
6 최한기 사상, 신기 정보군집, 정보 터짐	4단락 최한기 흡슨 사상
7 이익	5단락 최 흡 이 비교대조
	6단락 최한기 사상 특징

결국, 비교대조의 구조로 정보처리 + 정보군집에 대한 정보처리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서학이 조선에 전래되면서 변화가 있는데

하지만

역점되며, 정보가치 높아집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그러면 왜 의학은 다르냐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하는데 특이하게

2단락 건너고

3단락에서도 초반부 정보군집으로 나옵니다.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1.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2.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3.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4.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5. 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6.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크게 6가지

다시 2단락으로 흐름 봅니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C 기계론, 기독교 전파 목적

E 근대 의학이 아닌 로마시대 생리설, 중세 해부 지식 전래

물론 이익에 영향

하지만 이익 나름의 수용

그래서 이익 VS 아담 샬 비교 차이 있음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매뉴얼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흠손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3단락 내용 다시 정리하면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1.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2.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3.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4.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5. 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6.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이렇게 6개의 정보군집 이후

그러던 중

최한기의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흠손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흠손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

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역시 최한기 생각 흠손생각의 비교,

최한기는 전체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흠손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최한기, 흠손의 비교 계속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한기 이론의 특징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의정리로 끝냅니다.

이 정보를 총 정리하면,

	이익	아담살	최한기	흡슨	데카르트
운동	뇌	뇌	뇌or신기	뇌	
지각	심	뇌	심X 신기	뇌	정신(뇌)
근원		신의 뜻	신기	신의 뜻	

16.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 전개방식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양의 의학 => 조선에서의 수용 + 변화 비교 대조

2번 선지가 가장 정확. 정답!

- ①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인체관 분화는 아닙니다. 발전.

- ②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정답

- ③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문제점 지적 없쥬

- ④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충돌은 맞는데 그렇다고 변증법 절충은 아닙니다.

- ⑤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방적 수용 변형이지 주고 받진 않아요.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한기는 흡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세부내용이라 필요시 발췌독.

전체 내용을 표로 정리. 표 바탕 판단 ㄱ

	이익	아담살	최한기	흡슨	데카르트
운동	뇌	뇌	뇌or신기	뇌	
지각	심	뇌	심X 신기	뇌	정신(뇌)
근원		신의 뜻	신기	신의 뜻	

- ② 아담 살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이익 - 심장 맞습니다.

- ③ 이익과 흡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운동은 뇌. 둘 다 맞습니다.

- ④ 아담 살과 흡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효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정답!

- ⑤ 주계군정과 전체신문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양 의학이 전래된 목적.

C 기독교 선교 목적

E 당시 주류가 아니라, 로마에 관련된 것들 등!

따라서 당시 유효한 이론 소개가 아니쥬!

3단락 초반부 정보군집으로 처리합니다.

18.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단락 초반부 정보군집으로 처리합니다.

1.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2.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3.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
을 뿐 아니라,
4.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5. 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
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6.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①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6번

②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 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3번

③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2번 같은데? 아니쥬? 정답!

④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5번

⑤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4번

이어지는 문제는 6단락 정보군집입니다...만 역시 주제. 구조.

19.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에 제
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
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ㄴ.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ㄷ.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ㄹ.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
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이익	아담살	최한기	홀슨	데카르트
운동	뇌	뇌	뇌or신기	뇌	
지각	심	뇌	심X 신기	뇌	정신(뇌)
근원		신의 뜻	신기	신의 뜻	

최한기는 신기

이익은 심

따라서? ㄱㄴ 심장이 나온 내용 발췌독 또는

ㄱ.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
기에서 나온다.

ㄹ.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
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심장이 나오지 않고 신기만 나온 ㄴㄷ발췌독 접근하시면 되겠죠?
정답. ㄴ,ㄷ 3번!

ㄴ.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ㄷ.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
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문제를 위한 흐름

동서양 사상사 비교

공통점	동양 사상	vs	서양 사상
원리	이 (종교, 성리학)		형이상학 (종교)
현상	기 (실학)		자연과학
	이기론		
차이점	이기 더불어 존재		원리-현상 분리

20.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동서양 사상이 비교 바탕 보시면,

아마 서양은 구분됨 vs 동양은 더불어 존재.

물론 못 잡아도 괜찮습니다.

글의 중심이 되는 흐름은 아니니까요!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바로 정답!

최한기 - 신기

주제만 제대로 잡아도 이렇게 정답이 특뒤편입니다!

-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겠군.
-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이익	아담살	최한기	흠손	데카르트
운동	뇌	뇌	뇌or신기	뇌	
지각	심	뇌	심X 신기	뇌	정신(뇌)
근원		신의 뜻	신기	신의 뜻	

여기까지 철학지문 다시 보면서

동양사상

서양사상의 흐름과

서양 과학이 동양사상에 영향을 준 흐름까지 잡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2019 수능 우주론 지문을 보시면

흐름이 제대로 잡히실거예요!

2페이지 내용부터 다시 꼭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즉, 2회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평가원의 거시적 설계를 바탕으로

미시적 지문 설계까지 보여야만

평가원의 의도대로 수능 시험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우리 인생도 제대로 갑니다.

이어지는 것은 이제, 또 하나의 큰 흐름.

경제학 지문입니다.

제 인생 또 갈아 넣어야 합니다.

현재시간 오전 5시 33분

오전 5:34:01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7~42]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

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담하게 ㉥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 ②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
- ④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3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④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져 공정한 보험이 된다.
- ⑤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39.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 한다.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40. 윗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42.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 ② ㉡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 ④ ㉣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⑤ ㉤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7~42]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식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이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

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담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정보근집 원리 공식 발췌

정리 이해

공정한 보험

3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 ②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 **상표**
- ④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
- ⑤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38.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 필.발**
- ②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상식**
- ④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다**X~~많~~아야 공정한 보험이 된다. **=**
- ⑤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필.발 정보없음**

39.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주제:공정한 보험** **날돈=받을돈**

<보기>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 한다.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날 돈 받을 돈**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날 돈**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사고확률**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받을 돈 같아야**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받을 돈**

40. 밑글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필.발**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제**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S**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S**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S**

필.발 P=>S 구조

4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42.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 ② ㉡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 ④ ㉣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⑤ ㉤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 1. 경제학
- 2. 법학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blue;">1 주제 2개</p> <p>보험의 정의</p> <p>① 제도 : 법학 ② 상품 : 경제</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blue;">2 경제</p> <p>경제. 공정한 보험 = 낼돈 = 받을돈</p> <p>① 보험료 = 보험금 기댓값 ② Σ보험료 = Σ보험금 ③ E(보험금)=보험금*P(사고) ④ 보험료율=P(사고)</p>	<p>경제학 지문 특징 수학 공식, 원리. 이해 후 문항에 적용</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blue;">3 P 문제</p> <p>P 불공정한 보험 C 정보 비대칭성</p>	<p>법학 지문 특징 문제 또는 예시로 도입 원리 원칙 법률 정립 사례 적용</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blue;">4 S 원리</p> <p>S 고지의무 : 중요한 사항</p>	<p>이 과정에 생기는 문제-해결 P-S 구조 반복으로 난이도↑</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blue;">5 P - S</p> <p>P 고지의무 위반 S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 시점 상관 없음. 일방이사. P 이미 지급한 보험금 S 반환청구권</p> <p>P.C 보험 가입자 보호 S1 의무 이행 강제, 손해배상X 계약해지권만 부여 S2 해지권 행사 기간 제한 S3 보험사에 큰 책임</p> <p>P 보험사 과실 / 계약시 고지 의무 위반 인지 S 계약해지권 배제 *일반 법률과 다름</p> <p>P 사고 인과관계 없음 S1 보험금 지급 S2 계약 해지권 행사 가능</p>	<p>1단락 주제 2개 상품 - 경제학적 관점 제도 - 법학적 관점</p> <p>2단락 경제학적 관점. 원리 주제는? 낼돈=받을돈 공정한 보험</p> <p>3단락 P 공정한 보험 x C 정보비대칭</p> <p>4단락 S 고지의무</p> <p>5단락 P-S 반복</p> <p>6단락 요약 정리</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blue;">6 요약 정리</p>	

특이한 구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특이한 구조를 모두 담고 있는 글입니다.

우선 첫단락부터 예고했듯이,
주제는 2개. 보험에 대한 정의를 2가지로 합니다.
예전 수능 기출이면 있을 수 없는,
요즘의 상호텍스트적 독서를 녹여낸 지문 설계입니다.

2단락.
경제학적 관점에서
수학 공식과 원리를 주지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보험 = 낼돈 = 받을돈

이어지는 3단락은 문제제기
4단락 해결책 제시
라는 법학 지문의 특징과

5단락에선 P-S구조 반복

전형적인 흐름이 복합된 지문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잘 처리해서 적용하시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지문 디테일 보겠습니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아까 말씀드렸듯 1단락에서

1. 제도
 2. 상품
- 두가지 정의를 합니다.

정보군집도 두가지.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 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 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 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2단락 주제 '공정한 보험'

증반부의 인과 연결사

따라서

앞 뒤에서 공정한 보험이 3단락 초반까지 이어지는 흐름 주제는 공정한 보험입니다.

문제는

경제학 지문 구조에 따라

수학 공식,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 정보가 상당히 무겁고 처리가 어렵습니다.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 처리 가능한 정보 우선 집중 처리.

2. 이후 필요시 정보군집 정보 처리.

우선, 1의 방법으로 정보처리.

1.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 처리 가능한 정보 우선 집중 처리. 주제 = 공정한 보험은?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같은 말 반복이예요.

쉽게 말해 낼 돈(보험료) = 받을 돈(사고시 받을 보험금)

같다는 뜻입니다.

1.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 처리 가능한 정보 우선 집중 처리.
 2 단락 주제 : 공정한 보험
 낼 돈 (보험료) = 받을 돈(보험금)

또는 완전한 정보처리를 하겠습니다.

1.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2.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3.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4.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5.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 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6.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2. 이후 필요시 정보군집 정보 처리.
 2 주제 공정한 보험 + 수학 공식
 1. 납부할 보험료 = 지급받을 보험금 기댓값
 2.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
 3.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 = 사고발생확률*보험금
 4. 보험료율 = 보험료/보험금
 5.6 보험료율 = 사고발생확률. 아니면 공정한 보험 아님.

다시 또 수학 공식이 필요합니다.

2. 이후 필요시 정보군집 정보 처리.

2 주제 공정한 보험 + 수학 공식

1. 납부할 보험료 = 지급받을 보험금 기댓값
납부할 보험료 = E(보험금)

2.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
 Σ 보험료 = Σ 보험금

3.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 = 사고발생확률*보험금
E(보험금) = 보험금*P(사고발생확률)

4. 보험료율 = 보험료/보험금

5.6 보험료율 = 사고발생확률. 아니면 공정한 보험 아님.
P(사고발생확률) = 보험료율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합니다.

쉽지 않죠 ㅠ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 처리 가능한 정보 우선 집중 처리.

2. 이후 필요시 정보군집 정보 처리.

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역시 둘 다 접근법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지문 봅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를 \textcircled{C}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결국 3단락 주제는

이러한 문제는

문제입니다.

PCS 구조

문제 : 불공정 보험

원인 : 정보 비대칭성

해결 : ? 이제 4단락 나오겠죠?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textcircled{S} 고지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PCS 구조

문제 : 불공정 보험

원인 : 정보 비대칭성

해결 : 고지의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마무리 됩니다.

물론 4단락에 더 많은 내용이 있긴 합니다.

1.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여기서.. 따라서...

와 같은.

하지만, 의미 없죠.

결국 고지의무가 해결책이라는 설명에 불과하니.

이제 2번째 정보군집입니다.

1 법륜지문의 구조

도입 - P - S

2 법륜지문의 구조

P - S 반복

수업 때 말씀드렸드시피

PS를 제대로 잡아 놓으면

결국 발췌독을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1. P-S : 고지의무 위반 - 계약해지권 (일방의사표시)

2. P-S : 이미 지급 - 반환청구

3. P-S : 보험가입자 불안정 - 해지기간 제한, 보험사 책임 중, 해지권만 행사 가능. 손해배상 강제 불가

4. P-S : 보험사 과실/이미 고지의무 위반 알고 있음 - 해지권 제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5. P-S :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 보험금 지급/ 해지권은 인정

마지막 단락은 지금까지 내용 요약 정리 끝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항상. 주제 + 전개방식 유형

1단락 주제 2개 상품 - 경제학적 관점 제도 - 법학적 관점
 2단락 경제학적 관점. 원리
 주제는? 날든=받을든 공정한 보험
 3단락 P 공정한 보험 x C 정보비대칭
 4단락 S 고지의무
 5단락 P-S 반복
 6단락 요약 정리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 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두 정보간의 관계는

공정한 보험 지키기 어려운 문제 - 해법이 법률

②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후반부만 다름. 심지어 경제적 해결책 L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펴보고 있다.

정확한 주제 끝

④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적 규제 L 판매 전략 L

⑤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 빠짐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매뉴얼

38. 밑줄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S구조로 보는 유형이라 발췌독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①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PS내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가 잘못. 3을 보면, 보험사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계약해지권? 인과관계 없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보험사에 더 불리해야지, 계약해지는 보험사에 유리하죠. 하향식. 사고 필요.

1. P-S : 고지의무 위반 - 계약해지권 (일방의사표시)
2. P-S : 이미 지급 - 반환청구
3. P-S : 보험가입자 불안정 - 해지기간 제한, 보험사 책임 가중, 해지권만 행사 가능. 손해배상 강제 불가
4. P-S : 보험사 과실/이미 고지의무 위반 알고 있음 - 해지권 제한
5. P-S :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 보험금 지급/ 해지권은 인정

②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주제. 바로 정답.

이게 바로 고지의무!

-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상식. 하향식 줌.

사고가 나야 돈을 받죠.

- ④ 구성된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공정한 보험이 된다.

같이야 공정한 보험. 역시 주제.

- ⑤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지문 내용 근거하면,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계약이지 해약은 모릅니다. 판단 불가.

정보불충분!

이어지는 문항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완결성 있는 풀이를 진행 해봅니다.

39.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아래 녹색 박스의 4~6내용에 따라서 사고 확률 = 보험료를

	A		B	
사고 확률	0.1		0.2	
보험료율	0.1		0.2	
	$\frac{\text{보험료}}{\text{보험금}}$		$\frac{\text{보험료}}{\text{보험금}}$	
예시	보험료	10	보험료	20
	보험금	100	보험금	100
	기댓값	0.1*100=10	기댓값	0.2*100=20
2배	보험료	20	보험료	40
	보험금	200	보험금	200
	기댓값	0.1*200=20	기댓값	0.2*200=40
	보험료		보험료	
	보험금		보험금	

2 경제
 경제.
 공정한 보험 = 낼돈 = 받을돈
 ① 보험료 = 보험금 기댓값
 ② Σ보험료 = Σ보험금
 ③ E(보험금)=보험금*P(사고)
 ④ 보험료율=P(사고)

2. 이후 필요시 정보군집 정보 처리.
2 주제 공정한 보험 + 수학 공식
 1. 납부할 보험료 = 지급받을 보험금 기댓값
 2.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
 3.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 = 사고발생확률*보험금
 4. 보험료율 = 보험료/보험금
 5.6 보험료율 = 사고발생확률. 아니면 공정한 보험 아님.

<보기>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 한다.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예시	보험료	10	보험료	20
	보험금	100	보험금	100
	기댓값	$0.1 \times 100 = 10$	기댓값	$0.2 \times 100 = 20$
2배	보험료	20	보험료	40
	보험금	200	보험금	200
	기댓값	$0.1 \times 200 = 20$	기댓값	$0.2 \times 200 = 40$

기댓값도 2배입니다.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보험료 2배입니다.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보험료율 0.1 0.2입니다.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예시	A		B	
	보험료	10	보험료	20
	보험금	100	보험금	100
	기댓값	$0.1 \times 100 = 10$	기댓값	$0.2 \times 100 = 20$

B가 2배입니다.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맞습니다.

	A		B	
사고 확률	0.1		0.2	
예시	보험료	10	보험료	20
	보험금	100	보험금	100
	기댓값	$0.1 \times 100 = 10$	기댓값	$0.2 \times 100 = 20$
2배	보험료	20	보험료	40
	보험금	200	보험금	200
	기댓값	$0.1 \times 200 = 20$	기댓값	$0.2 \times 200 = 40$

쉽지 않은 정보처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가지 정보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1.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 처리 가능한 정보 우선 집중 처리.

2. 이후 필요시 정보군집 정보 처리.

2 경제

경제.

공정한 보험 = 낼돈 = 받을돈

- ① 보험료 = 보험금 기댓값
- ② Σ 보험료 = Σ 보험금
- ③ $E(\text{보험금}) = \text{보험금} \times P(\text{사고})$
- ④ 보험료율 = $P(\text{사고})$

2. 이후 필요시 정보군집 정보 처리.

2 주제 공정한 보험 + 수학 공식

- 1. 납부할 보험료 = 지급받을 보험금 기댓값
- 2.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
- 3.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 = 사고발생확률 * 보험금
- 4. 보험료율 = 보험료 / 보험금
- 5.6 보험료율 = 사고발생확률. 아니면 공정한 보험 아님.

주제는

공정한 보험 즉, 낼돈 = 받을 돈 같다.

- ① A에서 보험료(낼 돈)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받을 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받을 돈)은 변하지 않는다.

낼 돈 2배. 받을 돈도 2배. 하지만 받을 돈이 변하지 않는다?
아웃!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받을 돈 2배. 낼 돈도 2배. 하지만 낼 돈이 변하지 않는다?
아웃!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이것은 사고 발생 확률 = 보험료율 확인
다름. 아웃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보험 금. 즉 받을 돈 같으면 낼 돈도 같아야 할 텐데?
아웃!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보험료. 즉 낼 돈 같으면, 받을 돈 기댓값 같다?
맞네요! 정답!
희안하죠?
주제 집중하니 역시 정답!

1.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 처리 가능한 정보 우선 집중 처리.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주제 + 구조

- 40. 위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2~5번 선지 모두
도움이 된다, 문제를 줄인다. 방지한다...

모두 해법이죠?

구조에 따라서!

역시.

정답은 1번 밖에 없고

발췌독으로 확인!

이제는 p-s구조 반복 처리한 것으로 답이 나옵니다.

- 41.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 1. P-S : 고지의무 위반 - 계약해지권 (일방의사표시)
- 2. P-S : 이미 지급 - 반환청구
- 3. P-S : 보험가입자 불안정 - 해지기간 제한, 보험사 책임 가중, 해지권만 행사 가능. 손해배상 강제 불가
- 4. P-S : 보험사 과실/이미 고지의무 위반 알고 있음 - 해지권 제한
- 5. P-S :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 보험금 지급/ 해지권은 인정

-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4. P-S : 보험사 과실/이미 고지의무 위반 알고 있음 - 해지권 제한. 아웃!

-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1. P-S : 고지의무 위반 - 계약해지권 (일방의사표시)
- 2. P-S : 이미 지급 - 반환청구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단 바로 판단이 안 되면 다른 선지로 가도 큰 문제 안 됩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면,

- 1. P-S : 고지의무 위반 - 계약해지권 (일방의사표시)
- 2. P-S : 이미 지급 - 반환청구
- 3. P-S : 보험가입자 불안정 - 해지기간 제한, **보험사 책임 가중**, 해지권만 행사 가능. 손해배상 강제 불가
- 4. P-S : 보험사 과실/이미 고지의무 위반 알고 있음 - 해지권 제한
- 5. P-S :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 보험금 지급/ 해지권은 인정

보험사 책임 가중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보험사 과실 vs 소비자 과실
보험사에 불리. 소비자 유리 로 볼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런 추론에서, 시간안에, 정확하게, 의도대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연습의 필요는 있으나,
이것만을 무기로 갖기에는 현 수능에서 한계가 극명하고
따라서, 주제-구조로 털어냅니다.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5. P-S :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 보험금 지급/ 해지권은 인정
바로 정답 나오죠?

4번을 고르면 되지
지문의 한계 + 학생 역량의 한계 = 오답 리스크 극대화
라는 문제를 왜 스스로 자초하나요.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42.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 ② ㉡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 ④ ㉣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⑤ ㉤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학 주제 흐름을 보겠습니다.

경제 지문에서 중요한 흐름과 키워드는

1. 자본주의
2. 과거 보다는 현 시점에 직결되는 실용적/현실적 정보입니다.
특히,
3. 기출, ebs 연계 전제, 배경지식 전제.

핵심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 수능 경제 지문 핵심 키워드

자본주의
금융
금융 자본주의

승수효과
인플레이션

IMF
글로벌 금융위기

정부의 경기 부양책 vs 출구전략

채권

금리 = 이자
vs
할인율

수요-공급

채권 매매 - 통화량 조절 - 금리 조절 - 신용/대출 조절 -
통화량 조절 - 소비/투자 조절 - 수요/공급 조절 - 경기
호황/안정 조절 - 구매력 조절 - 물가 조절

양적완화 Q.E

주식
옵션

BIS

주식회사

앞으로 출제 가능성 높은 키워드
양적 완화 Q.E
현대통화이론 MMT
채권 가격 변동 원리

기출 내용을 먼저 정리하여 기본 개념 세팅을 합니다.

1. 채권 (2011수능)

- 채권 : 빚 증서
- 채권의 요소 :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만기
- 채권 가격 결정의 요소 :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만기
- + 현재 가치, 현재 금리(이자율), 지급 불능 위험 등

*중요 개념 : 할인율 - 이자율/금리의 역 개념

예를 들면,

Q1. 100만원 은행에 맡기고 연 이율 10%라면?
A1. 원금 100만원 + 1년간 이자율/금리 10%
따라서 1년 뒤 이자 10만원 + 원금 100만원 = 110만원

그렇다면 할인율이란? 이자율의 역 개념

즉, 이자율은 현재 100만원이 내년엔 100만원 + 이자 10만원
이 되는 것의 가치를 알려주는 개념이라면

할인율이란 내년 110만원이 현재 100만원 가치가 됨을 알려 줌.

금리(이자율) 10%		할인율 10%		
올해	내년 가치	현재 가치		내년
100만원	⇒ 110만원	100만원	←	110만원

Q2. 왜 할인율 개념 필요?

A2. 채권을 만기 전에 현금으로 사고 팔려면,
가격책정이 되어야 하고,
채권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이니,
미래 X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함.

관련하여 가장 결정적 연계지문을 다음에 씁니다.

지문에 대한 해설/풀이는 시준2~3에 진행합니다.

이유는 우선 틀을 잡아야하는 것들이 더 크게 많기 때문!

2011수능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 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엔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 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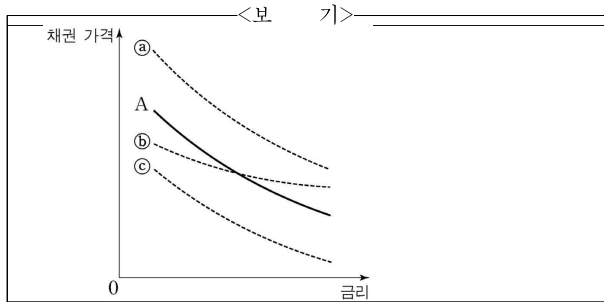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 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44.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 ③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를 들고 있다.

45.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 ② 채권의 순수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 ③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 ④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 ⑤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 높다.

46. <보기>의 A는 어떤 채권의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 글의 ㉠과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 | | | |
|---|---|---|
| | ㉠ | ㉡ |
| ① | a | c |
| ② | b | a |
| ③ | b | c |
| ④ | c | a |
| ⑤ | c | b |

2. 주식회사.주식(2019년 시행, 2020학년도 3월 학평)

3. 옵션 (2011수능)

4. 자본주의(2019년 시행, 2020학년도 3월 학평)

- 주식회사 : 자본주의에서 경제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형태의 법적 인격을 가지고,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

쉽게 말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 경제 주체 : 가계, 정부, 기업

- 옵션 : 어떤 조건에 따라 행사할 권리 = 가격이 책정되어 있음. 예를들면, 3년 뒤에 주식을 1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

2006수능 언어영역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가령,

[A]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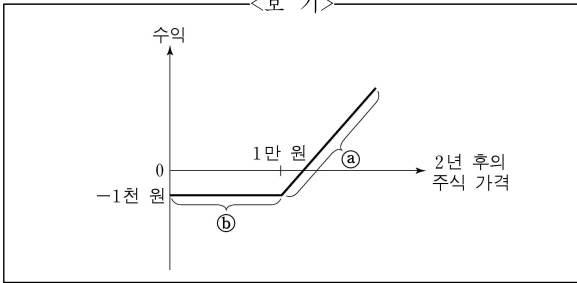
5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주식 옵션은 매매될 수 없다.
- ② 옵션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다.
- ③ 옵션의 행사 가격은 행사 시기에 가서 정해진다.
- ④ 주식 이외의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은 없다.
- ⑤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을 행사한 후에 얻게 되는 이득이다.

53.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압착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 ② 압착기를 빌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 ③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 ④ 압착기 임대 계약금을 돌려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 ⑤ 압착기의 임대료가 계약한 수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54.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 준다.
- ② b는 주식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손실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③ b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구입한 주식 옵션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 ④ a가 세로축의 0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⑤ a와 b의 모양이 다른 것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55. ㉠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경영자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도록
- ② 경영자가 주식 가격의 상승을 추구하도록
- ③ 경영자가 덜 위험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 ④ 경영자가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도록
- ⑤ 경영자가 사회 공익을 추구하도록

2019년 시행 3월 학평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식회사는 오늘날 회사 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은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 조성된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금을 정관의 기재 사항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수권주식총수를 정관에 기재하게 하여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권주식총수만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로, 수권주식총수를 통해 자본금의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권주식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되는데,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지, 그 출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이 몇 주인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총합이 바로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된다. 회사가 수권주식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추후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되는데, 1주의 액면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주식회사가 액면가액을 표시한 액면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은 그 금액이 균일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주식의 총액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과 같다.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면서 회사에 대해 유한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주의 유한책임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가중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말미암아 자본 조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금이 큰 회사이지만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에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고도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파산이나 부도 등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대한 법 규정에서는 자본금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① 자본 유지의 원칙은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본금에 해당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만일 여러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 회사는 부실화되고 외부의 위험에도 취약해진다. ②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③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반면에 자본금의 감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을 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만 이행해야 하는 강행법으로 하고, 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정관의 변동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주식회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 정관 :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 기록한 문서.

22.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액면주식 1주는 둘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 ②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가진다.
- ③ 주주는 소유한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익을 배당받는다.
- ④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 ⑤ 주식회사의 정관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23. <보기>는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정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만 주로 한다.
 제6조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천 원으로 한다.
 제7조 당 회사는 설립 시에 5천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 ①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주식총수는 1만 주이며 수권자본금은 5천만 원이다.
- ② 갑이 주식 1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의 제7조를 수정해도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하다.
- ③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식 1만 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 ④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은 2천5백만 원이다.
- ⑤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이 회사의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 회사는 설립 시에 액면가액 5천 원의 주식을 1백만 주 발행하였고 홍길동은 이 주식의 80%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 이후 A 회사는 B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25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B 회사는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15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후 C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를 액면가액으로 사들였다. A, B, C 회사는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여 자본금에 관한 원칙을 위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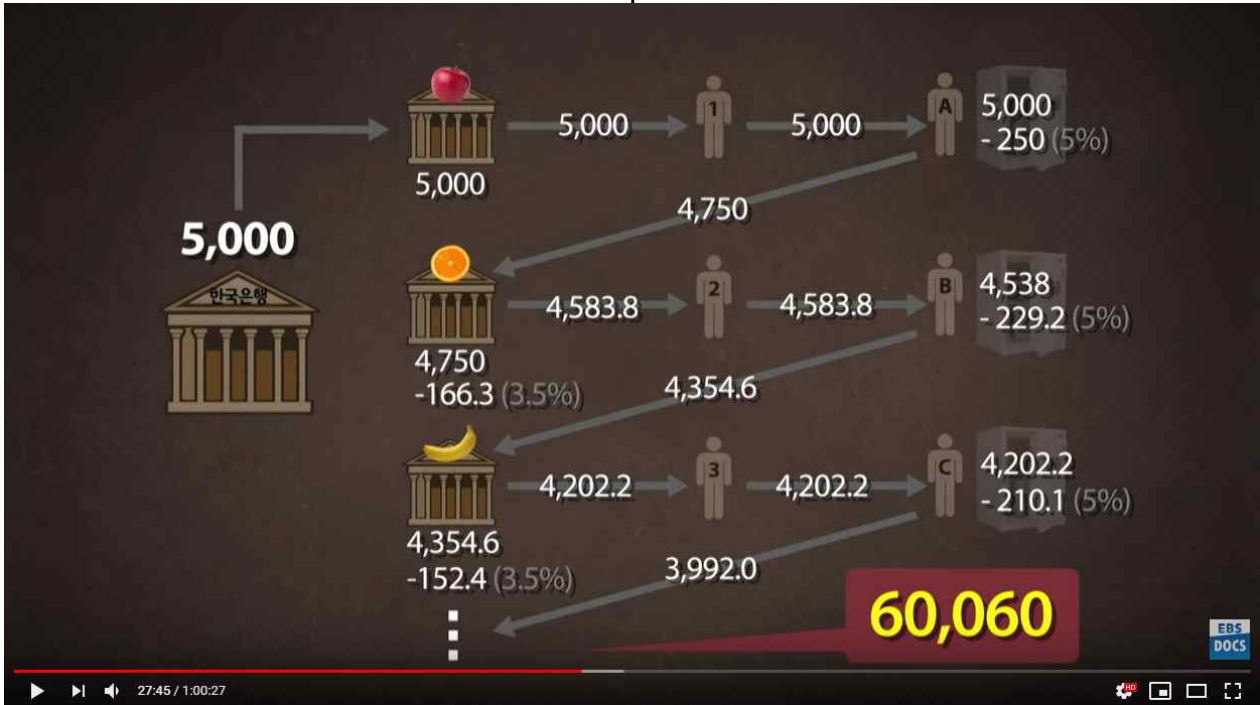
- ① A 회사가 파산한다면 C 회사의 이해 관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군.
- ② B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A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겠군.
- ③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 회사와 C 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
- ④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 회사가 인수하였다더라도 C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겠군.
- ⑤ A, B, C 회사에 출자된 실제 자본금은 90억 원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난 A, B, 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과 동일하겠군.

25.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목적은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 ② ㉡을 통해 소액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은 자본금 감소를 엄격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 ④ ㉠, ㉡은 모두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자금 운용 내역을 알 수 있게 한다.
- ⑤ ㉠, ㉡은 모두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주식 양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26.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우리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갔다.
- ② 돌맹이가 발길에 자꾸 거쳐 다니기가 불편하다.
- ③ 그는 매일 아침 학교 앞 사거리로 거쳐서 회사로 간다.
- ④ 그 일들은 우리가 합의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것이다.
- ⑤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마음에 거칠 것이 없어졌다.



18)

자본주의, 순환출자 지문
(2019년 시행, 2020학년도 3월 학평)

- 금융 : 은행
- 금융 자본주의 : 은행에 의한 자본 주의
- 자본주의 : 생산 수단을 자본이 소유
- 공산주의 : 생산 수단을 공동 소유

- 금융 자본주의의 시작 : 은행의 시작
- 과거의 은행 Banco = 금 보관소
- 과거의 은행은 화폐였던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발행해 주는 곳 이었음.
- 물론 예금이나 대출의 업무도 진행

특히, 십자군 전쟁등으로 막대한 전쟁자금 필요하자 타인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을 허락하던 구약 성경 이자 자체가 시간의 개념 = 신의 영역 = 허락하지 않던 신약. 따라서, 구약 성경을 믿던, 유대인이 은행업을 종사함.

18) https://www.youtube.com/watch?v=0LYMTsj_egc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1부 돈은 빛이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초기의 은행 = 단순한 금 보관. 보관증 제공

이후,
 보관증이 화폐 역할

보관증, 즉 금을 대신하는 화폐가

1차적인 경제 활성화 역할

= 금을 직접 들고다니기도 어렵고, 물물 교환으로는 할 수 없는 수준의 교역 가능

이후,
 금을 맡기고 찾아가는 비율이 1~2%수준임을 발견.

특이 하게 많아 봐야 5% 수준임

은행에서는

바꾸어 줄 금이 없음에도 보관증을 발행 시작
 결국, 세상에 없던 부가 창출 = 투자/소비 폭증

2차적인 경제 활성화 역할

여기에 더해,
 금이 들어오는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업을 진행,
 대출업에 의한 승수효과로
 세상에 없던 부가 추가적으로 창출 = 투자/소비 폭증

3]자적인 경제 활성화 역할

즉

1. 금 = 보관증 발행 = 화폐
2. 금이 근거가 되지 않는 보관증 발행 = 부의 창출
3.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 = 부의 창출

위의 캡처와 같은 상황 벌어짐.

즉, 5000원이 들어오면, 세상에는 60060원이 생겨남.

하지만 동시에 문제도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Bank run

즉,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보관증에 대한 충분한 금이 은행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간다

라고해서

Bank run 발생

해법은

은행에서 충분한 지급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2020-6월 지급준비제도 2020-수능 BIS 지문입니다.

문제는,

그 실상을 정부가 파악해보니,

당연히 어마 어마 합니다.

예를 들면

금은 100만큼 들어왔는데

찾아가는 것은 많아야 5 정도이니,

금 보관증을 20배 만들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실제 금은 100

민간은행이 만들어 유통된 금 보관증은 2000

문제는 그 2000 중에 많아야 100을 돌려줄 수 있으니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들면

결국 나머지 1900에 해당하는 지폐는 그냥 종이.

경제 규모가 1/20이 됩니다.

이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난리가 났고,

결국, 화폐를 정부가 보증해주는 구조로 갑니다.

가지고 있는 화폐를 정부가 보증할테니 정부를 믿고 화폐 기능을 하도록 하여, 일단의 경제 문제는 해결합니다.

동시에

기존 문제

1. 금 = 보관증 발행 = 화폐 => 정부만 발행
2. 금이 근거가 되지 않는 보관증 발행 = 부의 창출

해법

=> 정부만 화폐 발행으로 통제

기존문제

3.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 = 부의 창출

해법

=> 예금을 찾을 때를 대비하여 지급 준비를 시킴 (BIS 비율 = 지급준비율)

처음에는 금본위제

즉, 1달러 = 1달러에 해당하는 금 보관증

을 국가가 보증했지만

미국은 베트남전을 겪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결국 화폐는 정부가 신용보증을 해주는 화폐로만 존재합니다.

더 이상 화폐는 금으로 바꿀 수 없는 시대가 오지만,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여기 까지가 전통적 통화-경제 정책

하지만, 이런 자본주의 속성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방법이 있으니

바로 순환출자. 2020학년도 3월 학평(2019년 시행)

	A사	B사	C사	D사	E사	다시 A에게
현금	100	100	180	350	600	1000
투자 받은 인정 자산 OR 은행 담보 자산 가치		100	180	350	600	
위의 금액 근거 은행은 대출 해줌						
대출		80	170	250	400	
대출 이후 현금 보유		180	350	600	1000	
투자	100	180	350	600	1000	
잔액	0	0	0	0	0	1000

위의 내용이 바로 순환출자입니다.

A사는 최초 100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액 투자하여 B사를 만듭니다.

B사는 100억의 자산이 생깁니다.

B사는 자신의 100억 자산 근거로 은행에게 80억 대출 받습니다

그렇게 현금 180억이 되면

다시 그것을 또

C사에 투자하여 C사는 180억의 현금 보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70억 대출

결국 현금 보유는 350억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D사에 투자

D사의 현금 350억, 이것을 담보로 250억 대출

결국 600억 현금

다시 또 E에 투자

E사 현금 600억, 이것을 담보로 다시 400억 대출

결국 1000억

이것을 다시 A사에 보내면?

네.

100억으로 10배인 1000억이 똑딱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한다면, 1000을 1조로

1조를 10조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지고

실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의 미국/일본 금리는 2%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우리나라 금리는 4~6%

태국의 금리는 6~8%

미국/일본에서 2%에 빌려와서

당장 우리나라 기업에 4~6% 이자만 받고 대출해줘도

앞아서 2% 예금/대출 마진/수익이 남습니다.

100조 빌려주면 앞아서 2조가 남습니다.

마찬가지

태국에 빌려주면 6~8%이자를 받으니

100조 빌려주면 앞아서 4~6조가 남습니다.

네... 위기가 보이시죠?

물론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좋고, 성장성도 좋을 때라서, 4%의 이자를 무리 없이 내면서도 기업이 성장합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태국에 빌려준 대출의 부도가 발생합니다.

이를 감지한 일본/미국의 금융회사들은

한국의 금융회사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속된 이자/원금을 갚아왔고,

그것이 신용이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락해주는 관례가 있었으나,

의도였든 아니든 일본/미국 금융회사들은 한국 은행에 빌려준 채무에 대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한국 기업에 해준 대출금 회수를 무리하게 진행했고,

100억 자산으로

1조를 만든 수 많은 대기업에게 무리한 대출 상황을 강제하게 되고,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수 많은 대기업이 문을 닫습니다.

그것이 IMF

대한민국 건국 이후

1.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쟁
2. 1997년 외환위기

이렇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6.25는 물리적 전쟁이지만

IMF는 경제적 전쟁

30대 그룹의 11개 그룹이 도산, 사라졌고

8개 그룹 역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즉, 70%가 날아갔습니다. 실제 주가 역시.

하루 걸려서 재벌 기업의 도산 소식 = 납품 중소기업은 대금 지급 못 받음 =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실직 = 나라 경제 폭망



사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을 사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이것을 온전히 겪었고,
우리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며, 진정한 헬조선이 열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imf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대자본으로 대변되는 국제적 금융회사들의 전략
'충격과 공포를 통한 양털 깎기'

즉, 충격과 공포를 줘서

1. 경제 지표 흔들기
 2. 심리적 공포
 3. 적당한 시장 개입으로 자산 가치 폭락 유도
- 이후 저점 매수 후 고점 매도.

사실상,
중산층의 노력과 노동으로 축적한 부를
위와 같은 전략으로 털어가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좌파 우파 욕할 것 없습니다.
우파시절은 우파시절대로 좌파시절은 좌파시절대로
나름대로 다들 해먹었습니다.

투표는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투표한다고 달라질 것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배우고
우리 스스로 익히고 판단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자력 대비

그리고
드디어 우리 스스로 힘을 갖추었을 때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양아치들이 약한 애들 뺨뺨고 괴롭힐 때,
싸움도 못하는 내가 내서봐야 맞고 조롱만 당합니다.

내가 힘을 길러서
양아치들 죽빵 날릴 수 있을 때,
그 때 나서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힘을 기르세요.

- 고대라면 무력이
중세라면 신분이
근대라면 능력이
현대 이 시대에는,
1. 자본과
 2. 기술
 3. 그리고 여러분의 정보처리능력과 판단력이 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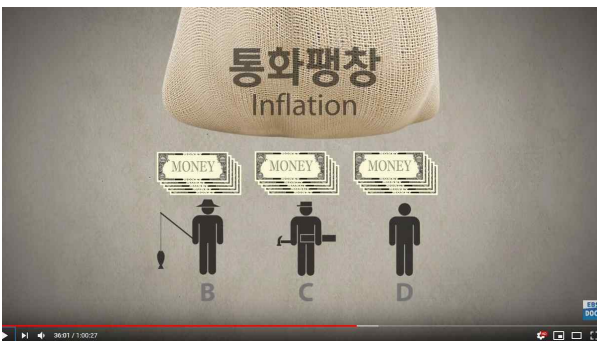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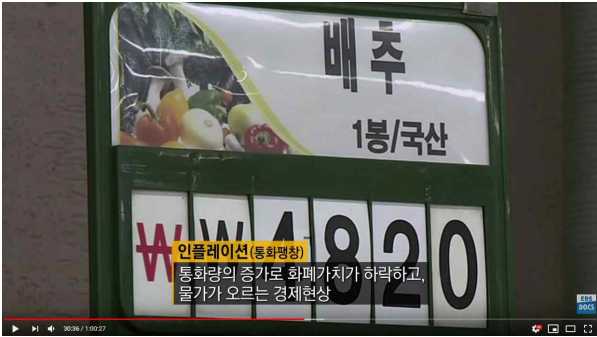
어차피 지금의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
약육강식 논리의 일부입니다.

힘 없는 자의 정의. 목소리. 무시당합니다.
힘 있는 자의 정의. 목소리. 인정받습니다.
억울해하고, 분함을 느껴봐야, 내 인생만 힘듭니다.

정의를 말하고 싶으면, 그 정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힘을 만들었으면 정의 편에 서세요.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비극의 시작
IMF
하지만, 분명히 이 위기는 또 옵니다.
그것이
2008 리먼사태 -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의 2020년 코로나 사태

6. 인플레이션 - 경기 성장과 후퇴



인플레이션 = 통화팽창

발생이유?

은행의 존재 때문

두 번째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 A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 2. B라는 사람이 A은행에 100원을 맡깁니다.
- 3. B가 다시 그 100원을 찾습니다

이러면 통화팽창, 인플레이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 1. A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 2. B라는 사람이 A은행에 100원을 맡깁니다.
- 3. B는 100원 중 많아야 5원 정도만 찾습니다
- 4. A은행은 5원만 B가 돈을 찾을 경우 지급 준비를 위해 남기고 95원을 C에게 대출해줍니다. 동시에 대출에 대한 이자로 5원을 내놓으라고 하죠.

여기서 무조건 통화팽창이 발생합니다.

즉!

현재 존재하는 부는 B의 부, B가 A에 맡긴 100원이 전부인데 이미 A은행에 5원, 그리고 C에게 대출금 95원.

그런데,

C는 무조건 이자 5원을 더 만들어서 갚아야 합니다.

100밖에 없는 세상에

105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B는 빌린 95원에서 C라는 사람에게 95원을 주고

기계를 사서 물건을 팔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95원 원금 + 5원 이자를 벌여 갚으면 되니까요.

C는 받은 95원을 다시 은행 A에 맡깁니다.

은행은 이전에 지급 준비금 5원에

새로운 예금 95원이 들어와 100원이 됩니다.

다시 또 지급 준비할 돈 10원을 남기고

90원을 D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D는 90원의 돈이 생겨서 이제

5원 만큼의 B의 물품을 구매합니다.

B는 우선 이자 5원을 갚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결국, 100원밖에 없는 세상인데,

사람들은 빚 + 이자를 갚아야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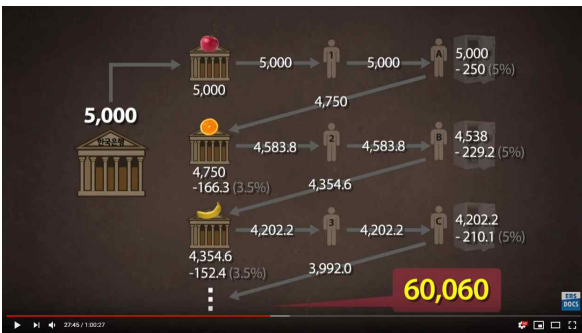
갚을 돈은 100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없던 돈이 생겼으니, 살 수 없던 물건을 살 수 있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즉, 소비 투자 활성화로,
수요 공급이 늘고
공급 설비 투자
이에 따른 수요 충족

동시에 100밖에 없던 곳에
은행의 대출로 인해 없던 부가 생겼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살 수 없던 것을 사고, 투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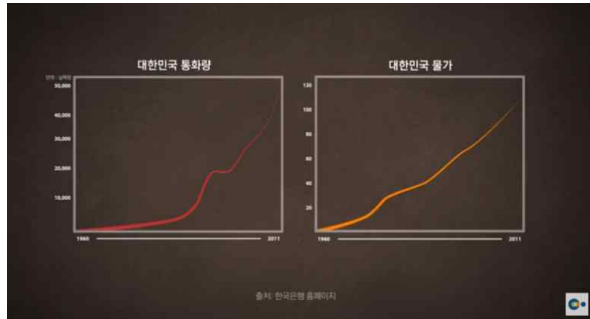


위의 그림과 같이
5000원이 지금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출/예금/대출/예금을
반복하다 보니... 60000원이 됩니다.

당연히 경기는 호황이 되고 사람들은 부자가 된 것 같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이 많아져서 구매력이 많아집니다.
세상에 50원 짜리 배가 2대에 없는데
배가 있어야 물고기를 잡아 돈을 벌 수 있는데
과거에는 100원 밖에 없으니 경쟁도 없지만
이제는 60000원이 있으니
서로 그 배를 사기 위해 경쟁합니다.
즉 통화량이 늘면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문제는.
물가가 오르면, 과거에 살 수 있던 생필품을 살 수 없게 된 가난
한 사람들의 삶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물건을 팔아야 이윤을 남기고, 원금과 이자를 갚습니다.

결국,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 소비를 충분히 못 하고,
결국 기업은 재고가 남고, 이윤이 충분하지 않고,
이윤이 없으니, 노동자를 해고하고,
해고된 노동자는 구매력이 없어지고,
결국 수요가 줄어드니 공급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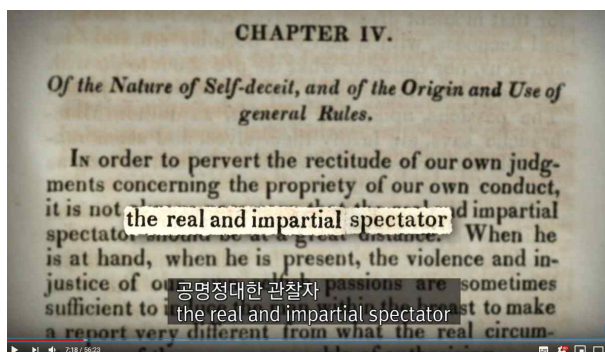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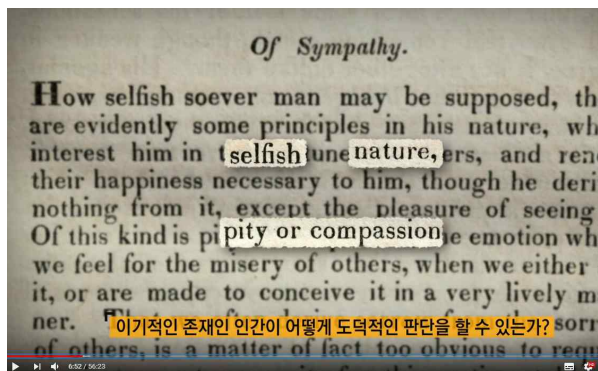
즉,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으로 진입합니다.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을 못 갚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받을 돈을 못 받으니,
쓸수도 없고,
또 갚을 돈이 있으니 있는 돈도 갚느라 없어지고,
부 자체가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생존이 어렵다?
어쩔 수 없이 정부를 비롯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시 시장에 통화량을 투입합니다.
투입된 통화량은 다시 부를 창출할테니까요.

결국 이렇게 경기는 상승과 하락국면을 갖습니다.
물론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과학 기술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부는 늘어나지만,
하지만 위와 같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의 상승/하락 국면이
반복됩니다.

7. 중앙은행의 등장

애덤스미스는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을 통해 우리의 경제활동의 근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양심적인 존재고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은 사실, '마음 속 공명정대한 관찰자' 즉 우리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의 활동을 합니다.

결국, 양심에 맞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활동은 당연히 사회적 부를 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양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자 없겠죠.

조두순, 조주빈. 없었을겁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도 존재합니다.

사이코 패스가 아니더라도.

양심을 속이는 일들도 있죠.

결국?

금융 자본주의로 시작해

산업혁명을 거치며

급격히 발달하던 그 당시 경제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비인간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는 물론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여러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

1907년으로 갑니다

미국에서는 그 당시 주가의 50%가 폭락하는 대공황이 옵니다.

이때 JP모건은

당시 유럽 금융을 꼭 잡고 있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본을 바탕으로 미국에서의 금융업을 성장시켰는데,

1907 대공황의 가장 큰 문제는 이율이 100%가까이 올랐고,

그에 따라 통화량 감소, 그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불가, 소비 불가가 이어집니다.

이에 JP모건은 주요 은행을 불러모아 개별 활동을 금한 뒤

10%이자에 대출을 진행해줍니다.

즉, 현재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덕분에, 돈이 유통되고, 다시 경기는 살아나게 됩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정부와 기업, 금융인들은 이제 중앙은행을 만들려 하는데...

상식적으로, 정부 소속이어야 하는 중앙은행이 미국을 비롯한 몇몇 주요 국가에서는 민간의 소유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거나, 여러분 대학 진학 후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본질, 원리, 원칙, 숨겨진 비밀입니다.

8. 중앙은행의 역할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경기를 진정시키기도 하고
경기를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부양	중앙은행(FRB)	채권 ← ⇒ 달러	정부
	시중은행	달러 ← ⇒ 채권	
정부가 시장의 채권 매입 결과 시장의 통화량 ↑ 채권 가격 ↑ 금리 ↓ (이 내용은 추후 EBS수특) ¹⁹⁾			
시중은행	C 금리 ↓ ⇔ E 신용/대출 ↑	가계/기업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임. 정부의 채권 구입으로 채권 가격 상승 / 금리 하락 또한, 정부가 채권 대신 돈을 시중은행에 시중은행에는 돈이 많고, 대출 여력이 생기고, 대출 줘야 수익이 나고, 대출 경쟁이 붙고, 결국 금리도 낮아짐 금리 낮으니 대출 더 쉬움			
가계/기업	C 소비/투자 ↑ ⇔ E 수요/공급 ↑ ⇒ 경기 활성화 / 구매력 증가 ⇒ 물가 상승 ²⁰⁾		
자본주의 : 자본이 생산수단 소유 생산 ↑ ⇔ 소득은 자본가에 집중 물가 ↑ ⇔ 비자본가의 실질소득은 감소 결국, 사회적 불만/문제 발생 과거 이를 방지 = 혁명 / 폭동 / 대공황등의 문제			

19) 채권 가격이 높아짐 = 채권 가치가 높아짐 = 채권에 이자를 많이 줄 필요 없음 = 금리 낮아짐
20) 통화량이 늘었고, 그래서 구입을 할 수는 있는데, 생산 설비는 수요를 따라오기 힘들. 따라서,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물가가 오르게 됨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를 진정시켜 물가를 낮추려 합니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진정	중앙은행(FRB)	달러 ← ⇒ 채권	정부
	시중은행	채권 ← ⇒ 달러	
정부가 시장의 채권 매도 결과 시장의 통화량 ↓ 채권 가격 ↓ 금리 ↑ (이 내용은 추후 EBS수특)			
시중은행	C 금리 ↑ ⇔ E 신용/대출 ↓	가계/기업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임. 정부의 채권 판매으로 채권 가격 하락 / 금리 상승 또한, 정부가 돈 대신 채권을 시중은행에 시중은행에는 돈이 없고, 대출 여력이 없고, 대출 수요는 많고, 결국, 금리 높아짐 금리 높으니 대출 더 어려움			
가계/기업	C 소비/투자 ↓ ⇔ E 수요/공급 ↓ ⇒ 경기 안정 / 구매력 감소 ⇒ 물가 하락/진정		
자본주의 : 자본이 생산수단 소유 생산 ↓ ⇔ 자본가가 어려움/유지 물가 ↓ ⇔ 비자본가의 실질소득은 증가/유지 기존에 발생한 사회적 불만/문제 해소 방지 = 혁명 / 폭동 / 대공황등의 문제 해소. 하지만 자본가가 수익을 얻기 힘들다 = 자본생산성이 낮아짐 = 사회에 창출하는 부가 줄어들 = 이것이 심해지면 = 디플레이 = 부의 축소가 일어날 수 있음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경기 부양으로 갑니다.

이 내용에 관련된 지문 이어서 봅니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 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

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엄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22. 윗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②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③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24.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② ㉡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③ ㉠에서는 ㉡과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⑤ ㉡에서는 ㉠과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25.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의 노력으로 소비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 ② ㉡: 의병 활동은 민중의 애국 애족 의식이 발현한 것이다.
- ③ ㉢: 이 질병은 구토와 두통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 ④ ㉠: 기온과 습도가 높은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⑤ ㉢: 장남인 그가 늙으신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

9. 중앙은행의 역할의 한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IMF - 환율 급등 2018학년도 수능****CDS P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시초****리먼이 부도낸 파생상품 (채권 보험) 2019학년도 9월 평가원****10. 중앙은행의 역할의 한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방법****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정책과 한계****2020학년도 6월 평가원****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시도 - 양적완화****2019년 발행 수특 (2020학년도 연계)**

이제, 앞서 배운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원의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현 시점.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을 학생들에게 갖게 하려는 의도.

2018학년도 수능은

IMF 시절 있었던 환율의 오버슈팅을

경제 기출 흐름을 통해 다루고

2019학년도 9월은

포석으로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뇌관이었던

리먼 브러더스의 파생상품, 즉 채권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

이후

2019년 발행 / 2020학년도 수능 연계 EBS 수특 교재에서

Q.E 양적완화와

2019년 시행 3월 학평 / 2020학년도 3월 학평에서

주식회사 - 순환출자로

자본주의 원리 세팅 후

2020학년도 6월 평가원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문을 출제합니다.

모두 순서대로 한 번 보고,

이후 하나 하나 지문을 다시 정리/해설진행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 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

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엄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22. 윗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②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③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24.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② ㉡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③ ㉠에서는 ㉡과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⑤ ㉡에서는 ㉠과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25.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의 노력으로 소비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 ② ㉡: 의병 활동은 민중의 애국 애족 의식이 발현한 것이다.
- ③ ㉢: 이 질병은 구토와 두통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 ④ ㉠: 기온과 습도가 높은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⑤ ㉢: 장남인 그가 늙으신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㉗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정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 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㉘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㉙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㉚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㉛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㉜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㉝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㉞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㉟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27.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 ②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28. ㉔를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 ③ 문화제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 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29. 밑줄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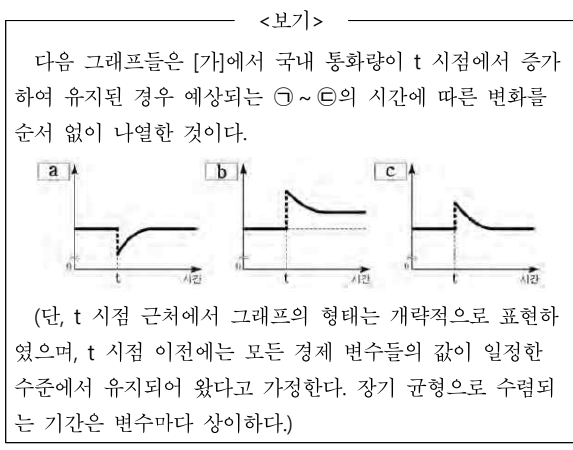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 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0.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 b, c는 [가]의 ㉠~㉣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①	a	c	b
②	b	a	c
③	b	c	a
④	c	a	b
⑤	c	b	a

31.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 ③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2. 문맥상 ㉠~㉣과 바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동떨어져
- ② ㉡ : 드러낼
- ③ ㉢ : 불러온다
- ④ ㉣ : 되돌아오면서
- ⑤ ㉤ : 피하는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 '나 '+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A] 가령 은행 ㉠같은, 기업 ㉡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별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 이 발행한 채권이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 ②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 ③ 신용 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 ④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 ⑤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된다.
22. [A]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 ②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 ④ ㉢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 ⑤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다.

23. <보기>의 ㉠~㉣ 중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보기>

윗글의 ㉠과 ㉣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 ㉡~㉢를 비교하여 CDS 프리미엄의 크기에 순서를 매길 수 있다. (단, 기초 자산의 발행자와 보장 매도자는 한국 기업이며, ㉡~㉣에서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CDS 거래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
㉠	BB+	AAA
㉡	BB+	AA-
㉢	BBB-	A-
㉣	BBB-	AA-
㉤	BBB-	A+

- ① ㉠ ② ㉡ ③ ㉢ ④ ㉣ ⑤ ㉤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 발행 즉시 Bx 전량을 매입한 Y는 Bx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보장 매입자가 되었다.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였다.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로 변경되었다. 2013년 10월 2일, Bx의 CDS 프리미엄은 100bp*였다. (단, X, Y, Z는 모두 한국 기업이며 신용 등급은 매월 말일에 변경될 수 있다. 이 CDS 계약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매월 1일에 갱신되며 CDS 프리미엄은 매월 1일에 변경될 수 있다.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요인에는 변화가 없다.)

*bp: 1bp는 0.01%와 같음.

- ① 2011년 1월에는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겠군.
- ② 2011년 11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 ③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군.
- ④ 2013년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군.
- ⑤ 2013년 4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25.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 ② 과자 한 봉지를 팔면 내게 100원이 떨어진다.
- ③ 더위를 먹었는지 입맛이 떨어지고 기온이 없다.
- ④ 신발이 떨어져서 걸을 때마다 빗물이 스며든다.
- ⑤ 선생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두 자리에 앉았다.

2019년 ebs 수능특강 양적완화 경제지문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특정한 단기 금리를 정책 금리*로 정하고 이를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확대하여 소비 및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리 중시 통화 정책이었다. 정책 금리를 낮춰 시장 금리*도 낮아지면 기업은 낮은 이자로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와 생산을 늘리게 된다. 가계 역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통해 소비를 늘릴 여력이 발생한다. 투자와 소비가 늘면 고용과 생산이 증가하고, 다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면서 경제 전체가 선순환을 그리게 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정책 금리를 낮추었지만,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유동성의 함정 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국채* 투자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자.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그 채권의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며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채권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높은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비싸진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채권 매입과 같은 투자를 기피하고, 위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비도 위축되면서 시중에 돈이 충분하게 공급되어도 돈을 그냥 쌓아 두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양적 완화라 한다.

양적 완화는 금리 조정만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없을 때, 신용 완화나 국가의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더욱 확대하는 정책이다. 적극적인 통화 공급을 하기 때문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행위로 비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우선 ‘신용 완화 정책’으로, 이는 은행의 대출 등 신용 공급을 확대하고, 부실한 은행이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버냉키식 양적 완화 정책’은 초저금리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국채 등의 안전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이 줄어들면서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통화량은 늘어난다. 따라서 금리 하락이 유도되면서 가계, 기업 및 금융 기관 등이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을 낮춰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명시적 통화 재정책’이 있다. 이는 극심한 유효 수요 부족시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아닌 중앙은행이 가진 화폐 발행 권한을 통해 상환 부담 없는 통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정 지출과 같이 정부의 재정 적자*는 발생하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어 공공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인 양적 완화 방식과 달리 정부의 재정 적자는 발생하지만 상환 부담이 없어 시중의 통화량 증대가 영구적이라 특징도 있다.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한 ‘질적 완화 정책’도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달리 중앙은행 자산의 질적인 구성 변화를 통해 금융 안정을 가져오려 하는 방식이다. 즉 중앙은행의 자산이나 부채 규모에는 변동이 없지만 위험도가 낮은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 대신 위험도가 높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신용 완화 정책’과 달리 ‘질적 완화 정책’은 부실 자산이 아닌 투자 수익률이 불확정적인 위험 자산을 매입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적 완화 정책은 경기 부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의 위험 요소들을 대신 책임지는 부분을 통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이 목표했던 수준을 넘어선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적 완화로부터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회귀하는 출구 전략을 시행할 때에는 그 시기와 방법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정책 금리: 중앙은행이 금융 기관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

* 시장 금리: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

* 국채: 국가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신용으로 설정하는 금전상의 채무를 표시하는 채권.

* 유효 수요: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수요.

* 재정 적자: 한 해 정부의 지출 규모가 세금 수입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적자로 누적액이 아닌 일정 기간의 적자.

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기 침체 과정에 따른 시기별 통화 정책을 설명하고, 각 정책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경기 침체 발생 과정을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특정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정책의 시행 방법과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④ 경기 침체와 정책 금리의 관계를 고찰하고, 자산 매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대비되는 정책의 발전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경기 침체의 원인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특정 정책의 시행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책 금리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 ② 채권이 비싸지면 채권 수익률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인해 채권 투자가 늘어난다.
- ③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유효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 ④ ‘버냉키식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은행 외의 금융 기관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행 된다.
- ⑤ 양적 완화 정책은 정책의 목표 수준을 넘어선 물가 상승이나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국은 경기가 침체되자 우선 정책 금리를 낮추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금리가 하한에 도달하였지만 시장에 유동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A국의 중앙은행은 대출 기준 완화와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는 정책과 더불어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였다. 더불어 민간 은행의 부실한 채권을 특정하여 매입함으로써 금융 심리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책의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서, A국의 중앙은행은 저금리 정책에서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 ① A국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먼저 시행하였군.
- ② A국의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인 ‘신용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군.
- ③ A국의 중앙은행은 가계, 기업 및 금융 기관 등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고자 하였군.
- ④ A국의 중앙은행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여 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군.
- ⑤ A국의 정책 금리가 하한에 도달하였을 때, 신규 채권 가격은 정책 금리를 낮추기 전보다 상승했겠군.

4.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모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한다.
- ② ㉠~㉣은 모두 유효 수요 감소를 위한 것이다.
- ③ ㉠과 달리 ㉡은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 ④ ㉠과 달리 ㉢은 통화량의 증가가 영구적이다.
- ⑤ ㉠과 달리 ㉣은 공공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

5. 유동성의 함정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간에 화폐 공급량이 충분하게 되지 않아 수요가 부족하게 나타난 것이다.
- ② 낮은 금리하에서 저축 대신 대출이 급증하면서 민간 신용에 위기가 나타난 것이다.
- ③ 시장에 통화량을 공급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낮추었지만 시장 금리가 이에 역행하여 나타난 것이다.
- ④ 경기 회복을 위해 시중에 통화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 ⑤ 낮아진 금리 부담으로 인하여 민간의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위축되어 그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③ / ⑤ / ④ / ⑤ / ④

2019년 시행 3월 학평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식회사는 오늘날 회사 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은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
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식 발
행을 통해 조성된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금을 정관의 기재
사항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수권주식총수를 정관에 기
재하게 하여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권주
식총수만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로, 수권주식총수를 통해 자본금
의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권주식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되는데, 발행하는 주
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출자
자를 누구로 하는지, 그 출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이 몇 주인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
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총합이 바로 주식회사의 자
본금이 된다. 회사가 수권주식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
식은 추후 이사회 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
가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
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되는데, 1주의 액면주식은 둘 이상으
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주식회사가 액면가액을 표시
한 액면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은 그 금액이 균일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주
식의 총액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
한 금액의 총합과 같다.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
율에 따라 이익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면서 회사에 대해 유한책임
을 진다. 유한책임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주의
유한책임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가중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말미
암아 자본 조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경
우도 있다. 자본금이 큰 회사이지만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에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신용도
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도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의 손해
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파산이나 부도 등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대한 법 규정에서
는 자본금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 유지의
원칙은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본금
에 해당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본 총
실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만일 여러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
는데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 회사는 부실화되고 외부의
위험에도 취약해진다.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
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 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반면에 자본금의 감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을 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만 이행해야 하는 강행법으로 하고, 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정관의 변동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주식회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 정관 :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 기록한 문서.

22.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액면주식 1주는 둘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②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가진다.
③ 주주는 소유한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익을 배당
받는다.
④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⑤ 주식회사의 정관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23. <보기>는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정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만 주로 한다.
 제6조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천 원으로 한다.
 제7조 당 회사는 설립 시에 5천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 ①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주식총수는 1만 주이며 수권자본금은 5천만 원이다.
- ② 갑이 주식 1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의 제7조를 수정해도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하다.
- ③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식 1만 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 ④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은 2천5백만 원이다.
- ⑤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이 회사의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 회사는 설립 시에 액면가액 5천 원의 주식을 1백만 주 발행하였고 홍길동은 이 주식의 80%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 이후 A 회사는 B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25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B 회사는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15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후 C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를 액면가액으로 사들였다. A, B, C 회사는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여 자본금에 관한 원칙을 위배했다.

- ① A 회사가 파산한다면 C 회사의 이해 관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군.
- ② B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A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겠군.
- ③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 회사와 C 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
- ④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 회사가 인수하였다더라도 C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겠군.
- ⑤ A, B, C 회사에 출자된 실제 자본금은 90억 원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난 A, B, 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과 동일하겠군.

25.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목적은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 ② ㉡을 통해 소액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은 자본금 감소를 엄격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 ④ ㉠, ㉡은 모두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자금 운용 내역을 알 수 있게 한다.
- ⑤ ㉠, ㉡은 모두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주식 양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26.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우리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갔다.
- ② 돌맹이가 발길에 자꾸 거쳐 다니기가 불편하다.
- ③ 그는 매일 아침 학교 앞 사거리로 거쳐서 회사로 간다.
- ④ 그 일들은 우리가 합의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것이다.
- ⑤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마음에 거칠 것이 없어졌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 ㉡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A)일 때 (B)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C)하도록 하고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 | | A | B | C | D |
|---|----|----|----|----|
| ① | 불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② | 호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③ | 불황 | 거시 | 적립 | 미시 |
| ④ | 호황 | 미시 | 적립 | 거시 |
| ⑤ | 불황 | 미시 | 사용 | 거시 |

30.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든다.
- ②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다.
- ③ 그분은 이미 대가의 경지에 든 학자이다.
- ④ 하반기에 들자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 ⑤ 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로 했다.

2020학년도 수능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BIS 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x 100 >=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제는 0%, 회사채는 100%가 확립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제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비율이 1)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2)받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3)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4)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5)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 37. 위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2)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3)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4)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5)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38. 위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3)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4)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5)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39.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40. 밑줄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41.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② ㉡ : 8%가 넘도록
- ③ ㉢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④ ㉣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지문 해설 이어서 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 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

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엄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22. 윗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②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③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24.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② ㉡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③ ㉠에서는 ㉡과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⑤ ㉡에서는 ㉠과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25.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의 노력으로 소비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 ② ㉡: 의병 활동은 민중의 애국 애족 의식이 발현한 것이다.
- ③ ㉠: 이 질병은 구토와 두통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 ④ ㉠: 기온과 습도가 높은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⑤ ㉡: 장남인 그가 늙으신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출 연계 배경지식

어휘력

어휘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 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 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는 반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조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

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엄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주제+전개방식

22. 뒷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2.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3.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4.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5.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단락 소주제

1단락 구조

1단락 소주제

3단락 소주제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 1. 단락 원리,인과
- 2. 선제성 1개 분기
- 3. 유지

주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24.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② ㉡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③ ㉠에서는 ㉡과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⑤ ㉡에서는 ㉠과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25.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의 노력으로 소비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 ② ㉡:의병 활동은 민중의 애국 애족 의식이 발현한 것이다.
- ③ ㉢:이 질병은 구토와 두통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 ④ ㉠:기온과 습도가 높은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⑤:장남인 그가 늙으신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 평가원 수능 국어 '경제' 지문의 호시(嚆矢)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p>1 경제 '원리'</p> <p>통화정책 - 통화정책 수단 - 공개시장운영 - 중앙은행 ↔ 민간은행 중앙은행 채권 매수 ⇒ 이자율↓ ⇒ 소비/투자↑ ⇒ 경기↑ ⇒ 물가↑</p> <p>중앙은행 채권 매도 ⇒ 이자율↑ ⇒ 소비/투자↓ ⇒ 경기↓ ⇒ 물가↓</p>	<p>전형적인 최근 기출 구조와 흐름을 보여줍니다.</p> <p>1. 첫단락-두번째 단락 끝 부분 주제세팅 2. 이후 흐름 연결</p> <p>1단락 통화정책과 경기변동 이자율↑ = 물가↓ 이자율↓ = 물가↑</p>
<p>2 주제흐름 - 선제성</p> <p>통화정책의 요건 ① 선제성 ② 정책 신뢰성 C 정책외부사차 E.S 선제성(단어 뜻. 먼저 함)</p>	<p>2단락 통화정책의 요건 S.E 선제성 C 정책외부사차</p>
<p>3 주제흐름 - 정책신뢰성</p> <p>② 정책 신뢰성 : 준칙주의 준칙주의 vs 재량주의 역시 단어 뜻 그대로. 준칙 지켜 vs 재량껏 결과 좋든 나쁘든 원칙 지켜</p>	<p>3단락 통화정책의 요건 : 신뢰 - 준칙주의</p> <p>4단락 - 재량주의</p>
<p>4</p> <p>② 정책 신뢰성 : 재량주의 재량. 결과만 좋으면 신뢰.</p>	

1단락 통화정책-통화정책수단

2단락 통화정책요건-선제성/신뢰성

3단락 신뢰성-준칙주의

4단락 신뢰성-재량주의

흐름으로 구조는 매우 단순하며 깔끔합니다.

하지만 현 수능의 경제지문의 포석이 되는 기준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1. 구조적

2. 내용적

특징을 정확히 익혀 앞으로의 경제학 지문에 연결해야 합니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1단락에

채권매매에 따른 '공개시장운영'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국가에 따라서,

정부의 지시를 통해 중앙은행이 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중앙은행이 민간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정부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지문에는 중앙은행이 진행하고.

이 내용은 92페이지에 있는데, 뒤에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지는 2단락은 1단락의 내용을 그대로, 통화 정책으로 이어지며, 그 요건을 다룹니다.

선제성과 정책신뢰성.

사실 별 내용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어떤 정책이 바로 효과가 있진 않을 것이고 그것을 '시차'라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정책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 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

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①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②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신뢰성 역시 **상식+하향식** 바탕으로 봅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준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신뢰를 준다는 주장과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③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결과가 좋아야 신뢰를 한다는 재량주의 둘의 견해 차이. 끝.

다시 한 번 1단락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경기 부양	중앙은행(FRB)	채권 ← ⇨ 달러	정부
	시중은행	달러 ← ⇨ 채권	
	정부가 시장의 채권 매입 결과 시장의 통화량 ↑ 채권 가격 ↑ 금리 ↓ (이 내용은 추후 EBS수특)²¹⁾		
	시중은행	C 금리 ↓ ⇨ E 신용/대출 ↑	가계/기업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임. 정부의 채권 구입으로 채권 가격 상승 / 금리 하락 또한, 정부가 채권 대신 돈을 시중은행에 시중은행에는 돈이 많고, 대출 여력이 생기고, 대출 취약 수익이 나고, 대출 경쟁이 불고, 결국 금리도 낮아짐 금리 낮으니 대출 더 쉬움		
	가계/기업	C 소비/투자 ↑ ⇨ E 수요/공급 ↑ ⇨ 경기 활성화 / 구매력 증가 ⇨ 물가 상승²²⁾	
	자본주의 : 자본이 생산수단 소유 생산 ↑ ⇨ 소득은 자본가에 집중 물가 ↑ ⇨ 비자본가의 실질소득은 감소 결국, 사회적 불만/문제 발생 과거 이를 방지 = 혁명 / 폭동 / 대공황등의 문제		

21) 채권 가격이 높아짐 = 채권 가치가 높아짐 = 채권에 이자를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를 진정시켜 물가를 낮추려 합니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진정	중앙은행(FRB)	달러 ← ⇨ 채권	정부
	시중은행	채권 ← ⇨ 달러	
	정부가 시장의 채권 매도 결과 시장의 통화량 ↓ 채권 가격 ↓ 금리 ↑ (이 내용은 추후 EBS수특)		
	시중은행	C 금리 ↑ ⇨ E 신용/대출 ↓	가계/기업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임. 정부의 채권 판매으로 채권 가격 하락 / 금리 상승 또한, 정부가 돈 대신 채권을 시중은행에 시중은행에는 돈이 없고, 대출 여력이 없고, 대출 수요는 많고, 결국, 금리 높아짐 금리 높으니 대출 더 어려움		
	가계/기업	C 소비/투자 ↓ ⇨ E 수요/공급 ↓ ⇨ 경기 안정 / 구매력 감소 ⇨ 물가 하락/진정	
	자본주의 : 자본이 생산수단 소유 생산 ↓ ⇨ 자본가가 어려움/유지 물가 ↓ ⇨ 비자본가의 실질소득은 증가/유지 기존에 발생한 사회적 불만/문제 해소 방지 = 혁명 / 폭동 / 대공황등의 문제 해소. 하지만 자본가가 수익을 얻기 힘들다 = 자본생산성이 낮아짐 = 사회에 창출하는 부가 줄어들 = 이것이 심해지면 = 디플레이 = 부의 축소가 일어날 수 있음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경기 부양으로 갑니다.

22. 윗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통화정책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요건이 2가지 유형!

주제 잡으면 역시!

- ②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2단락 소주제!

- ③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1단락 소주제 + 구조

많이 줄 필요 없음 = 금리 낮아짐
22) 통화량이 늘었고, 그래서 구입을 할 수는 있는데, 생산 설비는 수요를 따라오기 힘들. 따라서,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물가가 오르게 됨

④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1단락 소주제!

⑤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3~4단락 소주제!

이제는 익숙한 주제 + 구조 유형입니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3가지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문 원리를 바탕으로 접근합니다.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병의 제안	2%	2% 유지	2% 유지
		물가1%↓	물가1%↓
원리 적용	금리1.5%↑	금리1.5%↑	

정리하면

1. 아래 내용 바탕 물가 낮추기 위해 이자를 올려야하고
2. 지문 근거, 금리를 1.5% 상승 - 물가 1% 하락
3. 1개분기 선제적
4. 1개분기 유지
5. 따라서 1/1에 금리 1.5%p 선제적으로 올리면
6. 4/1부터 물가는 1% 내리고, 그 효과는 1개 분기
7. 따라서, 4/1에도 금리 1.5%p 올리는 것 1개 분기 추가 유지
8. 결국 7/1에도 물가 1%내린 상태 1개 분기 유지

1단락
통화정책과 경기변동
이자율↑ = 물가↓
이자율↓ = 물가↑

2단락
통화정책의 요건
S.E 선제성
C 정책의부시차

3단락
통화정책의 요건 : 신뢰
- 준칙주의

4단락
- 제량주의

이런 원리 적용의 사고

정보 활용에 익숙해져야합니다.

더 이상 일치.단어 유무 확인 문제 아닙니다.

이제는 익숙한 주제 + 구조 유형입니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정답 5번 선지 끝.

24. 위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답 1번 끝.

3~4단락 소주제.

준칙주의 : 무슨 일이 있어도 준칙 지켜서 신뢰 줘라

재량주의 : 재량있게 해서 좋은 결과로 신뢰 줘라

- ② ㉡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열 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③ ㉠에서는 ㉡과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⑤ ㉡에서는 ㉠과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25.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의 노력으로 소비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 ② ㉡: 의병 활동은 민중의 애국 애족 의식이 발현한 것이다.
- ③ ㉢: 이 질병은 구토와 두통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 ④ ㉣: 기온과 습도가 높은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⑤ ㉤: 장남인 그가 늙으신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어지는 2018수능 봅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㉗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정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 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㉘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㉙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㉚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㉛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㉜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㉝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㉞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㉟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㊱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27.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 ②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28. ㉔를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 ③ 문화제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 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29. 밑줄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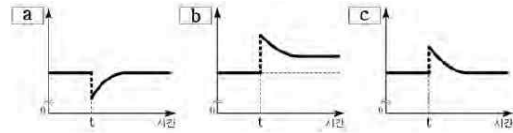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 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0.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 b, c는 [가]의 ㉠~㉣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다음 그래프들은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t 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 예상되는 ㉠~㉣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단, t 시점 근처에서 그래프의 형태는 개략적으로 표현하였으며, t 시점 이전에는 모든 경제 변수들의 값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고 가정한다.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기간은 변수마다 상이하다.)

- | | ㉠ | ㉡ | ㉢ |
|---|---|---|---|
| ⑥ | a | c | b |
| ⑦ | b | a | c |
| ⑧ | b | c | a |
| ⑨ | c | a | b |
| ⑩ | c | b | a |

31.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 ③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2. 문맥상 ㉠~㉣과 바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동떨어져
- ② ㉡ : 드러낼
- ③ ㉢ : 불러온다
- ④ ㉣ : 되돌아오면서
- ⑤ ㉤ : 피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보군집, 단독문항 28번

상식

P

어휘

C

장기 환율 원리 공식

단기 환율 원리 공식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1. 강제성, 2. 직접성, 3. 자동성, 4. 가시성의 ②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정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①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P 위험에 ②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E 현상을 P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①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②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③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④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정보군집 독립문항 31번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P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⑤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27.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없을 것이다.
- ②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발췌독

28. ㉠을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 ③ 문화제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29. 밑줄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기술 연계 배경지식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 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0.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 b, c는 [가]의 ㉠~㉣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다음 그래프들은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t 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 예상되는 ㉠~㉣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단, t 시점 근처에서 그래프의 형태는 개략적으로 표현하였으며, t 시점 이전에는 모든 경제 변수들의 값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고 가정한다.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기간은 변수마다 상이하다.)

	㉠	㉡	㉢
①	a	c	b
②	b	a	c
③	b	c	a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	c	a	b
⑤	c	b	a

지문 원리 선지

31.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정보 가치 가장 높음**
-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2. 문맥상 ㉠~㉣과 바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동떨어져
- ② ㉡ : 드러낼
- ③ ㉢ : 불러온다
- ④ ㉣ : 되돌아오면서
- ⑤ ㉤ : 피하는

통화정책 - 경제정책 - 오버슈팅에 적용
 평가원 기출, 경제지문의 흐름,
 경제학, 수학 공식, 원리, 이해 적용 필수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p>1 정보군집. 단독문항. 정책수단의 특성 1. 강제성 2. 직접성 3. 자동성 4. 가시성 28번 문항 발췌독 ㄱ</p>	<p>전형적인 최근 기출 구조와 흐름을 보여줍니다. 1. 정보군집 1단락. 5단락 2. P-C-S 흐름 3. 3단락 장기환율원리 4. 4단락 단기환율원리 5. 원리 이해 바탕 적용 6. 주제 집중 7. 구조 처리</p>
<p>2 P P 오버슈팅 C 물가경직성, 불안심리.</p>	<p>1단락 정책수단의 특성 정보군집 발췌독 필요 2단락 오버슈팅. 문제</p>
<p>3 C 장기환율↑ C 단기물가경직vs단기환율신축 장기환율 원리 장기환율 = 자국물가/외국물가 실질통화량 = 통화량/물가 *통화량↑ 물가↑ = 실통 유지 *자국물가↑/외국유지=장기↑</p>	<p>3단락 장기 환율원리. 상승 4단락 단기 환율원리</p>
<p>4 C 단기환율↑↑ 국내통화량↑ ⇨ C물가경직 E실질통화량↑ ⇨ 시장금리↓ ⇨기대수익률↓ ⇨ 외국 단기 투자 자금 유출 ⇨ 원화 매각, 달러 구입 ⇨ 원화공급↑, 달러수요↑ ⇨ 원화가치↓, 달러가치↑ ⇨ 과거 1000:1 ⇨ 2000:1 : 환율의 오버슈팅</p>	<p>5단락 정보군집. 하지만 주제, 구조 집중</p>
<p>5 S 독립정보군집 미세 조정 정책 수단 정보가치 높은 내용 집중</p>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통화정책의 기본.
 경제 정책의 원리/인과를 바탕으로
 그것을 적용합니다.
 환율의 폭등은 IMF때 있었던 현상으로 우리 경제에 큰 위기
 그리고 우리 가계를 비롯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시기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변화와 함께, 안정되어있던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하며, 때로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
 와 위기를 심어줍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물론 유교.
 조선후기의 문제
 일제 강점기의 문제
 광복 후의 문제
 6.25전쟁 후의 문제
 가난, 독재,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에 기인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적 문제의 근원은 IMF가 가장 큼니다.
 IMF에 관해서는 추후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평가원은
 2018수능 오버슈팅
 2020수능 BIS지문등으로 그 흐름을 잡고있습니다.

지문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②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에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정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사실 별 내용 없습니다.
 이미 수차례 연습된, 독립정보군집의 지문으로,
 1. 강제성
 2. 직접성
 3. 자동성
 4. 가시성 내용을
 5개 선지로 묻겠구나.
 발췌독 하면 뻔한 문제.
 2단락은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매뉴얼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례, 환율 변동 현상 원리 설명을 의도하는 지문인데 환율의 '폭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지문에서는

C1. 물가경직성

C2. 금융시장변동

E. C3. 심리

등의 원인이 되어

E 오버슈팅이 발생한다.

오버슈팅은 예상과는 다른 급등, 급락...

등등의 정보를 다 읽어와서 물어보는 선지들에 대응시키는 문제들이었지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단락의 정보군집, 단독문항으로 출제하는 수준이면.

또한 정보 유무 처리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이라, 더 심화해서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요즘 수능은,

그래서 이 2단락의 역할은, 글쓴이도는 등을 처리하고 판단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P 오버슈팅

C 여러 가지 이유

좀 더 자세히는 다음 단락에 나올테니, 그 인과와 원리를 이해 적용하는 문제로 이어지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E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우선 정보의 군집을 장기 vs 단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인과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좀 더 정보가 디테일해서, 실제 이해해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를 읽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력 평가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매력 평가설이 무엇이길래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집중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3 C 장기환율↑
C 단기물가경직vs단기환율신속
장기환율 원리
장기환율 = 자국물가/외국물가
실질통화량 = 통화량/물가

국내 통화량 증가/물가 증가 ⇨ 실질통화량 유지

자국물가 증가 / 외국물가 유지 ⇨ 장기환율 오름

문제는. 정보가 불충분합니다.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통화량이 국내 통화량인지, 외국통화량인지도 없고,

또한 물가가 국내 물가인지, 외국 물가인지도 없습니다.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매뉴얼

하지만 '국어 교육과에 기반한 국어 사고' '상식' '하향식' '백락' '상향식' 적으로 보면, 저 부족한 정보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말하는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며 의사소통 = 독서

또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결국 장기 환율은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를 추후 A급, B급, C급 정보로 나누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4단락은

당연히, 장기 환율 원리를 설명했으나, 단기 환율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3 C 장기환율↑
 C 단기물가경직vs단기환율신속
 장기환율 원리
 장기환율 = 자국물가/외국물가
 실질통화량 = 통화량/물가

물가 : 계약이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쉽게 올리지 못합니다.

물가 : 단기 경직

통화량 : 하지만 대출을 받거나 해서 돈은 단기간에 시중이 풀릴 수 있습니다.

실질통화량 = 통화량 증가 / 물가 유지 => 결국 실질통화량 ↑

실질통화량이 늘었으니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대출을 해줄려는 은행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예금에 대한 대가인 금리는 ↓

금리↓ 하면 기존에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을 구입했거나 하는 등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률도 ↓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금리는 그대로라면 당연히 자금 유출 해서 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가야죠

그 과정에서 시장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원화수요↓ 원화공급↑ ⇨ 원화가치하락↓

결국?

1달러 1000원하던 것이

1달러 2000원을 줘야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는 오버슈팅 현상이 있겠죠.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 내용은 부수적이죠. 왜냐하면, 요인들이 클수록 심해진다 등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 완화되는 내용은 결국

4 C 단기환율↑↑
 국내통화량↑ ⇨ C물가경직 E실질통화량↑
 ⇨ 시장금리↓ ⇨ 기대수익률↓ ⇨ 외국단기투자자금유출
 ⇨ 원화 매각, 달러 구입 ⇨ 원화공급↑, 달러수요↑
 ⇨ 원화가치↓, 달러가치↑ ⇨ 과거 1000:1 ⇨ 2000:1
 : 환율의 오버슈팅

이 원리에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2단락 문제 제기, 3단락 원인1, 4단락 원인2 5단락은 해법이겠죠.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주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㉔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역시 정보 디테일 넘칩니다.

하지만 간단하죠.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

결론 단락이니?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㉔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요약 정리하는 지시어가 중요합니다.

정보군집, 독립문항 31번 바로 이어집니다. 발췌독, 위의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 바탕 1~5선지 외리 가리 해보세요

31.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 ③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바로 정답 3번 보입니다.

글의 주제

역시나.

환율.

정답 땡! 집중.

와리가리 하더라도, 쓸데 없는, 정보가치 낮은 내용에서 어그로 끌리는게 아닙니다.

요약 정리하는 지시어가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정보군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1단락 내용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㉔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28. ㉔를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 ③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 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와리가리 하시면

예를들어 4번 선지 직접성

정부가 직접 하면 직접성 높고

정부가 민간 위탁 하면 직접성 낮고

민간에 맡겼으니 직접성 낮아야죠.

정답은 5번

자동성은 기존 조직 활용. 신설 조직 안 하는 것.

정보군집 문항의 특징 잘 봐두시고, 지문 구조, 정보량, 특성에 따라 판단 하여 적용바랍니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매뉴얼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 ②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함에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사실 글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1번선지를 보는 순간!

딱, 주제를 잡았다면 역시 바로 보입니다.

3 C 장기환율↑

주제인 장기환율은 결국 올랐는데?

정답 1번.

아시겠죠? 주제 집중. 정보가치 높은 것 집중.

4 C 단기환율↑↑

국내통화량↑ ⇨ C물가경직 E실질통화량↑
 ⇨ 시장금리↓ ⇨ 기대수익률↓ ⇨ 외국인투자자금유출
 ⇨ 원화 매각, 달러 구입 ⇨ 원화공급↑, 달러수요↑
 ⇨ 원화가치↓, 달러가치↑ ⇨ 과거 1000:1 ⇨ 2000:1
 : 환율의 오버슈팅

이제 단기 환율입니다.

지문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봐야 보기가 이해됩니다.

로 정답 3번 보입니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국 통화를 팔고, B국 통화를 사서,

A국에 투자된 금액을 B국으로 옮길거예요.

이 과정에서 A국을 우리나라라고 본다면,

원화수요↓ 원화공급↑ ⇨ 원화가치하락↓

결국?

1달러 1000원하던 것이 1달러 2000원을 줘야합니다.

즉, 단기 환율 급등. 오버슈팅 일어나겠죠.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맞죠?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B국에 통화량이 많아집니다.

아까 4단락 환율 변동 원리

B국 실질통화량 = 통화량 증가 / 물가 유지

=> 결국 B국 실질통화량 ↑

실질통화량이 늘었으니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대출을 해줄려는 은행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예금에 대한 대가인 금리는 ↓

금리↓ 하면 기존에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을 구입했거나 하는 등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률도 ↓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금리는 그대로라면 당연히 자금 유출해서 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가야죠

결국. B국으로 자금 유출이 완화된답니다.

그냥, 지문 내용 그대로 적용이예요.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이 부분은 지문에는 없는 내용인. 상식. 하향식.

기출 연계입니다.

A국 환율이 오른다.

A국에서는 10만원에 스마트폰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100달러 주고 B국에서는 샀는데

10만원 = 100달러 환율이

20만원 = 100달러 환율로 올랐고

그것을 A국에서는 50달러에 팔 수 있게 되었죠

또는 100달러에 똑같이 팔더라도

10만원 벌던 것이 20만원이 됩니다.

당연히 A국 수출 하는 회사는 개이득.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개이득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힘든데,

(10만원이면 100달러짜리 수입했는데, 이제는 20만원을 줘야 하니 수입은 힘들니다)

그럼 수출이 잘 되는데,

수출 주도형 국가는 당연히 개이득이죠.

그럼 환율이 올라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거나, 상쇄되니 추이를 보고, 문제만 콕콕 짚어 해결해야겠죠?

-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한국, 미국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4단락 원리

4 C 단기환율↑↑ 원리

국내통화량↑ ⇨ C물가경직 E실질통화량↑
 ⇨ 시장금리↓ ⇨ 기대수익률↓ ⇨ 외국단기투자자금유출
 ⇨ 원화 매각, 달러 구입 ⇨ 원화공급↑, 달러수요↑
 ⇨ 원화가치↓, 달러가치↑ ⇨ 과거 1000:1 ⇨ 2000:1
 : 환율의 오버슈팅

4단락 원리 그대로 적용.

A국 (한국)

국내통화량↑ ⇨ C물가경직 E실질통화량↑
 ⇨ 시장금리↓ ⇨ 기대수익률↓ ⇨ 외국단기투자자금유출
 ⇨ B국(미국)으로 투자 자금 유출
 원화 매각, 달러 구입 ⇨ 원화공급↑, 달러수요↑
 ⇨ 원화가치↓, 달러가치↑ ⇨ 과거 1000:1 ⇨ 2000:1
 : 환율의 오버슈팅

-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선지 내용 적용.

A국 (한국)
 국내통화량↑ ⇨ C물가경직 E실질통화량↑
 ⇨ 시장금리↓ ⇨ 기대수익률↓ ⇨ 외국단기투자자금유출
 ⇨ B국(미국)으로 투자 자금 유출
 하려 했으나, B국 금리 하락
 ⇨ B국으로 자금 유출 할 이유가 없어지고
 ⇨ 원화 매각, 달러 구입 할 이유가 없어지고
 ⇨ 원화공급↑, 달러수요↑ 할 이유가 없어지고
 ⇨ 원화가치↓, 달러가치↑ 할 이유가 없어지고
 ⇨ 과거 1000:1 ⇨ 2000:1 할 이유가 없어지고
 : 환율의 오버슈팅 할 이유가 없어지고

1번 선지 안 일어나야죠? 바로 정답 끝.

-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 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업 내용 바탕 보셨다면, 역시나...

주제, 구조, 원리, 공식 이해 적용...

30.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 b, c는 [가]의 ㉠~㉣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다음 그래프들은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t 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 예상되는 ㉠~㉣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지문 원리를 이해해서,

그래프에 적용하는 문항입니다.

- ㉠ 실질 통화량
- ㉡ 금리
- ㉢ 환율

간단하죠. 단기 상황에 이은 장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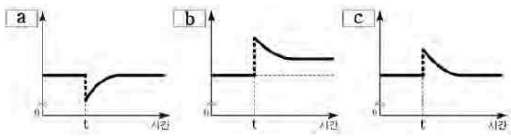
	현재 기준	단기	장기
실질통화량		증가	증가
금리		하락	
환율		급등	증가

3 C 장기환율↑

C 단기물가경직vs단기환율신축
 장기환율 원리
 장기환율 = 자국물가/외국물가
 실질통화량 = 통화량/물가
 *통화량↑ 물가↑ = 실통 유지
 *자국물가↑/외국유지=장기↑

4 C 단기환율↑↑

국내통화량↑
 ⇒ C물가경직 E실질통화량↑
 ⇒ 시장금리↓ ⇒ 기대수익률↓
 ⇒ 외국 단기 투자 자금 유출
 ⇒ 원화 매각, 달러 구입
 ⇒ 원화공급↑, 달러수요↑
 ⇒ 원화가치↓, 달러가치↑
 ⇒ 과거 1000:1 ⇒ 2000:1
 : 환율의 오버슈팅



하락한 것은 금리가 유일. a ⊖
 b와 c 둘다 급등 후
 b는 증가 : 단기-장기 환율 ⊕
 c는 회귀 : 통화량이겠쥬? ⊕ 4번 신지!

(단, t 시점 근처에서 그래프의 형태는 개략적으로 표현하였으며, t 시점 이전에는 모든 경제 변수들의 값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고 가정한다.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기간은 변수마다 상이하하다.)

- | | | | |
|---|---|---|---|
| | ⊖ | ⊕ | ⊕ |
| ① | a | c | b |
| ② | b | a | c |
| ③ | b | c | a |
| ④ | c | a | b |
| ⑤ | c | b | a |

A급 / B급 / C 급 정보로 다시 구조를 보면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A급	B급	C급
<p>1 정책수단의 특성</p>	<p>1. 강제성 2. 직접성 3. 자동성 4. 가시성 의 정의</p>	<p>1. 강제성 2. 직접성 3. 자동성 4. 가시성 예시적용</p>
<p>정보군집이라, c급 정보까지 활용하면서, 문제에 발해득 적용했쥬?</p>		
<p>2 P P 오버슈팅</p>	C 물가경직성. 불안심리.	나머지 설명
<p>급의 구조상 기술 흐름상, 요즘 기술은 구체적인 원리, 그 적용, 그 이해를 바탕으로한 문제풀이니 딱히 중요한 정보 없겠구나, 다음 지문 집중! 하는 흐름 잡았쥬?</p>		
<p>3 C 장기환율 장기환율 원리</p>	C 단기물가경직 vs 단기환율신축 장기환율 = 자국물가/외국물가 실질통화량 = 통화량/물가 *통화량↑ 물가↑ = 실통 유지 *자국물가↑/외국유지 = 장기↑	나머지 설명
<p>4 C 단기환율 장기환율 원리</p>	국내통화량↑ ⇒ C물가경직 E실질통화량↑ ⇒ 시장금리↓ ⇒ 기대수익률↓ ⇒ 외국 단기 투자 자금 유출 ⇒ 원화 매각, 달러 구입 ⇒ 원화공급↑, 달러수요↑ ⇒ 원화가치↓, 달러가치↑ ⇒ 과거 1000:1 ⇒ 2000:1 : 환율의 오버슈팅	나머지 설명
<p>기술 흐름상, 요즘 기술은 구체적인 원리, 그 적용, 그 이해를 바탕으로한 문제풀이니 여기는 B급 정보! 많고, 활용할 가능성 높으니, 이해, 수학 공식 정리하면서 접근 필요했습니다.</p>		
<p>5 미세 조정 정책 수단</p>	이처럼~ 뒤의 내용	나머지 설명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 '나 '+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A] 가령 은행 ㉠같은, 기업 ㉡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별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 이 발행한 채권이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 ②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 ③ 신용 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 ④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 ⑤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된다.
22. [A]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 ②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 ④ ㉢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 ⑤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다.

23. <보기>의 ㉠~㉣ 중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보기>

윗글의 ㉠과 ㉣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 ㉡~㉣를 비교하여 CDS 프리미엄의 크기에 순서를 매길 수 있다. (단, 기초 자산의 발행자와 보장 매도자는 한국 기업이며, ㉡~㉣에서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CDS 거래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
㉠	BB+	AAA
㉡	BB+	AA-
㉢	BBB-	A-
㉣	BBB-	AA-
㉤	BBB-	A+

- ① ㉠ ② ㉡ ③ ㉢ ④ ㉣ ⑤ ㉤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 발행 즉시 Bx 전량을 매입한 Y는 Bx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보장 매입자가 되었다.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였다.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로 변경되었다. 2013년 10월 2일, Bx의 CDS 프리미엄은 100bp*였다. (단, X, Y, Z는 모두 한국 기업이며 신용 등급은 매월 말일에 변경될 수 있다. 이 CDS 계약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매월 1일에 갱신되며 CDS 프리미엄은 매월 1일에 변경될 수 있다.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요인에는 변화가 없다.)

*bp: 1bp는 0.01%와 같음.

- ① 2011년 1월에는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겠군.
- ② 2011년 11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 ③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군.
- ④ 2013년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군.
- ⑤ 2013년 4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25.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 ② 과자 한 봉지를 팔면 내게 100원이 떨어진다.
- ③ 더위를 먹었는지 입맛이 떨어지고 기온이 없다.
- ④ 신발이 떨어져서 걸을 때마다 빗물이 스며든다.
- ⑤ 선생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두 자리에 앉았다.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술 연계

원리 이해 적용 상식

개념 설명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1. 신용 위험과 2.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C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E 신용 위험이 P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S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S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 '나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S 신용 P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S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가령 은행 ㉠같은, 기업 ㉡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S 신용 P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과 CDS S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 이 발행한 채권이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C3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하게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21.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상식, 기술
 - ②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주제, 상식
 - ③ 신용 S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P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주제
 - ④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 ⑤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된다.

원리 이해

원리 이해

22. [A]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 ②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 ④ ㉣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보험 주제
 - ⑤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다.

어휘력

예시 이해

2017 수능 기술 연계

23. <보기>의 ㉠~㉣ 중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보기>

윗글의 ㉠과 ㉣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 ㉡~㉣를 비교하여 CDS 프리미엄의 크기에 순서를 매길 수 있다. (단, 기초 자산의 발행자와 보장 매도자는 한국 기업이며, ㉡~㉣에서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CDS 거래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 C ₁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 C ₂
㉠	BB+	AAA
㉡	BB+	AA-
㉢	BBB-	A-
㉣	BBB-	AA-
㉤	BBB-	A+

- ① ㉠ ② ㉡ ③ ㉢ ④ ㉣ ⑤ ㉤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_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 발행 즉시 B_x 전량을 매입한 Y는 B_x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보장 매입자가 되었다. 계약 체결 당시 B_x의 신용 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였다.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_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로 변경되었다. 2013년 10월 2일, B_x의 CDS 프리미엄은 100bp였다. (단, X, Y, Z는 모두 한국 기업이며 신용 등급은 매월 말일에 변경될 수 있다. 이 CDS 계약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매월 1일에 갱신되며 CDS 프리미엄은 매월 1일에 변경될 수 있다.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요인에는 변화가 없다.)

X: B_x 발행 A-
Y: 보장 매입
Z: 보험 회사

2011. 1. 1. CDS 계약
2011. 9. 17. X의 재무 상황 악화
2012. 12. 30. X의 지급 능력 개선
2013. 9. 30.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 변경

AAA- 보험료 ↑ AA+ 보험료 하락
*bp: 1bp는 0.01%와 같음.

- ① 2011년 1월에는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Z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겠군. **원리 이해**
- ② 2011년 11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판단 불가**
- ③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군.
- ④ 2013년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군. **높음**
- ⑤ 2013년 4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25.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 ② 과자 한 봉지를 팔면 내게 100원이 떨어진다.
- ③ 더위를 먹었는지 입맛이 떨어지고 기온이 없다.
- ④ 신발이 떨어져서 걸을 때마다 빗물이 스며든다.
- ⑤ 선생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두 자리에 앉았다.

전형적인 평가원 구조

평이한 수준의 경제학 원리, 이해, 적용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주제+구조 set CDS P 1. 신용 위험 2. CDS	
2 P - S1 P 신용위험 C 신용평가제도	전형적인 최근 기출 구조와 흐름을 보여줍니다.
3 S1 원리 신용평가제도의 원리 AAA AA A BBB ... D + 0 - 우량 <-----> 위험 당연히 위험↑ ⇨ 가격↓	1. 1단락 주제 세팅 2. 1단락 후반부 소주제 3. 2~3단락 정보군집 4. 4~5단락 정보군집 5. 경제-원리-예시 이해 필수 후 적용
4 S2 원리 5 사례 사례 바탕 원리 이해 CDS 원리 P 채권의 신용위험 S1 신용등급 S2 CDS = 채권 보험 기초자산 = 채권 보장 = 채권 보험 을 = 채권판매자 갑 = 채권구매자 = 보장매입자 = 위험기피 병 = 보장판매자 = 위험부담	1단락 CDS P 1. 신용 위험 2. CDS 2단락 P 신용위험 S 신용평가제도 3단락 신용평가제도 원리 4단락 CDS 원리 설명 5단락 예시로 4단락 이해
6 CDS P 원리 CDS P = 보험료율 당연히, P 신용위험 S1 채권 신용 등급 기초자산 불안 = 부도 위험 = 보험료 ↑ S2 채권보험 보험회사 건전 = 보장 잘해 줌 = 보험료 ↑	6단락 CDSP 원리 S1. 채권의 신용등급 S2.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지문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아서 쉬어가는 느낌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꾼 것이 1997 IMF라던 글로벌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꾼 것이 2008 글로벌 금융위기

그 시작은
 2007년 4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것이 터지다가
 2008년 리먼의 파산과 함께
 800조가 날아가면서
 그 800조가 8000조 8경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결국, 미국이 공적자금등을 들여 해결하려 했으나
 일시적 해결은 있었으나
 그 뒤의 경제 정책이 먹히질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미지의 세상에 살고 있게 되었고,
 그 흐름을 평가원에서는 잡아주고 싶어했습니다.
 이것이 2020학년도 6월 경제지문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명드린대로, 1단락 CDS P(프리미엄),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1.신용위험, 2.신용파산스와프

당연히 2단락은 1.신용위험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위험 : P이니 해결방법이 주제겠죠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표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나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 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예상대로.

그리고 3단락은 그 해법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물론 2단락에서는 채권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기출 지문 연계로 배경지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A] 가령 은행 ㉠같은, 기업 ㉡을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 이 발행한 채권이다.

4단락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은

5단락 예시로 처리하면서

아 이것이 결국 채권의 위험성을 보장해주는 보험이구나!

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 별. 경제

2017수능 지문 흐름 기억나실겁니다.

이제 1단락에서 말했듯이 CDS P를 설명하기 위해

1. 신용위험

2. CDS

설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CDS 프리미엄 설명할 차례.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주제 흐름 잡으면 역시 간단합니다.

1. 2단락. 채권에는 부도위험이 있다. 그것을 신용위험

2. 3단락. 해결방법과 원리는 신용등급을 매기면 된다.

(그거 보고 투자등을 판단)

3. 4.5단락. 채권의 부도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채권보험을 들면 된다.

4. 6단락. 채권 보험료율 = CDS P는 당연히

① 채권의 신용도

② 보험회사의 신용도

로 결정이 되겠지

채권 신용도가 위험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으니 보험료가 비싸짐
보험회사 신용도가 안전하면 보장 확률이 높으니 보험료 비싸짐
위의 지문 주제 워리 - 문제/보기 사례 적용

23. <보기>의 ㉠~㉣ 중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보기>

윗글의 ㉠과 ㉡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 ㉢~㉣를 비교하여 CDS 프리미엄의 크기에 순서를 매길 수 있다. (단, 기초 자산의 발행자와 보장 매도자는 한국 기업이며, ㉢~㉣에서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CDS 거래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	가격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	최종가격
㉢	BB+	1등	AAA	1등
㉣	BB+	1등	AA-	2등
㉠	BBB-	3등	A-	
㉡	BBB-	3등	AA-	
㉣	BBB-	3등	A+	

당연히.

채권의 등급이 떨어지면, 위험하니, 보험료 높음. 가.나.

그 중, 보험회사 신용등급이 높으면, 보장 잘 받으니 보험료 비쌘. 따라서 가-1등, 나-2등

2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제발. 기출 연계. 상식. 하향식.

②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주제 원리.

돈을 잘 갚는데 위험이 커질까요?

바로 정답!

2 P - S1
P 신용위험
C 신용평가제도

3 S1 원리
신용평가제도의 원리
AAA AA A BBB ... D
+ 0 -
우량 <-----> 위험
당연히 위험↑ ⇔ 가격↓

③ 신용 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역시 주제. P-S

④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기출연계. 하향식 적용을 합니다.

채권 부도 날 확률이 높으면 채권 자체의 가격도 낮겠조

⑤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된다.

신용위험. 주제.

물론 선지 하나 하나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 수학도 나머지 선지가 오답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처리를 다 해야하나요?

80분 안에 처리가 가능한 방법.

그리고 과거 시험과 차원이 다른 정보량.

왜 요구하는지, 생각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2. [A]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②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③ ㉠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④ ㉡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⑤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다.

주제 원리 사례 적용 이해입니다.

아래 내용 바탕 확인하면, 4번선지 정답.

역시. 보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고.

주제 관련 정답 선지.

4 S2원리 5 사례
사례 바탕 원리 이해
CDS 원리
P 채권의 신용위험
S1 신용등급 S2 CDS = 채권 보험

기초자산 = 채권
보장 = 채권 보험

㉠ 을 = 채권판매자
㉡ 갑 = 채권구매자 = 보장매입자 = 위험기피
㉢ 병 = 보장판매자 = 위험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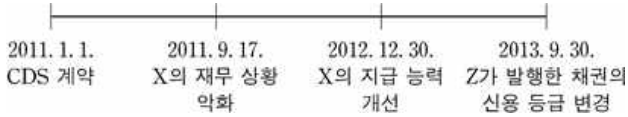
2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 발행 즉시 Bx 전량을 매입한 Y는 Bx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보장 매입자가 되었다.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였다.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로 변경되었다. 2013년 10월 2일, Bx의 CDS 프리미엄은 100bp*였다. (단, X, Y, Z는 모두 한국 기업이며 신용 등급은 매월 말일에 변경될 수 있다. 이 CDS 계약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매월 1일에 갱신되며 CDS 프리미엄은 매월 1일에 변경될 수 있다.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요인에는 변화가 없다.)

2011. 1. 1. CDS 계약	2011. 9. 17. X의 재무 상황 악화	2012. 12. 30. X의 지급 능력 개선	2013. 9. 30.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 변경
-----------------------	--------------------------------	---------------------------------	--

*bp: 1bp는 0.01%와 같음.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 _x 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			
X 채권판매자. B_x = 기초자산			
발행 즉시 B _x 전량을 매입한 Y는 B _x 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보장 매입자가 되었다.			
Y 채권구매자 = 보장매입자 = 위험기피 Z 보장매도자 = 위험 부담			
채권 보험이 만들어졌으니, 보험료 결정. 요인 1. 기초자산, 채권의 신용등급 요인 2.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계약 체결 당시 B _x 의 신용 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였다.			
2011년 1월 1일 기준 X(채권판매자)등급A- Z(보장매도자)등급AAA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 _x 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2011년 9.17	2012년 12.30	비교
CDS P	↑	↓	얼마나 오르고
B_x 신용등급	↓	↑	내리고 정보없음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로 변경되었다. 2013년 10월 2일, B _x 의 CDS 프리미엄은 100bp*였다			
	2011년 1.1	2013년 9월	비교
Z 신용등급	AAA	AA+	보험회사 Z의 신용등급 하락 보장 가능 하락 보험료 싸짐
B_x CDS P	상대적으로 ↑	상대적으로 ↓	
B_x CDS P	100bp +a	100bp	

① 2011년 1월에는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겠군.

주제 원리 이해 적용. 보험회사는 Z

② 2011년 11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B_x 신용위험 커짐. 처음보다 떨어지니 A- 보다 낮아야

③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군.

2012년 12월 30일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으니

손실은 덜 입겠죠! 정답!

④ 2013년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군.

위에서 보듯 높습니다

⑤ 2013년 4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얼마나 오르고 내리고. 모릅니다.

판단불가

2019년 ebs 수능특강 양적완화 경제지문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특정한 단기 금리를 정책 금리*로 정하고 이를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확대하여 소비 및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리 중시 통화 정책이었다. 정책 금리를 낮춰 시장 금리*도 낮아지면 기업은 낮은 이자로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와 생산을 늘리게 된다. 가계 역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통해 소비를 늘릴 여력이 발생한다. 투자와 소비가 늘면 고용과 생산이 증가하고, 다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면서 경제 전체가 선순환을 그리게 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정책 금리를 낮추었지만,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유동성의 함정 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국채* 투자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자.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그 채권의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며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채권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높은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비싸진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채권 매입과 같은 투자를 기피하고, 위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비도 위축되면서 시중에 돈이 충분하게 공급되어도 돈을 그냥 쌓아 두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양적 완화라 한다.

양적 완화는 금리 조정만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없을 때, 신용 완화나 국가의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더욱 확대하는 정책이다. 적극적인 통화 공급을 하기 때문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행위로 비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우선 ‘신용 완화 정책’으로, 이는 은행의 대출 등 신용 공급을 확대하고, 부실한 은행이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버닝키시 양적 완화 정책’은 초저금리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국채 등의 안전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이 줄어들면서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통화량은 늘어난다. 따라서 금리 하락이 유도되면서 가계, 기업 및 금융 기관 등이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을 낮춰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명시적 통화 재정책’이 있다. 이는 극심한 유효 수요 부족시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아닌 중앙은행이 가진 화폐 발행 권한을 통해 상환 부담 없는 통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정 지출과 같이 정부의 재정 적자*는 발생하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어 공공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인 양적 완화 방식과 달리 정부의 재정 적자는 발생하지만 상환 부담이 없어 시중의 통화량 증대가 영구적이라 특징도 있다.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한 ‘질적 완화 정책’도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달리 중앙은행 자산의 질적인 구성 변화를 통해 금융 안정을 가져오려 하는 방식이다. 즉 중앙은행의 자산이나 부채 규모에는 변동이 없지만 위험도가 낮은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 대신 위험도가 높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신용 완화 정책’과 달리 ‘질적 완화 정책’은 부실 자산이 아닌 투자 수익률이 불확정적인 위험 자산을 매입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적 완화 정책은 경기 부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의 위험 요소들을 대신 책임지는 부분을 통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이 목표했던 수준을 넘어선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적 완화로부터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회귀하는 출구 전략을 시행할 때에는 그 시기와 방법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정책 금리: 중앙은행이 금융 기관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

* 시장 금리: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

* 국채: 국가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신용으로 설정하는 금전상의 채무를 표시하는 채권.

* 유효 수요: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수요.

* 재정 적자: 한 해 정부의 지출 규모가 세금 수입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적자로 누적액이 아닌 일정 기간의 적자.

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기 침체 과정에 따른 시기별 통화 정책을 설명하고, 각 정책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경기 침체 발생 과정을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특정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정책의 시행 방법과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④ 경기 침체와 정책 금리의 관계를 고찰하고, 자산 매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대비되는 정책의 발전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경기 침체의 원인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특정 정책의 시행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책 금리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 ② 채권이 비싸지면 채권 수익률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인해 채권 투자가 늘어난다.
- ③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유효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 ④ ‘버냉키식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은행 외의 금융 기관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행 된다.
- ⑤ 양적 완화 정책은 정책의 목표 수준을 넘어선 물가 상승이나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국은 경기가 침체되자 우선 정책 금리를 낮추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금리가 하한에 도달하였지만 시장에 유동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A국의 중앙은행은 대출 기준 완화와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는 정책과 더불어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였다. 더불어 민간 은행의 부실한 채권을 특정하여 매입함으로써 금융 심리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책의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서, A국의 중앙은행은 저금리 정책에서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 ① A국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먼저 시행하였군.
- ② A국의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인 ‘신용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군.
- ③ A국의 중앙은행은 가계, 기업 및 금융 기관 등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고자 하였군.
- ④ A국의 중앙은행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여 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군.
- ⑤ A국의 정책 금리가 하한에 도달하였을 때, 신규 채권 가격은 정책 금리를 낮추기 전보다 상승했겠군.

4.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모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한다.
- ② ㉠~㉣은 모두 유효 수요 감소를 위한 것이다.
- ③ ㉠과 달리 ㉡은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 ④ ㉠과 달리 ㉢은 통화량의 증가가 영구적이다.
- ⑤ ㉠과 달리 ㉠은 공공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

5. 유동성의 함정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간에 화폐 공급량이 충분하게 되지 않아 수요가 부족하게 나타난 것이다.
- ② 낮은 금리하에서 저축 대신 대출이 급증하면서 민간 신용에 위기가 나타난 것이다.
- ③ 시장에 통화량을 공급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낮추었지만 시장 금리가 이에 역행하여 나타난 것이다.
- ④ 경기 회복을 위해 시중에 통화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 ⑤ 낮아진 금리 부담으로 인하여 민간의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위축되어 그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③ / ⑤ / ④ / ⑤ / ④

2019년 ebs 수능특강 양적완화 경제지문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특정한 단기 금리를 정책 금리*로 정하고 이를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확대하여 소비 및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리 중시 통화 정책이었다. 정책 금리를 낮춰 시장 금리*도 낮아지면 기업은 낮은 이자로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와 생산을 늘리게 된다. 가계 역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통해 소비를 늘릴 여력이 발생한다. 투자와 소비가 늘면 고용과 생산이 증가하고, 다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면서 경제 전체가 순환을 그리게 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정책 금리를 낮추었지만,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국제* 투자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자.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그 채권의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며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채권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높은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비싸진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채권 매입과 같은 투자를 기피하고, 위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비도 위축되면서 시중에 돈이 충분하게 공급되어도 돈을 그냥 쌓아 두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양적완화라 한다.

양적완화는 금리 조정만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없을 때, 신용완화나 국가의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더욱 확대하는 정책이다. 적극적인 통화 공급을 하기 때문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행위로 비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우선 '신용완화 정책'으로, 이는 은행의 대출 등 신용 공급을 확대하고, 부실한 은행이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입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버냉키식 양적완화 정책'은 초저금리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국채 등의 안전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이 줄어들면서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통화량은 늘어난다. 따라서 금리 하락이 유도되면서 가계, 기업 및 금융 기관 등이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을 낮춰 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명시적 통화 재정책'이 있다. 이는 극심한 유효 수요 부족시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아닌 중앙은행이 가진 화폐 발행 권한을 통해 상환 부담 없는 통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정 지출과 같이 정부의 재정 적자*는 발생하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어 공공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인 양적완화 방식과 달리 정부의 재정 적자는 발생하지만 상환 부담이 없어 시중의 통화량 증대가 영구적이라 특징도 있다.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한 '질적완화 정책'도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달리 중앙은행 자산의 질적인 구성 변화를 통해 금융 안정을 가져오려 하는 방식이다. 즉 중앙은행의 자산이나 부채 규모에는 변동이 없지만 위험도가 낮은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 대신 위험도가 높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신용완화 정책'과 달리 '질적완화 정책'은 부실 자산이 아닌 투자 수익률이 불확정적인 위험 자산을 매입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적완화 정책은 경기 부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의 위험 요소들을 대신 책임지는 부분을 통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이 목표했던 수준을 넘어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적완화로부터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회귀하는 출구 전략을 시행할 때에는 그 시기와 방법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 정책 금리: 중앙은행이 금융 기관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
- * 시장 금리: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
- * 국제: 국가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신용으로 설정하는 금전상의 채무를 표시하는 채권.
- * 유효 수요: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수요.
- * 재정 적자: 한 해 정부의 지출 규모가 세금 수입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적자로 누적액이 아닌 일정 기간의 적자.

주제+전개방식

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기 침체 과정에 따른 시기별 통화 정책을 설명하고, 각 정책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경기 침체 발생 과정을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X(질적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 ③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특정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정책의 시행 방법과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④ 경기 침체와 정책 금리의 관계를 고찰하고, 자산 매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대비되는 정책의 발전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경기 침체의 원인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특정 정책의 시행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기술 연계 압축

전통적 통화정책

주제 원리 기술연계

P→S 채권 가격 결정 원리

양적완화 원리

MMT

국어 영역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책 금리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핵심 원리**
 - ② 채권이 비싸지면 채권 수익률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인해 채권 투자가 늘어난다. **필.발**
 - ③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유효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상식, 하향식**
 - ④ ‘버냉키식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은행 외의 금융 기관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행 된다.
 - ⑤ 양적 완화 정책은 정책의 목표 수준을 넘어선 물가 상승이나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한계 P**
- 구조, 주제, 정보 가치**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국은 경기가 침체되자 우선 정책 금리를 낮추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금리가 하한에 도달하였지만 시장에 유동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P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A국의 중앙은행은 대출 기증 완화와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는 정책과 더불어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였다. 더불어 민간 은행의 부실한 채권을 투정하여 매입함으로써 금융 심리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책의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서, A국의 중앙은행은 저금리 정책에서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 ① A국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먼저 시행하였군. **1 단락**
 - ② A국의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인 ‘신용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군. **1 단락 2 단락**
 - ③ A국의 중앙은행은 가계, 기업 및 금융 기관 등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고자 하였다. **신용 대출 | 통화량 | 수요공급 | 경기**
 - ④ A국의 중앙은행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여 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군. **S1+S4, 주제, 발체독 | 필.발**
 - ⑤ A국의 정책 금리가 하한에 도달하였을 때, 신규 채권 가격은 정책 금리를 낮추기 전보다 상승했겠군. **S2 | 필.발**
- 버냉키 QE**

표그리기

4.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체독**

- ① ㉠-㉢은 모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한다.
- ② ㉠-㉢은 모두 유효 수요 감소를 위한 것이다.
- ③ ㉠과 달리 ㉢은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 ④ ㉠과 달리 ㉡은 통화량의 증가가 영구적이다. **발체독**
- ⑤ ㉠과 달리 ㉠은 공공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

5. 유동성의 함정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인과원리

- ① 민간에 화폐 공급량이 충분하게 되지 않아 수요가 부족하게 나타난 것이다.
- ② 낮은 금리하에서 저축 대신 대출이 급증하면서 민간 신용에 위기가 나타난 것이다.
- ③ 시장에 통화량을 공급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낮추었지만 시장 금리가 이에 역행하여 나타난 것이다.
- ④ 경기 회복을 위해 시중에 통화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2 단락 초반부**
- ⑤ 낮은 금리 부담으로 인하여 민간의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위축되어 그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1. 신용 완화 정책

2. 버냉키

질적 완화

③ / ⑤ / ④ / ⑤ / ④

정보량이 폭발한 전형적인 사실 ebs
 하지만 역시 평가원 지문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접근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기출. 연계. 원리

통화정책 전체 흐름 정리
 P 경기침체시 S 금리↓
 (내용은 없지만, 기출비탕)
 ⇒ 통화량↑ ⇒ 유동성 ↑
 ⇒ 소비투자↑
 정책금리 ↓ ⇒ 시장금리↓
 ⇒ 신용대출↑ ⇒ 투자생산↑
 투자소비↑ ⇒ 고용생산↑
 ⇒ 소비투자↑ ⇒ 경기↑
 (하지만, 결국 이 내용도 기출
 연계이므로, 내용 불충분. 앞서
 정리한 내용 참고.)

2 P글로벌금융위기

P 유동성의 함정
 금리↓ ⇒ 경기 변동 없음
 (전통적 통화 정책 안 먹힘)
 C1. 채권 가격 변동원리
 채권가격↑ ⇒ 이자율↓
 채권선호↑ ⇒ 채권수요↑ ⇒
 채권가격↑ ⇒ 이자낮아도 됨
 ⇒ 이자율↓ ⇒ 수익률↓ ⇒
 채권 투자 기피, 소비위축↓ ⇒
 신용/대출/유동성↑,
 소비투자유보

S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3 S원리

정보량 폭발.
 주제 구조 잡고 필요시 발췌독
 양적완화
 1. 신용완화정책
 2. 버냉키식 양적완화정책
 3. 명시적 통화 재정책
 4. 질적완화정책

4 한계. 해결책

P 잠재적 위험성
 C1 도덕적 해이
 (← 정부의 민간 부담)
 C2 인플레이
 (+ 통화량증가, 자산가치폭등)
 S 출구전략 신중히

사실. ebs 지문 한계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
 용,
 구조 집중력 떨어지고,
 세부내용 폭발
 ⇒ 해법은 동일.
 주제,
 구조,
 정보가치 높은 내용,
 수능 기출 연계 흐름.

1단락
 통화정책 흐름 전반 세팅
 2단락
 P 기존의 통화정책 한계
 C 원인
 채권 가격원리 설명.
 S 양적완화
 3단락
 양적완화 정보군집
 4단락
 P 양적완화 한계
 S 해결책 출구전략

전형적인 사실 지문.
 주제-구조의 흐름은 기출과 비슷하지만
 세부내용이 넘쳐서
 전부 처리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상당한 피곤을 느끼는 지문입니
 다.
 한편으로는, 기출 원리를 잘 적용하면, 난이도는 딱 떨어지기 때
 문에, 기출 연계 원리를 잡아 적용, 연습하기 좋은 지문이기도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어그로 끌리면, 답 없습니다.
 시간 안에 풀 수 없습니다.
 기출연계. 하향식 적용을 합니다.

2018학년도 6월 1단락 내용 다시 가져옵니다.

경기 부양	중앙은행(FRB)	채권 ← ⇒ 달러	정부
	시중은행	달러 ← ⇒ 채권	
	정부가 시장의 채권 매입 결과 시장의 통화량 ↑ 채권 가격 ↑ 금리 ↓ (이 내용은 추후 EBS수특) ²³⁾		
	시중은행	C 금리 ↓ ⇒ E 신용/대출 ↑	가계/기업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임. 정부의 채권 구입으로 채권 가격 상승 / 금리 하락 또한, 정부가 채권 대신 돈을 시중은행에 시중은행에는 돈이 많고, 대출 여력이 생기고, 대출 줘야 수익이 나고, 대출 경쟁이 붙고, 결국 금리도 낮아짐 금리 낮으니 대출 더 쉬움		
	가계/기업	C 소비/투자↑ ⇒ E 수요/공급↑ ⇒ 경기 활성화 / 구매력 증가 ⇒ 물가 상승 ²⁴⁾	
	자본주의 : 자본이 생산수단 소유 생산↑ ⇒ 소득은 자본가에 집중 물가↑ ⇒ 비자본가의 실질소득은 감소 결국, 사회적 불만/문제 발생 파거 이를 방지 = 혁명 / 폭동 / 대공황등의 문제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를 진정시켜
 물가를 낮추려 합니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23) 채권 가격이 높아짐 = 채권 가치가 높아짐 = 채권에 이자를
 많이 줄 필요 없음 = 금리 낮아짐
 24) 통화량이 늘었고, 그래서 구입을 할 수는 있는데, 생산 설비
 는 수요를 따라오기 힘들. 따라서,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물가가 오르게 됨

경기 진정	중앙은행(FRB)	달러 ← ⇒ 채권	정부
	시중은행	채권 ← ⇒ 달러	
정부가 시장의 채권 매도 결과 시장의 통화량 ↓ 채권 가격 ↓ 금리 ↑ (이 내용은 추후 EBS수특)			
	시중은행	C 금리 ↑ ⇒ E 신용/대출 ↓	가계/기업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임. 정부의 채권 판매으로 채권 가격 하락 / 금리 상승 또한, 정부가 돈 대신 채권을 시중은행에 시중은행에는 돈이 없고, 대출 여력이 없고, 대출 수요는 많고, 결국, 금리 높아짐 금리 높으니 대출 더 어려움			
	가계/기업	C 소비/투자 ↓ ⇒ E 수요/공급 ↓ ⇒ 경기 안정 / 구매력 감소 ⇒ 물가 하락/진정	
자본주의 : 자본이 생산수단 소유 생산 ↓ ⇒ 자본가가 어려움/유지 물가 ↓ ⇒ 비자본가의 실질소득은 증가/유지 기존에 발생한 사회적 불만/문제 해소 방치 = 혁명 / 폭동 / 대공황등의 문제 해소. 하지만 자본가가 수익을 얻기 힘들다 = 자본생산성이 낮아짐 = 사회에 창출하는 부가 줄어들 = 이것이 심해지면 = 디플레 = 부의 축소가 일어날 수 있음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경기 부양으로 갑니다.

기출이 지문 내용 연결 보이셔야 하고,

기출연계 1단락 압축 사전정보 세팅이 보여야 합니다.

그게 의도이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출제 의도에 따른 접근이 됩니다.

지문 풀겠습니다.

2019년 ebs 수능특강 양적완화 경제지문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특정한 단기 금리를 정책 금리*로 정하고 이를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확대하여 소비 및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리 중시 통화 정책이었다. 정책 금리를 낮춰 시장 금리*도 낮아지면 기업은 낮은 이자로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와 생산을 늘리게 된다. 가계 역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통해 소비를 늘릴 여력이 발생한다. 투자와 소비가 늘면 고용과 생산이 증가하고, 다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면서 경제 전체가 순환을 그리게 된다.

경기 침체 때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말한다.

이미 기출연계로 잡을 수 있으니 활용바라며,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기출. 연계. 원리

통화정책 전체 흐름 정리
 P 경기침체시 S 금리↓ (내용은 없지만 기출바탕)
 ⇨ 통화량↑ ⇨ 유동성 ↑ ⇨ 소비투자↑
 정책금리↓ ⇨ 시장금리↓ ⇨ 신용대출↑ ⇨ 투자생산↑
 투자소비↑ ⇨ 고용생산↑ ⇨ 소비투자↑ ⇨ 경기↑
 (하지만, 결국 이 내용도 기출 연계이므로, 내용 불충분. 앞서 정리한 내용 참고.)

MMT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정책 금리를 낮추었지만,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국제* 투자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자.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그 채권의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며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채권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높은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비싸진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채권 매입과 같은 투자를 기피하고, 위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비도 위축되면서 시중에 돈이 충분하게 공급되어도 돈을 그냥 쌓아 두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양적완화라 한다.

P 유동성의 함정 문제 제기 후

C 채권가격원리 설명으로 원인 분석 후

S 양적완화라는 해결책 제시로 이어지는 구조

2 P글로벌금융위기

P 유동성의 함정
금리↓ ⇨ 경기 변동 없음 (전통적 통화 정책 안 먹힘)

C1. 채권 가격 변동원리 채권가격↑ ⇨ 이자율↓

채권선호↑ ⇨ 채권수요↑ ⇨ 채권가격↑ ⇨ 이자낮아도 됨
 ⇨ 이자율↓ ⇨ 수익률↓ ⇨ 채권 투자 기피, 소비위축↓
 ⇨ 신용/대출/유동성↑, 소비투자유보

S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위와 같이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기출지문과 다른 특징은

1. 정보량이 터지면서도
2.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정보량이 제한적입니다.
3. 결과적으로 주제와 정보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지 못합니다.

즉, 정보 처리 자체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해법은 기출 구조와 닮아있으니, 기출 접근법 그대로 봅니다.

평가원 수능 국어 지문의 설계

1.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
2. 구조
3. 하향식 / 상향식
4. 전형적인 구조, 인과, 원리, 수학 공식 등 이해 적용

결국.

1단락 내용은

기출 연계 배경지식 바탕 설명하는 인과이기 때문에 정리간단.

2단락 내용 다시 봅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정책 금리를 낮추었지만,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한다.

P 유동성의 함정을 끌고 오기 위한 정보 세팅 보일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국제* 투자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자.

C 국제 가격 결정 원리로 P의 원리 설명 후 S 세팅 보입니다.

기출 연계 압축

전통적 통화정책

주제 원리 기출연계

P→S 채권 가격 결정 원리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그 채권의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며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간단히 설명 즉 환원으로 원리를 좀 더 풀어줍니다.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채권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높은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이 반대 상관관계임을 설명

이미 비싸진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채권 매입과 같은 투자를 기피하고, 위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비도 위축되면서 시중에 돈이 충분하게 공급되어도 돈을 그냥 쌓아 두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한, 인과적 상황. 결국 유동성의 함정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양적 완화라 한다.

해결방법은 역시 양적완화.

양적 완화는 금리 조정만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없을 때, 신용 완화나 국가의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더욱 확대하는 정책이다.

3단락 소주제인 양적완화에 대한 정의 세팅.

적극적인 통화 공급을 하기 때문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행위로 비유하기도 한다.

비유로 보충 설명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우선 ‘신용 완화 정책’으로,

1. 신용완화 정책

이는 은행의 대출 등 신용 공급을 확대하고, 부실한 은행이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원리 설명. 이미 정보량 터지는게 보이니, 필요시 발췌독이나, 비교 대조 정보 처리를 염두하고 처리합니다.

대출/신용↑ 부실은행,기업 채권 매입.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그리고 ‘버냉키식 양적 완화 정책’은

2. 버냉키식 양적 완화 정책

초저금리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국채 등의 안전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이 줄어들면서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통화량은 늘어난다. 따라서 금리 하락이 유도되면서 가계, 기업 및 금융 기관 등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낮춰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내용은 없지만

이미 금리가 낮으면

국가가 정책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더 이상 대출/신용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채등의 안전자산을 매입, 시장에 통화량을 확대시키고, 국채 매입으로 시중 금리 하락을 유도하며,

금리 하락 유도로 대출/신용 확대를 좀 더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적 통화 재정책’이 있다.

3. 명시적 통화 재정책이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유효 수요 부족시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아닌 중앙은행이 가진 화폐 발행 권한을 통해 상환 부담 없는 통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MMT 현대통화 이론이라고도 하는 방법인데

Modern Monetary Theory

원래 화폐는 근거가 되는 금과 같은 자산과 연동이 되어있어야, 갑자기 세상에 없던 ‘부’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없던 ‘부’가 새로 생기면

그만큼이 ‘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 기존에 100만원의 부가 존재하는 세상이 있는데

정부에서 100만원의 화폐를 근거하는 자산 없이 종이돈 찍어내기만 하면, 당연히, 100만원만큼의 가치가 있는 세상에

갑자기 200만원의 화폐가 돌아다닙니다.

결국 100만원 하던 건물이 있었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의 경쟁이 붙으니 인플레이가 일어나는데,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매뉴얼

승수효과에 의해 그 인플레이션은 어마어마해지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수반됩니다.

승수효과란?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100만원이 세상에 풀다면,

A가 은행에서 100만원을 대출받고,

거래를 통해 100만원 만큼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B가 팝니다.

A는 장부상에 100만원짜리 건물

B는 현금 100만원이 생깁니다.

다시 B는 그 100만원을 은행에 저축

은행의 예금액은 100만원 + 대출액 100만원

다시 은행은 예금의 지급 준비 10%만 남기고 90만원을 C에 대출합니다.

C는 90만원을 가지고 다시

D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삽니다.

그러면 D는 다시 그 90만원을 은행에 맡기죠

은행의 예금액은 다시 100만원 + 대출액 190만원...

이런식으로

100만원의 통화는 계속 돌고 돌아 어마어마하게 큰 돈으로 불어 나는데, 문제는 돈은 늘고, 세상의 자산은 한정적이니

당연히 자산가격이 폭등하며 물가도 폭등합니다.

당연히 인플레이가 일어나 일반 서민들의 삶이 괴롭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극심한 유효 수요 부족시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아닌 중앙은행이 가진 화폐 발행 권한을 통해 상환 부담 없는 통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걸하면,

당연히 인플레이 위험은 있지만

그만큼 시중 통화량은 극대화되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립니다.

이러한 방식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정 지출과 같이 정부의 재정 적자*는 발생하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어 공공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인 양적 완화 방식과 달리 정부의 재정 적자는 발생하지만 상환 부담이 없어 시중의 통화량 증대가 영구적이란 특징도 있다.

그 장점과 특징.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한 ‘질적 완화 정책’도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달리 중앙은행 자산의 질적인 구성 변화를 통해 금융 안정을 가져오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4. 질적 완화 정책

이것은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자산의 질적 변화인데

즉 중앙은행의 자산이나 부채 규모에는 변동이 없지만 위험도가 낮은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 대신 위험도가 높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위험자산에 투자

또한 ‘신용 완화 정책’과 달리 ‘질적 완화 정책’은 부실 자산이 아닌 투자 수익률이 불확정적인 위험 자산을 매입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험자산에 투자

부실자산과 위험자산은 다릅니다.

부실자산-부실채권은 부도가 난 채권/자산이고

위험자산은 부도의 위험성이 있거나,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큰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기출과 연결되는 흐름인데,

사람들이 경제위기가 오면

1. 심리적 불안
2. 소비/투자 유보
3. 그 과정에 물리는 안전자산에 투자
4. 안전자산의 급등과 버블

이라는 문제가 생겨나니

그 안전자산에 몰릴 급등과 버블을

정부가 위험자산에 투자함으로써

5. 위험자산으로 안전자산의 버블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보량이 터졌고, 사실 발췌독으로 처리할 것이지만,

연습차원에서 표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1단락 주제	전통적 통화정책 원리 압축	
2단락 주제	P 유동성의 함정 C 채권가격 변동원리 S 양적완화	
3단락 정보군집 1	신용 완화 정책	신용/대출 확대 중앙은행이 부실채권 매입
3단락 정보군집 2	버냉키식 양적 완화 정책	중앙은행이 안전자산 매입 금리하락유도 신용/대출유도
3단락 정보군집 3	명시적 통화재정책	근거 없는 통화 발행 적자발생. 상환부담no 공공적자 없음 통화량 증대 영구적
3단락 정보군집 4	질적 완화 정책	중앙은행이 위험자산 매입

이제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은 경기 부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P 양적완화의 한계

정부가 민간 의 위험 요소들을 대신 책임지는 부분을 통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P1 도덕적 해이

정책이 목표했던 수준을 넘어선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할 수도 있다.

P2 인플레 - 버블

따라서 양적 완화로부터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회귀하는 출구 전략을 시행할 때에는 그 시기와 방법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S 출구전략 신중히!

항상 묻는 주제 + 구조 문항

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기 침체 과정에 따른 시기별 통화 정책을 설명하고, 각 정책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 ② 경기 침체 발생 과정을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특정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정책의 시행 방법과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확한 주제

P - C - S 구조!

- ④ 경기 침체와 정책 금리의 관계를 고찰하고, 자산 매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대비되는 정책의 발전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경기 침체의 원인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특정 정책의 시행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책 금리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핵심원리 놓치지 않습니다.

금리 낮추면, 신용 대출 늘고, 당연히 소비 투자 늘어야합니다

경기 부양	중앙은행(FRB)	채권 ← ⇒ 달러	정부
	시중은행	달러 ← ⇒ 채권	
정부가 시장의 채권 매입 결과 시장의 통화량 ↑ 채권 가격 ↑ 금리 ↓ (이 내용은 추후 EBS수특) ²⁵⁾			
시중은행	C 금리 ↓ ⇔ E 신용/대출 ↑	가계/기업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임. 정부의 채권 구입으로 채권 가격 상승 / 금리 하락 또한, 정부가 채권 대신 돈을 시중은행에 시중은행에는 돈이 많고, 대출 여력이 생기고, 대출 줘야 수익이 나고, 대출 경쟁이 붙고, 결국 금리도 낮아짐 금리 낮으니 대출 더 쉬움			
가계/기업	C 소비/투자 ↑ ⇔ E 수요/공급 ↑ ⇒ 경기 활성화 / 구매력 증가 ⇒ 물가 상승 ²⁶⁾		
자본주의 : 자본이 생산수단 소유 생산 ↑ ⇔ 소득은 자본가에 집중 물가 ↑ ⇔ 비자본가의 실질소득은 감소 결국, 사회적 불만/문제 발생 과거 이를 방지 = 혁명 / 폭동 / 대공황등의 문제			

25) 채권 가격이 높아짐 = 채권 가치가 높아짐 = 채권에 이자를 많이 줄 필요 없음 = 금리 낮아짐

26) 통화량이 늘었고, 그래서 구입을 할 수는 있는데, 생산 설비는 수요를 따라오기 힘들. 따라서,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고, 이에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매뉴얼

② 채권이 비싸지면 채권 수익률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인해 채권 투자가 늘어난다.

핵심원리 놓치지 않습니다.

채권 비싸지면, 금리 낮아지고, 수익률 낮아집니다.

2 P글로벌금융위기

1. 채권 가격 변동원리 채권가격↑ ⇨ 이자율↓

채권선호↑⇨채권수요↑⇨채권가격↑ ⇨ 이자낮아도 됨
 ⇨ 이자율↓ ⇨ 수익률↓ ⇨채권 투자 기피, 소비위축↓
 ⇨ 신용/대출/유동성↓, 소비투자유보

③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유효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상식. 하향식. 주제. 금리 높아지면, 당연히 조달비용 높아지죠

④ ‘버냉키식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은행 외의 금융 기관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행 된다.

당연히 정책의 주체는 중앙은행!

⑤ 양적 완화 정책은 정책의 목표 수준을 넘어선 물가 상승이나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역시! 마지막 단락 P-S 구조 보이시죠? 정답!

4 한계. 해결책

P 잠재적 위험성 C1 도덕적 해이 (← 정부의 민간 부담)
 C2 인플레이 (+ 통화량증가, 자산가치폭등)
 S 출구전략 신중히

3.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따라 물가가 오르게 됨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 보기 >

A국은 경기가 침체되자 우선 정책 금리를 낮추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1단락 전통적 통화정책 적용

그런데 금리가 하한에 도달하였지만 시장에 유동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2단락 P-C-S 양적완화

3단락의 양적완화 내용을 정리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A국의 중앙은행은 **대출 기준 완화와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는 정책과 더불어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였다.** 더불어 민간 은행의 부실한 채권을 **특정하여 매입함으로써** 금융 심리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책의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서,

4단락 출구 전략으로 한계 - 해결 할거예요!

A국의 중앙은행은 저금리 정책에서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① A국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먼저 시행하였군.

보기 첫 줄 확인

② A국의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인 ‘신용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군.

보기 두 번째 줄

③ A국의 중앙은행은 가계, 기업 및 금융 기관 등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고자 하였군.

유동성 공급. 금리 낮추고, 신용/대출 증가!

1단락 주제	전통적 통화정책 원리 압축	
2단락 주제	P 유동성의 함정 C 채권가격 변동원리 S 양적완화	
3단락 정보군집 1	신용 완화 정책	신용/대출 확대 중앙은행이 부실채권 매입
3단락 정보군집 2	버냉키식 양적 완화 정책	중앙은행이 안전자산 매입 금리하락유도 신용/대출유도 근거 없는 통화 발행 적자발생. 상환부담no 공공적자 없음 통화량 증대 영구적
3단락 정보군집 3	명시적 통화재정책	
3단락 정보군집 4	질적 완화 정책	중앙은행이 위험자산 매입

④ A국의 중앙은행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여 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군.

위험자산과 부실채권은 다릅니다 정답!

⑤ A국의 정책 금리가 하한에 도달하였을 때, 신규 채권 가격은 정책 금리를 낮추기 전보다 상승했겠군.

양적 완화를 통해, 채권 매입 - 채권가격 상승 하겠죠?

4.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모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한다. **X**

② ㉠~㉣은 모두 유효 수요 감소를 위한 것이다.

유동성 늘립니다. 소비 투자 늘립니다!

③ ㉠과 달리 ㉡은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 재정적자는 발생하지만, 공공적자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채권 발행-정부지출을 늘리면 적자 발생!

④ ㉠과 달리 ㉢은 통화량의 증가가 영구적이다.

㉠이 영구적입니다.

⑤ ㉡과 달리 ㉠은 공공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비교대조. 표그려 발췌독이 가장 편합니다!

‘㉠명시적 통화 재정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정 지출

㉢일반적인 양적 완화 방식

1단락 주제	전통적 통화정책 원리 압축	
2단락 주제	P 유동성의 함정 C 채권가격 변동원리 S 양적완화	
3단락 정보군집 1	신용 완화 정책	신용/대출 확대 중앙은행이 부실채권 매입
3단락 정보군집 2	버냉키식 양적 완화 정책	중앙은행이 안전자산 매입 금리하락유도 신용/대출유도
3단락 정보군집 3	㉠명시적 통화재정채 vs ㉡채권 발행 재정 지출	근거 없는 통화 발행 적자발생. 상환부담no 공공적자 없음 통화량 증대 영구적
3단락 정보군집 4	질적 완화 정책	중앙은행이 위험자산 매입
	㉢일반적인 양적완화	

글 전체 주제

5. 유동성의 함정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민간에 화폐 공급량이 충분하게 되지 않아 수요가 부족하게 나타난 것이다.

원리 이해.

유동성의 함정 = 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을 늘려도

P 유동성의 함정

C심리 E소비/투자 안함

② 낮은 금리하에서 저축 대신 대출이 급증하면서 민간 신용에 위기가 나타난 것이다.

대출을 늘리는 것이 양적완화

③ 시장에 통화량을 공급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낮추었지만 시장 금리가 이에 역행하여 나타난 것이다.

금리를 낮춰 대출 늘려 양적완화

주제 원리 잡으세요

④ 경기 회복을 위해 시중에 통화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정확한 주제. 정답

P-C-S 보일겁니다.

⑤ 낮은 금리 부담으로 인하여 민간의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위축되어 그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2019년 시행 3월 학평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식회사는 오늘날 회사 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은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
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식 발
행을 통해 조성된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금을 정관의 기재
사항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수권주식총수를 정관에 기
재하게 하여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권주
식총수만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로, 수권주식총수를 통해 자본금
의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권주식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되는데, 발행하는 주
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출자
자를 누구로 하는지, 그 출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이 몇 주인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
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총합이 바로 주식회사의 자
본금이 된다. 회사가 수권주식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
식은 추후 이사회 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
가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
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되는데, 1주의 액면주식은 둘 이상으
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주식회사가 액면가액을 표시
한 액면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은 그 금액이 균일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주
식의 총액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
한 금액의 총합과 같다.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
율에 따라 이익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면서 회사에 대해 유한책임
을 진다. 유한책임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주의
유한책임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가중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말미
암아 자본 조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경
우도 있다. 자본금이 큰 회사이지만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에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신용도
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도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의 손해
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파산이나 부도 등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대한 법 규정에서
는 자본금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 유지의
원칙은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본금
에 해당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본 총
실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만일 여러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
는데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 회사는 부실화되고 외부의
위험에도 취약해진다.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
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 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반면에 자본금의 감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을 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만 이행해야 하는 강행법으로 하고, 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정관의 변동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주식회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 정관 :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 기록한 문서.

22.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액면주식 1주는 둘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②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가진다.
③ 주주는 소유한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익을 배당
받는다.
④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⑤ 주식회사의 정관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23. <보기>는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정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만 주로 한다.
 제6조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천 원으로 한다.
 제7조 당 회사는 설립 시에 5천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 ①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주식총수는 1만 주이며 수권자본금은 5천만 원이다.
- ② 갑이 주식 1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의 제7조를 수정해도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하다.
- ③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식 1만 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 ④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은 2천5백만 원이다.
- ⑤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이 회사의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 회사는 설립 시에 액면가액 5천 원의 주식을 1백만 주 발행하였고 홍길동은 이 주식의 80%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 이후 A 회사는 B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25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B 회사는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15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후 C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를 액면가액으로 사들였다. A, B, C 회사는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여 자본금에 관한 원칙을 위배했다.

- ① A 회사가 파산한다면 C 회사의 이해 관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군.
- ② B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A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겠군.
- ③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 회사와 C 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
- ④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 회사가 인수하였다더라도 C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겠군.
- ⑤ A, B, C 회사에 출자된 실제 자본금은 90억 원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난 A, B, 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과 동일하겠군.

25.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목적은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 ② ㉡을 통해 소액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은 자본금 감소를 엄격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 ④ ㉠, ㉡은 모두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자금 운용 내역을 알 수 있게 한다.
- ⑤ ㉠, ㉡은 모두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주식 양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26.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우리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갔다.
- ② 돌맹이가 발길에 자꾸 거쳐 다니기가 불편하다.
- ③ 그는 매일 아침 학교 앞 사거리로 거쳐서 회사로 간다.
- ④ 그 일들은 우리가 합의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것이다.
- ⑤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마음에 거칠 것이 없어졌다.

2019년 시행 3월 학평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적절한 구체성
주제
기출:17 연계
하향식 자본주의

독립 정보군집

하향식

주식회사는 오늘날 회사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은 1.자본금, 2.주식, 3.유한책임
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의 관련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식 발
행을 통해 조성된다. 발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금을 정관의 기재
사항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1.수권주식총수를 정관에 기
재하게 하여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권주
식총수만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로, 수권주식총수를 통해 자본금
의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1.수권주식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되는데, 2.발행하는 주
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 여기서 3.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출자
자를 누구로 하는지, 4.그 출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이 몇 주인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5.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
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6.그 금액의 총합이 바로 주식회사의 자
본금이 된다. 회사가 수권주식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
식은 추후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
가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2.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
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1.자유롭게 양도되는데, 2.1주의 액면주식은 둘 이상으
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3.주식회사가 액면가액을 표시
한 액면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은 그 금액이 균일하여야 하며
4.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5.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주
식의 총액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
한 금액의 총합과 같다.

권리 의무, 하향식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
율에 따라 이익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면서 회사에 대해 유한책입
을 진다. 유한책임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주의
유한책임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가중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말미
암아 자본 조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경
우도 있다. 자본금이 큰 회사이지만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에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신용도
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도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의 손해
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파산이나 부도 등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P S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대한 법 규정에서
는 자본금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1. 자본 유지의
원칙은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본금
에 해당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본 총
실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단일 여러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
는데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 회사는 부실화되고 외부의
위험에도 취약해진다. 3.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
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 결
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반면에 자본금의 감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을 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만 이행해야 하는 강행법규로 하고, 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정관의 변동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주식회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순환출자
자본주의
(금융)

*정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 기록한 문서.

주제, 정보가치 ↑

22.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향식

- 1. 액면주식 1주는 둘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필, 발
책임
2.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가진다. 유한책임
권리
3. 주주는 소유한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익을 배당
받는다.
4.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유한책임 필, 발
5. 주식회사의 정관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필, 발

2017 기출

지문원리 보기사례적용

23. <보기>는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정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만 주로 한다.
 제6조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천 원으로 한다.
 제7조 당 회사는 설립 시에 5천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 ①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주식총수는 1만 주이며 수권자본금은 5천만 원이다. **주제 원리 이해적용**
- ② 갑이 주식 1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의 제7조를 수정해도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하다. **2단락 1, 일부 발행**
- ③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식 1만 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 ④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은 2천5백만 원이다.
- ⑤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이 회사의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 회사는 설립 시에 액면가액 5천 원의 주식을 1백만 주 발행하였고 홍길동은 이 주식의 80%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 이후 A 회사는 B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25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B 회사는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15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후 C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를 액면가액으로 사들였다. A, B, C 회사는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여 자본금에 관한 원칙을 위배했다.** **㉠ 예시,P**

- ① A 회사가 파산한다면 C 회사의 이해 관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군.
- ② B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A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겠군.
- ③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 회사와 C 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
- ④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 회사가 인수하였다더라도 C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겠군.
- ⑤ A, B, C 회사에 출자된 실제 자본금은 90억 원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난 A, B, 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과 동일하겠군.

P→S

25.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목적은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X 주제 이해**
- ② ㉡을 통해 소액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P 이해**
- ③ ㉡은 자본금 감소를 엄격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P→S 이해**
- ④ ㉠, ㉡은 모두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자금 운용 내역을 알 수 있게 한다.
- ⑤ ㉠, ㉡은 모두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주식 양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26.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우리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갔다.
- ② 돌맹이가 발길에 자꾸 거쳐 다니기가 불편하다.
- ③ 그는 매일 아침 학교 앞 사거리로 거쳐서 회사로 간다.
- ④ 그 일들은 우리가 합의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것이다.
- ⑤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마음에 거칠 것이 없어졌다.

지문원리 보기사례적용

P, ㉠ 예시 순환출자 서류상 차별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전형적 구조
 주식회사
 1. 자본금
 2. 주식
 3. 유한책임

2 정보군집
 1. 자본금
 C 주식발행 E 자본금
 1. 최저 자본 제한 없음
 2. 정관기재사항 아님

중요!
 수권 주식 총수 : 발행주식총수
 수권 자본금 : 자본금 최대한도

1. 일부만 발행가능
 2. 모두 인수
 3. 출자자 누구
 4. 출자자 인수 주식 수
 5. 금액 납입
 6. 주식회사 자본금
 7. 이사회 결의로 발행
 C 쉬운 자본 조달

3 정보군집
 주식발행 ⇨ 자본금 조달
 1. 주식 자유 양도
 2. 액면주식 분할 양도 불가
 3. 액면가액 균일 100원이상
 4. 액면주식 총액 = 납입총액

4
 유한책임 = 권리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에 해당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

5 P
 P 경제적 피해

6 S
 S1 자본 유지 원칙
 - 순환출자등의 문제
 S2 자본 불변의 원칙
 - 자본금 감소 법적 절차
 S3 강행법
 - 변동사항 공고

사실. ebs 지문 한계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 구조 집중력 떨어지고,
 세부내용 폭발

하지만, 여전히 해법은 동일.
 주제, 구조, 정보가치 높은 내용, 수능 기출 연계 흐름.

1단락
 주식회사 요소 세팅
 1. 자본금
 2. 주식
 3. 유한책임

2단락
 자본금
 주식발행으로 조달
 수권주식 총수
 수권 자본금
 10개 정보군집

3단락
 주식
 1~4개 정보군집

4단락
 유한책임
 주제

5단락
 P 경제적 피해 가능성

6단락
 S1 자본유지
 S2 자본불변
 S3 강행법

ebs지문의 특징도 있지만

평가원 기출 구조 바탕 접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접근이 훨씬 편한 접근 정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2017수능 기출 사단법인 지문 연계로

주식회사라는 소재가 1~4하나의 주제로 잡히기도 하지만

5~6단락의 P-S구조로 순환출자, 자본주의 원리 흐름을 잡으려 한 것이 문항 설계 의도입니다.

바로 순환출자 문항부터 봅시다.

84페이지 내용 참고바랍니다.

	A사	B사	C사	D사	E사	다시 A에게
현금	100	100	180	350	600	1000
투자 받은 인정 자산 OR 은행 담보 자산 가치		100	180	350	600	
위의 금액 근거 은행은 대출 해줌						
대출		80	170	250	400	
대출 이후 현금 보유		180	350	600	1000	
투자 잔액	100	180	350	600	1000	1000
잔액	0	0	0	0	0	1000

위의 내용이 바로 순환출자입니다.

A사는 최초 100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액 투자하여 B사를 만듭니다.

B사는 100억의 자산이 생깁니다.

B사는 자신의 100억 자산 근거로 은행에게 80억 대출 받습니다

그렇게 현금 180억이 되면

다시 그것을 또

C사에 투자하여 C사는 180억의 현금 보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70억 대출

결국 현금 보유는 350억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D사에 투자

D사의 현금 350억, 이것을 담보로 250억 대출

결국 600억 현금

다시 또 E에 투자

E사 현금은 600억, 이것을 담보로 다시 400억 대출
결국 1000억

이것을 다시 A사에 보내면?

네.

100억으로 10배인 1000억이 똑딱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한다면, 1000을 1조로

1조를 10조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지고

실제 이렇게 했습니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 회사는 설립 시에 액면가액 5천 원의 주식을 1백만 주 발행하였고 홍길동은 이 주식의 80%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 이후 A 회사는 B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25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B 회사는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15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후 C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를 액면가액으로 사들였다. A, B, C 회사는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여 자본금에 관한 원칙을 위배했다.

5000*10000000=50억 주식 발행

홍길동 80% 인수 / 납입 = 자본금 40억

	A사	B사	C사	다시 A에게		계	
자본	40	25	15	10	40	90억	서류
투자	25	15	10				
잔액	15	10	5	10	15	40억	실제

하지만 순환출자로 서류상 자본금은 90억

실제 현금은 40억

당연히 부도 나면 -50억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답 5번! 주제. 구조. 5-6단락 주제 구조 보시면 됩니다!

- ⑤ A, B, C 회사에 출자된 실제 자본금은 90억 원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난 A, B, 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과 동일하겠군.

5 P
P 경제적 피해

6 S
S1 자본 유지 원칙
- 순환출자등의 문제
S2 자본 불변의 원칙
- 자본금 감소 법적 절차
S3 강행법
- 변동사항 공고

① A 회사가 파산한다면 C 회사의 이해 관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군.

② B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A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겠군.

역시 5~6단락 주제! P

③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 회사와 C 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

상식. 하향식.

④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 회사가 인수하였다더라도 C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겠군.

C회사에 들어온 돈이 따로 없습니다.

22.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액면주식 1주는 둘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세부내용. 필요시 발췌독 갑니다.

②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가진다.

③ 주주는 소유한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익을 배당받는다.

4단락 주제. 책임과 의무.

④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2단락 소주제 + 4단락 소주제. 정답!

수권자본금은 최대자본금이지만, 전부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주식회사의 정관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내용 필요시 발췌독

발췌독을 하도 2~4번선지.

주제에 밀접한 선지 발췌독 가기 바랍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며 원리를 잡았고

특히 수권자본금/수권주식 총수 중 일부만 발행해도 됩니다!

바로 23번 문제로 이어집니다.

23. <보기>는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정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갑이 주식 1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의 제7조를 수정해도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하다.

일부만 발행해도 됩니다! 가능!

③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식 1만 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일부만 발행해도 됩니다! 틀렸죠! 정답!

< 보 기 >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만 주로 한다.

수권주식 총수

제6조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천 원으로 한다.

10000주*5000=수권주식총액!

제7조 당 회사는 설립 시에 5천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하지만 일부발행 가능!

①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주식총수는 1만 주이며 수권자본금은 5천만 원이다.

수권자본금은 10000*5000=5천만원!

④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은 2천5백만 원이다.

절반을 주식발행. 그러니 2500만원 맞습니다!

⑤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이 회사의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세부내용 필요시 발췌독 갑니다.

즉, 세부내용으로 답이 나오는 것 같지만

역시 정보가치 높은 내용들에서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 구조 봅니다.

25.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 목적은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그러면 투자자/채권자 보호가 더 안 됩니다.

② ㉡을 통해 소액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소액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③ ㉢은 자본금 감소를 엄격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P-S 해결책. 정답!

구조/주제 집중해주세요!

④ ㉠, ㉡은 모두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자금 운용 내역을 알 수 있게 한다.

⑤ ㉠, ㉡은 모두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주식 양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세부내용 필요시 발췌독이지만,

역시 주제/구조 정답이 바로 3번 선지에서 보였습니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A)일 때 (B)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C)하도록 하고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 | | A | B | C | D |
|---|----|----|----|----|
| ① | 불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② | 호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③ | 불황 | 거시 | 적립 | 미시 |
| ④ | 호황 | 미시 | 적립 | 거시 |
| ⑤ | 불황 | 미시 | 사용 | 거시 |

30.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든다.
- ②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다.
- ③ 그분은 이미 대가의 경지에 든 학자이다.
- ④ 하반기에 들자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 ⑤ 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로 했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 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한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비블에 따른 금융 불안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단어 뜻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주제+전개방식

1.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P -> S

- 1.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P -> S
1.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필발, 2단락 소주제
2.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미시, 주제
3.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S2 P -> S 필발, 단락 소주제
4.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5.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C:통화량 ↑ E:버블 P

2.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필발
2.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주제
3.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상식+하항식 바탕
4.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5.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P: 개별 은행 위기

S: BIS

2008 리먼 CDS 프리미엄

상식 위배

주제

3.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A)일 때 (B)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C)하도록 하고,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 | | | | | |
|---|------|----|------|----|
| | A | B | C | D |
| ㉠ | 불황 P | 거시 | 사용 S | 미시 |
| ㉡ | 호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 | 불황 | 거시 | 적립 | 미시 |
| ㉣ | 호황 | 미시 | 적립 | 거시 |
| ㉤ | 불황 | 미시 | 사용 | 거시 |

4.30.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 ㉠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 ㉡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P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보기 주제 해법 X S 없음 오히려 문제
- ㉣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5.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든다.
- ㉡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다.
- ㉢ 그분은 이미 대가의 경지에 든 학자이다.
- ㉣ 하반기에 들자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 ㉤ 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로 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기출연계. 1단락
압축 제시
 통화정책 흐름 정리
 경기 과열 ⇨ 금리인상↑
 ⇨ 대출감소↓ ⇨ 신용공급↓
 ⇨ 수요↓ ⇨ 물가안정↓
 ⇨ 경기진정↓
 경기 침체 : 반대 과정

2 P-C-S
 전통적 경제학
 금융감독 정책 : 개별금융=미시
 C 금융이 생산수단 x
 E 장기 경제 성장 영향 x
 C 자산 가격 버블 X
 E 개별 금융 예방 규제
 EX) 자기자본 하한
 P 뱅크런 S BIS 비율
 (배경지식)

3 P-C-S
 전통적 경제학
 금융감독 - 금융안정
 통화정책 - 물가안정
 VS
 글로벌 금융위기
 P 시스템 와해
 S 미시 + 거시 (시스템)
 C1 저금리 E.P 버블
 C2 버블 E.P 금융불안
 C3 대형화 E.P 시스템 붕괴

4 S 원리
 거시건전성 = 미시+거시
 역시 예방. +차별적

5 P - S 원리
 P 경기 순응성 :
 경기호황↑ ⇨ 은행 대출↑
 ⇨ 신용/대출 팽창↑
 ⇨ 자산가격↑ ⇨ 경기과열↑
 불황 반대
 S 완충자본 제도 :
 경기 호황 = 완충자본 확보
 ⇨ 은행 대출 제한↓
 ⇨ 신용/대출 감소↓
 ⇨ 자산가격↓ ⇨ 경기과열↓
 경기 불황 = 완충자본 사용
 ⇨ 은행 대출 제한↑
 ⇨ 신용/대출 증가↑
 ⇨ 자산가격↑ ⇨ 경기↑

사실, ebs 지문 한계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
 용, 구조 집중력 떨어지
 고,
 세부내용 폭발
 하지만,
 여전히 해법은 동일.
 주제,
 구조,
 정보가치 높은 내용,
 수능 기출 연계 흐름.

1단락
 전통적 통화 정책
 금리-대출-신용-수요-물가
 원리.
 기출 연계 배경지식

2단락
 전통적 경제학
 PCS
 P 개별 금융회사 문제
 C 생산수단 X
 C 버블 X
 S 자기자본 비율

3단락
 글로벌 금융위기
 P 시스템 와해
 C1 저금리 E.P 버블
 C2 버블 E.P 금융불안
 C3 대형화 E.P 시스템
 붕괴
 S 미시 + 거시 (시스템)

4단락
 거시 해결책 상술

5단락
 거시 해결책 적용
 P 경기 순응성
 S 완충 자본 제도

쉽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의 경제학 지문 흐름을 총 정리/집대성하는 성격이기 때
 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1단락

2018학년도 6평 통화정책 흐름 잡았습니다.

2단락

제 수업 설명 바탕으로 보시다시피

그 당시 문제는

P 뱅크런

S 자기자본 비율 확보

였습니다.

3단락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어마어마한 부실 채권이 터집니다

해법은 거시 정책

4단락

상술하려다 흐름만 잡고

5단락

S 완충자본 제도 원리

기존 내용에 이 지문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6월 1단락 내용 다시 가져옵니다. **전통경제학**

경기 부양	중앙은행(FRB)	채권 ← ⇨ 달러	정부
	시중은행	달러 ← ⇨ 채권	
정부가 시장의 채권 매입 결과 시장의 통화량 ↑ 채권 가격 ↑ 금리 ↓ (이 내용은 추후 EBS수특) ²⁷⁾			
	시중은행	C 금리 ↓ ⇨ E 신용/대출 ↑	가계/기업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임. 정부의 채권 구입으로 채권 가격 상승 / 금리 하락 또한, 정부가 채권 대신 돈을 시중은행에 시중은행에는 돈이 많고, 대출 여력이 생기고, 대출 줘야 수익이 나고, 대출 경쟁이 붙고, 결국 금리도 낮아짐 금리 낮으니 대출 더 쉬움			
	가계/기업	C 소비/투자 ↑ ⇨ E 수요/공급 ↑ ⇨ 경기 활성화 / 구매력 증가 ⇨ 물가 상승 ²⁸⁾	
자본주의 : 자본이 생산수단 소유 생산 ↑ ⇨ 소득은 자본가에 집중 물가 ↑ ⇨ 비자본가의 실질소득은 감소 결국, 사회적 불만/문제 발생 과거 이를 방지 = 혁명 / 폭동 / 대공황등의 문제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를 진정시켜 물가를 낮추려 합니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진정	중앙은행(FRB)	달러 ← ⇨ 채권	정부
	시중은행	채권 ← ⇨ 달러	
정부가 시장의 채권 매도 결과 시장의 통화량 ↓ 채권 가격 ↓ 금리 ↑ (이 내용은 추후 EBS수특)			
	시중은행	C 금리 ↑ ⇨ E 신용/대출 ↓	가계/기업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임. 정부의 채권 판매으로 채권 가격 하락 / 금리 상승 또한, 정부가 돈 대신 채권을 시중은행에 시중은행에는 돈이 없고, 대출 여력이 없고, 대출 수요는 많고, 결국, 금리 높아짐 금리 높으니 대출 더 어려움			
	가계/기업	C 소비/투자 ↓ ⇨ E 수요/공급 ↓ ⇨ 경기 안정 / 구매력 감소 ⇨ 물가 하락/진정	
자본주의 : 자본이 생산수단 소유 생산 ↓ ⇨ 자본가가 어려움/유지 물가 ↓ ⇨ 비자본가의 실질소득은 증가/유지 기존에 발생한 사회적 불만/문제 해소 방지 = 혁명 / 폭동 / 대공황등의 문제 해소. 하지만 자본가가 수익을 얻기 힘들다 = 자본생산성이 낮아짐 = 사회에 창출하는 부가 줄어들 = 이것이 심해지면 = 디플레이 = 부의 축소가 일어날 수 있음			

27) 채권 가격이 높아짐 = 채권 가치가 높아짐 = 채권에 이자를 많이 줄 필요 없음 = 금리 낮아짐
 28) 통화량이 늘었고, 그래서 구입을 할 수는 있는데, 생산 설비는 수요를 따라오기 힘들. 따라서,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물가가 오르게 됨

여기에 정보추가합니다. 지문 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 부양	중앙은행(FRB)	채권 ← ⇨ 달러	정부
	시중은행	달러 ← ⇨ 채권	
정부가 시장의 채권 매입 결과 시장의 통화량 ↑ 채권 가격 ↑ 금리 ↓			
	시중은행	C 금리 ↓ ⇨ E 신용/대출 ↑	가계/기업
문제 원인 1. 저금리 ⇨ 통화량 증가+심리불안 ⇨ 버블 문제 원인 2. 버블 ⇨ 금융불안 문제 원인 3. 금융회사 대형화 결국 좌측에서는 이루어진 아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음 당연히! 해법은? 완충자본 제도!			

전통적 통화 정책
 경기침체 ⇨ 금리인하⇨ 대출증가⇨ 신용공급↑
 ⇨ 수요↑ ⇨ 물가↑ ⇨ 경기호황↑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 금리인하⇨ 대출증가⇨ 신용공급↑
 ⇨ 수요↑ ⇨ 물가↑ ⇨ 경기호황↑
 이게 아니라
 C1 심리불안 E 안전자산 투기. 버블
 C2 버블 E 금융불안
 C3 금융회사 대형화
문제만 발생시킴.

P 경기 순응성
 경기호황↑ ⇨ 은행 대출↑ ⇨ 신용/대출 팽창↑
 ⇨ 자산가격↑ ⇨ 경기과열↑
 즉, 여기서 자산가격이 폭등하는 과정을 잡으려면?
 은행 대출을 막으면 됨!

 경기 호황 = 완충자본 확보 ⇨ 은행 대출 제한↓
 ⇨ 신용/대출 감소⇨ 자산가격↓ ⇨ 경기과열↓

위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봅니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출연계 흐름이 이미 보였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기출연계 흐름으로 인과 구조가 보였어야 합니다.

1 기출연계. 1단락 압축 제시

통화정책 흐름 정리
 경기 과열 ⇨ 금리인상↑
 ⇨ 대출감소↓ ⇨ 신용공급↓
 ⇨ 수요↓ ⇨ 물가안정↓
 ⇨ 경기진정↓
 경기 침체 : 반대 과정

특히 기출 연계를 전제하면, 1단락에 압축 제시하는 평가원 구조를 잘 보셨어야 합니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전통적 관점

결국 개별금융=미시=은행 하나 하나 해결!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인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해법이 나오게 된 이유 C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P-S 구조. 자기자본 하한 설정으로 해결!

2 P-C-S
 전통적 경제학 금융감독 정책 : 개별금융=미시

C 금융이 생산수단 x E 장기 경제 성장 영향 x
 C 자산 가격 버블 X E 개별 금융 예방 규제
 EX) 자기자본 하한
 P 뱅크런 S BIS 비율 (배경지식)

이제 3단락 이어집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전통적 경제학 세팅 후 비교 대조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p문제제기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C 원인이 보입니다

1. 저금리 - 버블
2. 버블 - 금융 불안
3. 대형화 - 시스템 붕괴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S 해법이 보입니다.

미시 + 거시 까지

하지만 구체적 정보가 없어요.

활용 불가.

더 자세히 봅니다. 이어지는 4단락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세부 내용이 잡히지만 상식적 차원.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작은 따옴표 있으니 자세히 처리합니다.

하지만 결국 미시로는 거시를 해결할 수 없다!

끝!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미시와 거시를 비교대조 합니다.

예방한다는 것은 같은데 뭐가 다른지 잘 안 잡히는군요.

괜찮습니다.

물론 아래와 같이 잡았다면 완벽. 그 자체.

	2단락 미시	3단락 거시
공통점	예방적	
차이점	개별금융 회사	전체 시스템
차이점	금융감독 - 금융 안정 통화정책 - 물가 안정 이원적	금융감독 - 금융 안정 통화정책 - 물가 안정 상호보완

이어지는 마지막단락 봅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개념 세팅을 하지만 뭘지 모릅니다.

자세하게 이해해야 써먹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주제!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인과관계 잡고!

문제가 제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인과관계 잡고!

해결책!

마지막 단락 정리하면

5 P - S 원리

P 경기 순응성 :
 경기호황↑ ⇨ 은행 대출↑ ⇨ 신용/대출 팽창↑ ⇨ 자산가격↑
 ⇨ 경기과열↑
 불황 반대

S 완충자본 제도 :
 경기 호황 = 완충자본 확보 ⇨ 은행 대출 제한↓ ⇨ 신용/대출 감소↓ ⇨ 자산가격↓ ⇨ 경기과열↓

경기 불황 = 완충자본 사용 ⇨ 은행 대출 제한↑ ⇨ 신용/대출 증가↑ ⇨ 자산가격↑ ⇨ 경기↑

다시 전체 내용 정리 봅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기출연계. 1단락

압축 제시

통화정책 흐름 정리
 경기 과열 ⇨ 금리인상↑
 ⇨ 대출감소↓ ⇨ 신용공급↓
 ⇨ 수요↓ ⇨ 물가안정↓
 ⇨ 경기진정↓
 경기 침체 : 반대 과정

사실, ebs 지문 한계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 구조 집중력 떨어지고,
 세부내용 폭발

2 P-C-S

전통적 경제학
 금융감독 정책 : 개별금융=미시

C 금융이 생산수단 X
 E 장기 경제 성장 영향 X
 C 자산 가격 버블 X
 E 개별 금융 예방 규제

하지만,
 여전히 해법은 동일.
 주제, 구조, 정보가치 높은 내용, 수능 기출 연계 흐름.

EX) 자기자본 하한
 P 뱅크런 S BIS 비율 (배경지식)

1단락
 전통적 통화 정책
 금리-대출-신용-수요-물가
 원리.
 기출 연계 배경지식

3 P-C-S

전통적 경제학
 금융감독 - 금융안정
 통화정책 - 물가안정
 VS
 글로벌 금융위기
 P 시스템 와해
 S 미시 + 거시 (시스템)
 C1 저금리 E.P 버블
 C2 버블 E.P 금융불안
 C3 대형화 E.P 시스템 붕괴

2단락
 전통적 경제학
 PCS
 P 개별 금융회사 문제
 C 생산수단 X
 C 버블 X
 S 자기자본 비율

4 S 원리

거시건전성 = 미시+거시
 역시 예방. +차별점

3단락
 글로벌 금융위기
 P 시스템 와해
 C1 저금리 E.P 버블
 C2 버블 E.P 금융불안
 C3 대형화 E.P 시스템 붕괴
 S 미시 + 거시 (시스템)

5 P - S 원리

P 경기 순응성 :
 경기호황⇨ 은행 대출⇨
 ⇨ 신용/대출 팽창⇨
 ⇨ 자산가격⇨ 경기과열⇨
 불황 반대

S 완충자본 제도 :
 경기 호황 = 완충자본 확보
 ⇨ 은행 대출 제한⇨
 ⇨ 신용/대출 감소⇨
 ⇨ 자산가격⇨ 경기과열⇨

경기 불황 = 완충자본 사용
 ⇨ 은행 대출 제한⇨
 ⇨ 신용/대출 증가⇨
 ⇨ 자산가격⇨ 경기⇨

4단락
 거시 해결책 상술
 5단락
 거시 해결책 적용
 P 경기 순응성
 S 완충 자본 제도

문제 봅니다.

27.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제 + 구조 문항

1~3번 선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보입니다.

4~5번 선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세부내용. 물론 구조로 보면 C-E구조로 보이긴 합니다.

필요시 발췌독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주제입니다.

미시 -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이 중요했죠.

틀립니다.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정보불충분으로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필요시 발췌독 또는

	2단락 미시	3단락 거시
공통점	예방적	
차이점	개별금융 회사	전체 시스템
차이점	금융감독 - 금융 안정 통화정책 - 물가 안정 이원적	금융감독 - 금융 안정 통화정책 - 물가 안정 상호보완

표로 처리 가능. 하지만 정보량 불충분. 일단 넘깁니다.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확한 3단락 구조! 주제 보입니다!

3 P-C-S
 글로벌 금융위기
 P 시스템 와해
 S 미시 + 거시 (시스템)
 C1 저금리 E.P 버블
 C2 버블 E.P 금융불안
 C3 대형화 E.P 시스템 붕괴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3단락 세부내용. C-E 구조.

필요시 발췌독 갑니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구조로 가셔야합니다. 비교 대조. 표그리기.

	2단락 미시	3단락 거시
공통점	예방적	
차이점	개별금융 회사	전체 시스템
차이점	금융감독 - 금융 안정 통화정책 - 물가 안정 이원적	금융감독 - 금융 안정 통화정책 - 물가 안정 상호보완
P-S	P 뱅크런 S 자기자본 비율	P 경기 순응성 S 완충자본제도

특히 공통점.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원적=별개'로 갈 수 있으나 필요시 발췌독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P-S 구조 잡습니다. 마지막 단락 주제 관촬습니다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둘다 예방해야죠!

상식. 하향식 바탕 공통점!

상식 하향식의 힘을 꼭 확인바랍니다.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시스템은 거시 맞습니다.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완충자본, 자기자본. P-S 구조 맞습니다.

세부내용 와리가리 발췌독하면 박살납니다.

경우의 수는 $2*2*2*2=16$ 시간 안에 풀 수 없고 실수 유발 비릇 난리납니다.

주제 잡으세요. 왼쪽 표를 다시 풀어씁니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경기가 (A)일 때	1. 모름
(B) 건전성 정책에서는	2. 아래 c를 보면 완충자본은 거시!
완충자본을 (C)하도록 하고,	3. 역시 모름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	4. 자기자본유지는 미시!

경기가 (A)일 때	5. 불황 - 완충자본 사용
완충자본을 (C)하도록 하고,	호황 - 완충자본 보유
정리	
불황 - 거시 - 사용 - 미시 = 1번선지 정답 끝!	
호황 - 거시 - 보유 - 미시	

A B C D

① 불황 거시 사용 미시

<보기>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A)일 때 (B)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C)하도록 하고,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마지막지문

30.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지문 내용 바탕 보기는 경기 침체 해결은 못한다.

P 문제 제기

이유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C1. 금리 인하 = 대출/신용 확대 = 소비심리 위축 + 투자대상 없음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1 버블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결국 여기서 끝!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E1 버블 보이죠! 바로 관촬음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C1 심리 보이죠. 바로 종조

-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주제.

경기침체 해결 못한다.

정답 바로 보입니다.

상세 해설 1.

보기 주제 = 경기 침체 해결 못한다 = 무엇을 써도 해법이 되지 못한다.

상세 해설 2.

완충자본 제도 사용 = 유동성 공급 = 신용/대출 늘어나서 = 버블 뒹 = 문제 발생 더 시킨다.

하지만 역시 주제와 관련된 상세 해설 1로 이해 바랍니다.

-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여기까지 고생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배운 내용 그대로.

- 1. 주제
- 2. 문장구조
- 3. 문단구조
- 4. 전형적 출제 양상

잘 잡아 활용.

동시에 경제학 지문의 기출 흐름과 배경지식 전제를 봐야만 시간 안에 완벽한 답이 나온다는 흐름.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